

이슬람교 바로 알기

 The Bible and Islam

세계인과 크리스천을 위협하는 거짓 종교의 영



클라우드 外 지음

박용찬 外 옮김

 그리스도 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이슬람교 바로 알기

지은이 / 클라우드 외

1판 1쇄 / 2016년 3월 1일, 2023년 1월 30일

발행처 /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664-1611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48-7 03230

비매품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지음

*Rightly Knowing Islam:
'The Bible and Islam'*

—David Cloud—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21년에 발행된 <강제임스 홈정역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슬람교,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현지 시각 저녁 9시 16분,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린 생드니 경기장을 포함하여 최소 7곳에서 동시 다발 연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소 3건의 폭발과 6번의 총격이 있었고 바타클랑 극장에선 최소 60여 명의 인질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파리의 인질극은 종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1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테러 과정에서 2건 이상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러로 올랑드 대통령은 그날 밤 자정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일으킨 9·11 테러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프랑스 파리는 무슬림들의 대규모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이 극악무도한 테러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를 겨냥한 이슬람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복면을 쓴 이슬람 원

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풍자 신문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였고 그 결과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건물에 들어와 알라신은 위대하다는 의미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자동화기를 난사했으며 50발 이상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일어난 그 하루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가 또 다른 16건의 테러를 저질렀고 그 결과 무려 2,4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 극단주의 무장 단체 ‘보코하람’이 최소 2,000명을 학살했고,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는 알카에다의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 학교 학생과 지원자 37명이 죽었습니다.

에브도 테러가 일어난 바로 그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테러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일상적인 일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수니파 무장 단체인 이슬람 국가(IS)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 간에 주도권 경쟁까지 일어나면서 2014년에만 테러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목을 베는 참수나 높은 빌딩에서 떨어뜨리는 처형을 넘어 10세 여아를 동원한 자살 폭탄 테러까지 그 잔혹한 수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자행한 테러 기록을 집계하고 있는 미국의 사설 웹사이트 ‘릴리전오브피스’¹⁾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2015년까지 15년간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은 28,244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약 19만 명이며 부상자는 약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고 발생 건수도 2012년 2,554건,

1). <http://www.thereligionofpeace.com/> 이 웹사이트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2016년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행한 테러들의 명단이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무서운 테러를 일으키는 사악한 종교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기사들과 분석 자료들이 자세히 들어 있어 이슬람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웹사이트이다.

2013년 2,836건, 2,014년 3,000건, 2015년 2,8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5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테러 사건도 매해 늘어 2014년에는 87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무장 단체는 크게 이슬람 국가(IS),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알샤밥 등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테러의 66%가 IS,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등 4개 단체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단체가 IS입니다. IS는 2014년 6월 국가 수립을 선언한 이후 북아프리카, 예멘 등지에서 활동하던 알카에다 요원들을 속속 합류시키며 유럽 각국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상에 세뇌된 한국의 젊은이들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IS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단체는 알카에다입니다. 전문가들은 IS와 알카에다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테러가 더 광범해지며 잔인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IS는 테러 영역을 아시아 쪽으로 넓히면서 2016년 1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총격전을 벌여 8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랍어를 구사하는 남성이 한국의 모든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협박성 국제 전화를 한국공항공사에 걸어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모두가 온종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과격 세력들은 이제 아시아 쪽에 교두보를 세우려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이슬람에 대해 더 관용을 베푸는 한국을 향해 집요하게 이슬람 확산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진행되는 이슬람 테러의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정

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글은 이 책이 전달하려는 내용 즉 이슬람의 정체와 목표를 간략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요약해서 보여 줍니다.

무슬림/이슬람에 대한 요약²⁾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고 이단/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이슬람은 완전하며 완벽한 100% 생명 조직체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군대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요소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숨기기 위한 턱수염 같은 위장막 역할을 합니다.

한 국가의 이슬람화는 그 나라에서 종교적 특권을 얻기 위해 선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무슬림들이 충분히 있을 때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관용을 베풀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종교적 특권들을 주장하는 무슬림들의 요구에 동의할 때 다른 요소들 일부가 거기로 살짝 끼어들어 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2% 미만이면, 그들은 대부분 다른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로 간주됩니다. 다음의 국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0.6%	1.5%	1.9%	1.8%	1.5%	1.8%

전체 인구의 2-5%가 되면, 무슬림들은 다른 소수 민족들과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 - 주로 감옥의 죄수들과 길거리의 갱들 - 에서 이슬람교 개종

2) 해먼드 박사(Dr. Peter Hammond)의 책 <노예, 테러 행위와 이슬람-역사적 뿌리와 현대의 위협> (Slavery, Terrorism and Islam: The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Threat)에서 발췌했다(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음). 이 부분을 번역해 주신 사랑침례교회 남윤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의 국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³⁾

덴마크	독일	영국	스페인	태국
2%	3.7%	2.7%	4%	4.6%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무슬림들은 인구 비율에 비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할랄 음식 즉 이슬람 기준에 맞추어 정결하다고 판명된 음식을 강력하게 소개하여 무슬림들이 음식 준비하는 직업을 얻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그들은 슈퍼마켓 체인들이 진열대에 할랄 음식을 배치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다음의 국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네덜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8%	5%	4.3%	5.5%	5.8%

이 시점에서 그들은 그 나라의 정부가 그들의 거주지 안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을 허용해서 그들만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슬람교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에 샤리아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무법 상태 혹은 무정부 상태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는 이미 그들이 불법으로 차를 불태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의 행동은 이슬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그 결과 네덜란드 암스테

3)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실제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고 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1년 영국 센서스 통계에서 무슬림 인구는 4.5%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2001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이슬람 인구는 75% 성장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 1월 현재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0%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가디언지)(The Guardian, 2015년 2월 11일).

르담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만화나 이슬람에 대한 영화에 대해 강한 반대가 표출되면서 소동과 위협이 일어납니다. 2015년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이런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이러한 긴장과 소요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의 이슬람 점유 지역에서 매일 나타납니다.

가이아나	인도	이스라엘	케냐	러시아
10%	13.4%	16%	10%	15%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사소한 일로 인한 일촉즉발의 폭동, 지하드, 민간 무장 단체 형성, 산발적인 살인, 그리고 기독교 교회와 유대인 회당이 불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에티오피아	32.8%
-------	-------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광범위한 대학살, 상습적인 테러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민간 무장 단체의 무력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40%	53.1%	59.7%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이슬람에 순응하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 신자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산발적인 대량 학살을 통해 소수 민족들을 박멸하며, 샤리아법을 무기로 사용하고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지즈야’⁴⁾를 강제로 납부하게 만듭니다. 다음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

4) 이슬람 세력은 정복 전쟁으로 서아시아·북아프리카를 지배 영역으로 삼았다. 정복된 이교도들에게 종래의 신앙을 허용하는 대신 지즈야나 하라즈라고 하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처음에는 납세로 신앙의 유지가 허용된 자는 유대교도와 그리스도교도에 한정되었으나, 정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이교도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초기에는 지즈야와 하라즈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았으나 곧 전자는 인두세, 후자는 지세(地稅)로 분화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지즈야 [jizyah], 두산백과).

됩니다.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
70%	60.4%	77.5%	70%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되는 국가에서는 매일 위협이 있고 난폭한 지하드가 이루어지며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 청소 같은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비무슬림들은 나라 밖으로 추방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런 국가들은 결국 100% 무슬림 국가가 되려 합니다. 다음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가자(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83%	90%	98.7%	86.1%	98%	97%	92%

전체 인구가 100% 무슬림이 되면 ‘다르 에스 살람’(Dar-es-Salaam) 즉 이슬람의 평화의 집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른 국가에서는 국민이 모두 무슬림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마드라스(Madrass 혹은 Madrasa)라 불리는 이슬람 학교들만 존재하며 이슬람 경전인 꾸란만이 유일한 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음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
100%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국가들에서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히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자기들보다 덜 극단적인 무슬림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증오를 분출하며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 그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피의 욕정을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살이 되기 전에 나는 아랍인으로서의 삶의 기본 표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형을 대적하고, 나와 내 형이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고, 내 가족이 내 사촌들과 같은 집안을 대적하고, 한 집안이 한 종족을 대적하고, 종족들이

세상을 대적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신자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레온 유리스(Leon Uris), <더 하즈>(The Haj), 1984).

프랑스와 같이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수인 무슬림들이 자기들만의 게토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게토에는 100% 무슬림들만 존재하며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경찰들도 그들의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법원이나 공립 학교나 비무슬림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슬림들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일반 지역사회로 나와 통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마드라스라 불리는 이슬람 학교에 다닙니다. 그들은 오직 꾸란만 배웁니다. 조금이라도 비무슬림들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들의 무슬림 밀집 게토 지역에서는 무슬림 지도자들인 이맘(Imam)들과 극단주의자들이 그 나라의 어떤 일반인들도 행사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무슬림은 15-18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산율은 크리스천,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인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의 신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21세기가 끝날 무렵에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우더러 닭장을 지키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들이 양 떼의 망을 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정부에서 새로 임명하는 관료들 가운데 독실한 천주교인, 독실한 유대인 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실한 무슬림으로 알려진 자들이 미국 국토안보부의 요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당신에게 무언가 일이 꼬이고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⁵⁾

5) 특히 이런 일은 무슬림으로 알려진 오바마 행정부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독실한 무슬림 관료들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할까요? 2001년 9월 11일, 비행기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독실한 무슬림들’이 아니었습니까? 무슬림들의 이 극악무도한 대규모 테러로 인해 90여 개국 2,800-3,500여 명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9년 11월 5일,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Hood) 군사 기지에서 13명을 죽인 자도 ‘독실한 무슬림’이 아니었습니까?

다음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답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처럼 포악한 테러 행위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무슬림이 좋은 미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간 일했던 친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다음과 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 신학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아라비아의 월신(月神)인 알라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 종교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알라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꾸란2:256).
- 성경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자기들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과 꾸란에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 지리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기 위해 몸을 돌려 바라보아야 하는 메카에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슬람에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나 유대인 등과는 절대 친구로 지낼 수 없습니다.

- 정치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전멸과 미국의 멸망을 가르치는 무라들(Mullahs,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 가정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네 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가 자기에게 불순종할 때 그 아내를 때리고 매질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꾸란 4:34).
- 지적 측면에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미국 헌법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은 성경이 부패되었다고 믿습니다.
- 철학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무함마드, 그리고 꾸란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이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슬림 정부는 독재 정부이거나 전제 정치 정부입니다.
- 영적으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밑에서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라고 선포할 때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이지만, 무슬림의 알라는 단 한 번도 하늘의 아버지로 간주된 적이 없으며 꾸란에서 알라를 가리키는 99개의 탁월한 이름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우리는 이 나라(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수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혹은 ‘선한’ 무슬림이 될 수 없고 좋은 미국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이런 결론을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 결론을 무엇이든 불러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제가 결론 내린 대로 믿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결론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와 나라의 미래는 밝아

질 것입니다. 이슬람과의 이 종교 전쟁은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 피터 해먼드 <노예, 테러 행위와 이슬람 - 역사적 뿌리와 현시대의 위협> 중에서

이슬람이 확산하면서 한국도 203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국내에 대규모 할랄 음식 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 제조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며 이슬람 사원을 만들 것입니다. 터키는 서울 이태원에 대규모 이슬람 사원을 지어 주겠다고 하며 인천 송도에는 이슬람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슬람의 정체를 깨닫고 영적 전투를 치를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슬람에 의해 정복되면 독재와 무지와 속박을 통해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모두 철저히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전체 조감도를 보여 주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이슬람의 확산과 부흥이 있지만 결국 이슬람 무리들은 곡과 마곡(러시아), 그리고 고멜(유럽)과 더불어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아마겟돈으로 몰려가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하다가 결국 다음과 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며 세상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예수님의 지상 재림],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또 그 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시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슌14:3-4, 9, 12-13)

그날에는 아삽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 하나님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시83:18).

그러므로 이슬람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키며 무지한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편 83편과 에스겔서 37-4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⁶⁾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셔서 사악한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깨어 있는 목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 이슬람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들을 제압하여 이 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유의 땅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책의 번역을 허락해 주신 네팔 선교사 클라우드⁷⁾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번역해 주신 캐나다의 박용찬 형제님과 뉴질랜드의 Jay Lee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다양한 이슬람 관련 글과 정보를 사진 자료와 함께 총 13

6)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의 '이슬람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 이슬람', '이슬람교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설교 동영상 참조하기 바랍니다.

7) 클라우드(David Cloud) 형제님은 네팔에서 직접 선교사로 일하며 또 문서 사역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진리로 이끄는 귀한 분이다(www.WayOfLife.org 참조 바람).

편 수록했습니다. 이 중 한국 이란인 교회를 섬기시며 오랜 이슬람 사역을 통해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슬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독교 신문 등에 많은 글을 발표하신 이만석 목사⁸⁾님의 글 여섯 편을 실었습니다. 귀한 글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만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꼼꼼히 원고를 교정해 주신 김대용·김상진(울산) 형제님과 이청원·김현아 자매님, 부록의 글 두 편을 제공하고 전체 편집을 해 주신 김재욱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무지에 갇힌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달되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6년 2월

정동수(사랑침례교회 목사)

8) 이만석 목사의 교회 사이트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귀한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4him.or.kr/>).



차례 CONTENTS



책을 내면서 5

서론 20

이슬람교의 역사 30

이슬람교의 신조들 36

이슬람교의 목표 45

배도한 기독교에 대한 심판 51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61

이슬람교의 근본 취약점 67

적그리스도 예비하기 84

적그리스도와 중동 문제 90

예언 속의 무슬림 국가들 103





부록

1. 이슬람교 바로 알기 118
2. 이슬람의 급성장과 그 대책 129
3. 할랄 푸드 열풍에 관하여 141
4. 이슬람과 성 윤리 147
5. 교회는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153
6. 이슬람의 한국 정복 전략, 무섭다! 167
7.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이슬람 174
8. 이슬람 여인들의 인권 유린 실태 185
9. 시리아 난민 사태와 이슬람의 유럽 및 미국 정복 202
10.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가 아닌 10가지 분명한 이유 217
11. 무함마드가 대언자가 아닌 50가지 이유 221
12. 왜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가? 227
13. 꾸란에서 예수님을 찾은 이슬람 지도자? 238

서론



오늘날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이슬람교에 대해 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슬람교는 세계의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례없던 ‘지하드’(Jihad)¹⁾ 즉 ‘거룩한 전쟁’의 광란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44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으며, 그중의 절반은 아랍 국가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이다. 북아프리카부터 남러시아까지 그리고 북인도에서부터 인도네

1) 이것은 보통 ‘성전’(聖戰)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신앙이나 원리를 위하여 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옛날부터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약탈 전쟁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공격적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슬람교도가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위적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이 된 모든 남자 이슬람교도는 지하드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이슬람교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자에게는 전리품의 분배가, 순교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된다. 한편, 지하드의 가치를 내걸고 많은 이슬람교 단체들이 이란·팔레스타인·레바논·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스라엘 등 서방 국가 등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하며, 일부는 테러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이슬람 지하드라고 하지만 그 실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슬람 아말이나 헤즈볼라 등 시아파 과격 단체의 위장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단체가 독자적으로 테러 행위를 수행한 후 이슬람 지하드의 이름으로 성명을 낸다는 견해도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시아까지 무슬림들은 지구의 절반을 뒤덮고 있다. ... 유럽에는 5,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프랑스에 600만 명, 독일에 4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각각 살고 있으며 러시아(다수의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 포함)에도 약 8,0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UN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이런 국가들이 10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을 대표하고 있다(Michael Evans, <Beyond Iraq>, p.49).

이슬람교는 일찍이 과거 역사에서 실패했던 일을 현재 다시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일이란 바로 유럽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이민과 다산 그리고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의 대다수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통찰력이 부족하고 평화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이슬람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가장 '과격함' 형태의 지하드를 지원하고 있다. 근대의 지하드 추종자들은 수만 명을 살해했고,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들 중 두 채를 붕괴시켰으며,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과 수상들을 협박하고,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점령했다.

성경의 예언이 없었더라면, 이슬람교가 그것의 영구적인 목적 즉 전 세계를 통치하는 칼리프 제국을 수립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종말을 고하게 될 또 하나의 거짓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는 결국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고대 이교도 국가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교가 창시된 때부터 지금까지 배도한 기독교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슬람교를 사용해 오셨다.

성경의 예언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미래를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이슬람의 흥망성쇠에 대한 모리스 박사의 설명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슬람교도들²⁾

오늘날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한 현상들 중 하나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몹시 증오한다는 것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둘 다 탁월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창세기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를 믿고 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기록된 것같이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대로 이스마엘을 통한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아랍권과 비(非)아랍권에 있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권능이 있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능자 알라신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며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갖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경은 주후 600년경 무함마드와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 이슬람 세계를 이루게 될 중동 사람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의 이런 구절들은 특성상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83편이다.

시편 83편은 다윗 왕 당시의 음악가이던 아삽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이 시(詩)에 묘사된 예언적 사건은 다윗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예언이 여호사밧의 통치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주전 170년경의 마카비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이것은 결국 다음의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실히 완성될 것이다.

2) 헨리 모리스,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그리스도예수안에), 2015, pp. 35-36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시83:18).

아삽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연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시83:4).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 개의 민족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시83:6-8).

물론 아삽은 이러한 반(反)이스라엘 연합을 그 당시 존재하는 민족들의 이름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이 민족들의 이름을 현재의 국가들로 바꾸어서 해석해야만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국가들이 페르시아, 바빌론 혹은 아시리아가 먼 지방에서 큰 세력을 구축하기 전인 다윗 왕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근접국들이라는 사실이다. 동쪽에는 에돔, 암몬, 모압(지금의 요르단)이 있었고 남동쪽에는 이스마엘과 하갈 남서쪽에는 아말렉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은 부분적으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다.

해안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간 곳에는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블레셋이 있었고 북쪽에는 페니키아의 도시였던 두로와 그발이 있었는데 이곳들은 지금 레바논으로 알려져 있고 더 최근엔 시리아에 의해 넓게 합병되었다. 북동

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을 이룩했던 앗수르가 있었다.

수 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이 지역 사람들과 그 외의 다른 중동 지역 사람들 간에 서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고대 민족/국가들과 그에 해당하는 현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일대일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피가 섞여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옛 원수들이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원수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는 것이다.

어떻든지 아삼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땅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때를 예견하였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현대의 이스라엘이 규모는 작지만 아랍 주변국들과의 -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과 그 외의 이슬람 국가들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원조에 의해 줄곧 힘을 키워 왔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체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대전에서 - 특히 러시아가 이슬람권 국가들을 돕는 경우 -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적적인 힘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에게 대하여 친히 간섭하셨는데(시83:9-12 참조) 그분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간섭하실 것이다. 대광풍이 있을 것이며 산에는 큰 불이 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슬람 군대는 '치욕을 당하며 영원토록 당황하게 될 것이다'(17절).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알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은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숨을 받아 큰 군대가 됨을 보여 준다.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겔37:10).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 마른 뼈들이 말세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회복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겔37:11-14).

이런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고 1967년에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지를 탈환하여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불신과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주변 국가들을 써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있다.

주변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다니엘서 9장 27절의 70번째 이레의 7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 그가 자기들을 구출해 줄 것을 바라지만 3년 반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한 번도 겪지 않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단12:1; 마24:21). 이 환난의 끝에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멸절

시키려고 아마겟돈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 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또 네게 모인 네 온 무리가 예비하며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될지어다(겔38:1-7).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러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도갈마는 터키, 고멜은 유럽 국가를 뜻한다. 그런데 5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침공에는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등의 이슬람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하며 이것은 시편 83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슬람 국가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대적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시83:3-4).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현시대 이슬람 국가들의 부흥은 필수적이며 특히 막대한 원유 자산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곡과 마곡 그리고 고멜로 구

성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전멸하여 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묻는 데만 일곱 달이 걸린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가서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곳이 통행자들의 코 기능을 멈추게 할 것이요, 거가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이여,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끼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이 있는 데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겔39:11-12, 17).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광채를 발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마치 원자 폭탄을 맞은 사람들처럼 폭삭 주저앉아 소멸되고 말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또 그 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시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슌14:12-13)

하나님의 영광

비록 지금은 이슬람교가 확장되고 세력을 떨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파멸을 받을 운명이다. 즉 이들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천년 왕

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의 완전한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이슬람에는 미래가 없다.

다음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때에 이집트와 에돔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에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골3:18-21).

그러므로 이슬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대한 국경을 봉쇄하여 이슬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무지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슬람을 말씀으로 누를 수 있는 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³⁾

3) 유튜브에서 '극단적 이슬람을 경계하라!'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usJbNQB3d4>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 신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책무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그러하도다. 또 어찌 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눅12:54-57)

이슬람교의 역사

Islam's History



성 경적 관점에서 이슬람교는 또 하나의 거짓 종교일 뿐이다. 이슬람교 즉 무슬림들의 종교¹⁾는 주후 7세기에 무함마드²⁾(Muhammad, 570-632)에 의해 창시되었다.

무함마드는 그의 삼촌에 의해 양육되었고 성장해서는 양을 치며 낙타를 모는 자가 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그의 여러 아내들 중 첫째 아내인 카디자(Kadijah 혹은 Khadijh)라는 마흔 살의 부유한 과부와 결혼했고³⁾ 그 뒤에는 명상과 기도예 시간을 쏟았다. 그는 마흔 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 이후로 무함마드의 죽음까지 23년 동안에 걸쳐서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들을 구술해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계시들이 바로 이슬람교의 가장

- 1) 무슬림은 '신에게 항복한 자'라는 뜻이고 이슬람은 항복이라는 뜻이다.
- 2) 과거에는 이슬람의 창시자를 마호메트 혹은 모하메드라 하였으나 지금은 원음을 따라 대개 무함마드라고 한다.
- 3) 무함마드는 25년 동안 카디자와 살았고 그녀가 죽은 뒤에 아이샤(Aisha)라는 이름의 6-7세 소녀와 정혼하고 9-10세에 그녀와 성관계를 맺어 이슬람 국가들에 편만한 조혼 제도의 원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여러 아내를 두어 결국 무슬림들의 일부다처제의 원조가 되었다.

기록한 책인 꾸란(Qur'an; Quran)⁴⁾이 되었다. 꾸란은 알라의 말들로 알려진 것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114장으로 나뉘어 있다. 분량은 신약성경의 3분의 2 정도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라고 믿고 있다. 꾸란은 90장으로 된 메카의 계시(주로 설교와 대화)와 24장의 메디나의 계시로 나뉘는데 후자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이에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정착한 10년 동안에 전쟁을 약 66번 치렀으며, 27번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하디스(Hadith)는 무함마드의 언행들을 기록한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알라가 무슬림들의 모델로서 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11년 사망한 오사마 빈 라덴이 쓰고 다니던 터번이나 그의 수염 길이, 그리고 복장은 무함마드가 하고 다니던 모습과 비슷하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복장이나 수염의 길이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디스에는 무슬림의 복장이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갈 때도 들어갈 때는 왼발을 먼저 들여놓고, 나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밖으로 내놓는다.⁵⁾ 한편 시라(Sira)는 무함마드의 전기이다. 무함마드는 하디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 콧구멍 안에서 밤을 지내는 마귀를 없애 버리기 위해 코를 세 번 풀어야 하고(Sahih Bukhari IV, 516; Muslim I, 462), 하품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Bukhari IV, 509), 만약 무슬림이 기도하다가 잠들면 사탄이 그 사람의 귀에 소변을 보고(Bukhari II:245),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앗아갈 수도 있다(Muslim I, 863).

무함마드의 시대에는 360개의 우상들이 들어서 있는 사원이 메카에 있었는데

4) 꾸란도 과거에는 대개 코란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원음을 따라 꾸란으로 불린다.

5) 꾸란과 하디스의 정의는 2015년 4월 9일 자 <크리스천투데이> 유혜석 칼럼을 참조하였다. 유혜석 선교사는 FIN 국제 선교회 대표이며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의 저자로서 왕성하게 이슬람권 사역을 하고 있다.

데, 그 우상들 중의 하나가 수백 년 동안 무함마드가 속했던 부족의 최고신으로 인정받아 왔던 ‘알-일라’(Al-ilah) 즉 알라(Allah)였다. 알라는 월신(月神, Moon God)이었는데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의 기원은, 고대 바빌론과 노아의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 국가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신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지역의 최고신이었고 (Leonard Woolley, <Ur of the Chaldees>, p. 175), 세바(Sheba)의 여왕의 출생지로서 남부 아라비아에 있었던 고대 세바의 최고신이기도 했다. 세바의 옛 수도였던 마리브(Marib)에서 월신의 신전 두 개가 발굴되었다. 바란(Bar'an) 신전은 그 기원이 주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⁶⁾ 성경의 연대기에 의하면 이때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 지 수백 년 후가 된다.

월신의 초승달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포함한 모든 고대 왕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승달은 또한 힌두교 월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힌두교 국가인 네팔에서는 월신의 이름이 찬드라(Chandra)이며 그의 상징인 초승달은 네팔의 국기와 동전에 나타나 있다.

고대 이교도들의 초승달 숭배, 이슬람의 초승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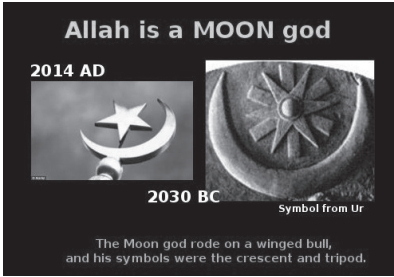
꾸란의 표준판을 번역한 웨리(E. M. Wherry)는,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는 바알 숭배는 물론 알라 숭배도 마찬가지로 해, 달, 별들에 대한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A Comprehensive Commentary on the Quran>, 1973, p. 36).

무함마드는 알라가 단지 한 부족의 최고신이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이며, 자신이 알라가 선택한 대언자⁷⁾(선지자)라는 계시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함마드의 계시들은 메카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622년에 메디

6) “Marib Governorate” Yementourism.com

7) 무함마드는 소위 알라의 계시를 대신 전한 자이므로 대언자라 함이 옳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개역성경의 오역으로 인해 ‘Prophet’이라는 단어를 ‘선지자’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슬람의 초승달



고대 이교도들의 초승달 숭배

나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헤지라⁸⁾(Hijrah 혹은 Hijra)라고 부르며 이것이 공식적인 이슬람력의 시작이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개종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다. 바누 나디르(Banu Nadir) 부족에 속한 일단의 유대인들은 평화 회담을 약속한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요새를 떠난 후 살해당했다. 유대인들이 바누 쿠라이자(Banu Qurayza) 부족이 항복한 뒤에, 무함마드는 700명에서 900명에 달하는 모든 남자를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저들을 도랑을 따라 줄 세운 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참수형을 집행하였다.

8) 이 말은 원래 '이주'(移住) 혹은 이탈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헤지라(Hegira), 아랍어로는 히즈라(Hijrah)라고 한다. 중국의 이슬람교도는 '성천'(聖遷)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본래 아라비아 사람이 자기 일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무함마드는 610년 첫 계시를 받은 뒤 고향 메카에서 10년간 이슬람 포교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득권 계층인 쿠라이쉬족(族)의 박해로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교 11년째에 접어든 620년,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야스리브(Yathrib)에서 여섯 명의 순례객이 메카로 왔다가 무함마드의 설교를 들은 뒤 종교적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 중 다섯 명이 다음해에 야스리브의 유력 인사 7명과 함께 메카로 다시 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622년 6월 순례 때에 75명의 야스리브 주민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나서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이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 따라 무슬림 모두가 야스리브로 옮겨가는 이주(헤지라)를 단행했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이주의 해를 이슬람 공동체가 만들어져 이슬람 국가가 태동하는 시점으로 보며, 따라서 이슬람력(히즈라력)의 원년으로 한다. 무함마드는 가장 늦게 메카를 떠나 622년 9월 24일에 무사히 야스리브에 도착했으며, 이때부터 야스리브는 '메디나'(원래는 메디나 알-나비: Medina al-Nabi: 대언자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남편이 살해당한 바로 그날 밤에 무함마드의 첩이 된 라이하나(Rayhana)를 포함한 유대인 여자들은 성 노예가 되었다(“The Life of Muhammad: An Inconvenient Truth”, TheReligionofPeace.com).

무함마드는 만 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해 들어가 그 도시를 정복했다.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이냐, 아니면 천민 신분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선택이 주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개종하는 편을 선택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비무슬림들이 메카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무함마드는 강제로 비무슬림들을 개종시켜서 지즈야(Jizya)라는 보호세를 내게 만들었고 이것을 거부하면 죽이는 무슬림의 관례를 시작했다.

무함마드는 11-13명에 이르는 아내들과 많은 성 노예들을 두었다. 무함마드의 아내들 중에는 자신의 며느리⁹⁾도 포함되고 또 최초 개종자들 중 한 사람의 아홉 살 난 딸도 있었다.

12년에 걸쳐서 그는 11명의 아내들과 결혼했고 많은 성 노예들을 거느렸다(영어 위키백과에는 총 13명의 아내가 언급됨). ... 그는 자신의 성욕과 그것의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관계들이 자신의 성생활을 위해 계시된 알라의 뜻이라고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그 일은 후세대들이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꾸란 안에 영원히 보존되었다. 꾸란 66장의 첫째 구절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 이 구절은 무함마드의 아내들 중 두 명이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 노예에게 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후에 그가 그 아내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오, 대언

9) 무함마드의 아들들은 모두 어릴 때 죽어 후계자 문제로 시아파가 생기고, 수니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무함마드가 며느리를 아내로 맞은 것은 양아들 자이나브가 이혼하자 그의 부인을 취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했으나 알라신은 꾸란의 계시를 통해 양자로 삼은 은혜를 베푼 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합리화했다(꾸란33:37).

자여! 그대는 그대 아내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알라께서 그대에게 허용한 것을 스스로 금하느냐?’(꾸란66:1) (“The Life of Muhammad: An Inconvenient Truth,” TheReligionofPeace.com).

주후 620년에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를 깨워 그를 여자의 얼굴과 공작의 꼬리를 가진 알-부라크(al-Buraq)라고 불리는 날개 달린 말에게로 데려갔고, 무함마드는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 산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이 여정은 알-이스라(al-Isra) 즉 밤의 여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으로부터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끌려 7개의 천국 모두에 이르렀는데,¹⁰⁾ 그곳에서 그는 아담, 요한, 예수님, 예녹, 아론, 모세, 아브라함을 만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다(Dore Gold, <The Fight for Jerusalem>, 2007, p. 89).

무함마드는 매일 기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최초에는 하루에 50번씩 기도를 해야 했으나 나중에는 하루에 5번으로 줄었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주후 632년, 62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다.

10) 꾸란에는 갖가지 천국들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 각각은 정신적 영역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천국들은 상징적이거나 여러 다른 예언자에게 배정되어 있다. ‘일곱째 천국’은 형태를 초월한 창조물의 마지막이며 그 중심은 공간의 일곱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꾸란에서는 천국을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갈라진 틈새(82:1),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는 풀(21:104)로 그린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늘은 물질의 실재와 정신의 실재가 만나는 곳이다. 하늘이나 천국을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물에 관여하는 것이며 원초적 음성같이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트럼펫 소리를 뜻하기도 한다. 천국은 보통 잔나(al-jannah, ‘뜰’), 또는 피르다우스(firdaws, ‘낙원’)라고 말한다(〈네이버 지식 백과〉, 이슬람 사전, 2002, 11. 15., 학문사).

이슬람교의 신조들

Islam's Beliefs



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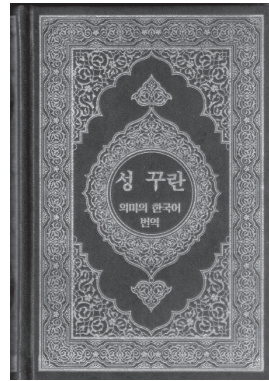
모든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모세와 예수님을 능가하는 최종 대언자로 믿으며, 꾸란을 성경을 능가하는 신의 최종 계시로 받아들인다.

꾸란은 114개의 수라(Sura), 즉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에 따라서 가장 짧은 장부터 가장 긴 장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꾸란은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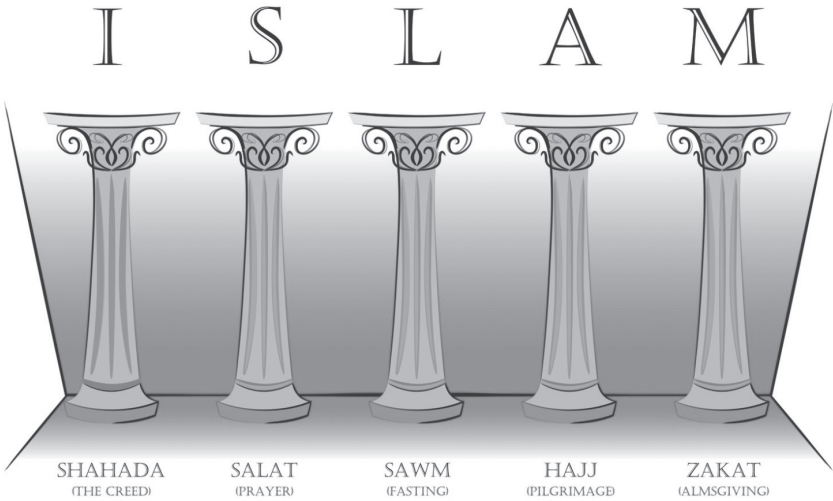
예를 들면, 꾸란은 노아에게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대홍수 때 죽었으며(꾸란11:42-43),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모세의 남매인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한다(꾸란19:21-28).

꾸란은 환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Jinn)이라는 솔로몬의 정령 군대와 인간들, 새들, 개미들 간의 전투, 독수리들과 코끼리들 간의 전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원숭이로 변한 유대인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자기를 죽인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다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를 죽여 그것으로 죽은 사람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 등의 내용들이다.

꾸란에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전혀 없다. 꾸란의 그 어디에도 알라가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람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없다. 꾸란에 의하면, 알라는 오직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꾸란2:195; 5:13; 5:93). 꾸란은 알라가 '죄인들'(4:107)과 '불신자들'과(30:45), '불의한 자들'(42:40)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알라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꾸란60:1).



이슬람 신앙의 다섯 기둥

이슬람교 '신앙의 다섯 기둥'은 무슬림들에게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한다. 이 다섯 기둥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과 입술로 사하다(Shahadah) 고백하기: “알라 이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2. 하루 5번,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절하며 기도하기(Salat 혹은 Salah): 기도는 일출 직전 새벽, 정오, 늦은 오후, 일몰 그리고 밤에 해야 하며, 기도문은 아랍어 꾸란에 서 나온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3. 일 년에 한 번 라마단 기간에 28일 연속 금식하기(Sawm): 금식은 낮 동안에만 시행하며 음식, 음료, 흡연, 그리고 성생활을 삼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¹⁾
4. 자기 수입의 일부분 기부하기(Zakat 혹은 Zakah): 이것은 매년 자기 재산의 40분의 1을 기부하는 것과 사적인 자선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일생에 최소한 한 번 메카로 성지 순례 가기(Hajj): 이것은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이다(Mandatory religious duty, 영어 위키백과, 'Pilgrimage' 항목).

샤리아법(Sharia Law)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슬림들의 샤리아법은 두 개의 주된 출처인 꾸란과 순나(Sunnah)에 근거한 것이다.

순나는 무함마드의 삶을 기준으로 한 격언들과 그의 삶에서 가져온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무슬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최고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순나는 무함마드의 사후에 수집된 전승들의 기록인 하디스 문학에 포함되어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다른 하디스 문집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아내였던 아이샤가 쓴 것으로 알려진 수백 개

1)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에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여행자·병자·임신부 등은 면제되지만 대신 이후에 별도로 수일간 금식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戰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다. 이것은 이슬람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슬람교도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서 머물게 된다. 보통 27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Laylatul-Qadr 또는 Lailatul-Qadr)이라고 하여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드알피트르’(Eid-al-Fitr)라는 축제가 3일간 열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다(〈네이버 지식백과〉, 라마단 [Ramadan] 두산백과).

의 하디스 중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샤리아법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해석들이 존재한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샤리아법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뿐 아니라 수니파에만 샤리아법 해석에 관하여 4개의 다수 학파와 그 밖의 소수학파가 있다.

결혼에 관한 샤리아법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는 최대한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배려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면 너는 네가 선택하는 둘 또는 셋 또는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꾸란4:3).

여자 노예들은 그들의 남자 주인들의 성적인 재산이다.

(전쟁 포로들과 같이) 네 수중에 들어오게 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은 네게 금지된다(꾸란4:24).

남자 상속자는 여자 상속자보다 두 배의 상속 지분을 물려받는다.

남자의 지분은 여자의 지분의 두 배이어야 한다(꾸란4:11).

여자의 증언은 남자의 증언의 절반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너희들 중 두 명의 남자를 [무이자 대출 계약서와 같은] 모든 문서의 증인이 되게 하라. 하지만, 만약 두 명의 남자가 없거든,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여자가 (어떤 것이라도) 잊어버리면, 다른 여자가 그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꾸란2:282).

남편들이 아내들을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

만약 너희들이 아내들의 위압적인 태도를 두려워한다면, [신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잠자리를 같이하지 말 것이며, 그런 후 그들을 때려 주라(꾸란4:34).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의 소녀들과 결혼해도 좋다.

오, 대언자여, 네가 (그리고 신자들이) 여자들과 이혼을 할 때에는 정해진 대기 기간을 두고 이혼하되 그 정해진 기간을 정확하게 세도록 하라... 그리고 만약 네가 나이가 들어 생리 기간이 끝나 버린 여자라도 그들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는, 그들을 위해 정해진 대기 기간은 3개월이며 (이것을 반드시 알지어다), 이것은 나이가 어려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꾸란65:1, 4).

유명한 무슬림 율법의 권위자인 마우두디(Sayyid Maududi)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그러므로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소녀들을 위한 대기 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그 나이의 소녀를 신랑에게 신부로 주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소녀와 부부 관계를 갖는 것 또한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자, 명백하게 어떤 무슬림도 꾸란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The Meaning of the Qur'an〉, vol. 5, p. 620, note 13).

무함마드는 아이샤가 6살 때 그녀와 약혼을 했고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때 부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의 시아파 혁명 이후에 결혼 가능 연령을 9살로 낮추었다.

그 외의 샤리아법들은 다음과 같다.

절도는 오른손을 절단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무함마드나 꾸란을 비판하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한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무슬림을 이슬람교로부터 배도시키는 비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무슬림 여자와 결혼하는 비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한 여자에 대한 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자 증인 네 명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법정에서 자신을 강간한 자(들)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여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피트나(Fitnah) 즉 소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여자는 홀로 자신의 남편이나 친척이 아닌 남자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고기는 알라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할랄 음식)²⁾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반기독교 교리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부정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정한다.

꾸란은 16번에 걸쳐서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며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의 성전 산 위에 있는 바위 돔 사원(The Dome of the Rock Shrine)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아랍어로 쓰여 있다.

2) 할랄은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가 차지하고 있는데, 할랄 푸드가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네슬레·맥도날드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할랄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09년 4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발표한 할랄 푸드 과자 중 한국 제품으로는 국희땅콩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말해 그에게 다른 동역자는 없다.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알라와 알라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말씀의 사자이며, 알라로부터 나온 영일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로지 알라와 그의 사자를 믿기는 하되, 셋(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그편이 너희들에게 더 나올 것이다. 알라는 오직 한 신이다.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알라의 눈앞에 종교는 진실로 이슬람교뿐이다.

이슬람교는 창시되었을 때부터 반기독교적이었다.

이슬람교가 정복지에서 자행한 만행을 열거하기 시작만 해도,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오늘날의 주장에 대해 핵심적인 배경 설명을 제공해 주는 책이 몇 권은 필요할 것이다. ...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인 제임스 W. 제라드(James W. Gerard)는 조지 홀튼(George Horton)의 저서 <The Blight of Asia>의 서문에서, 그들의 만행을 가리켜 '옛 비잔틴 제국 전역에서 무슬림들이 자행한 기독교 문명에 대한 야만적인 말살의 전모'라고 묘사하고 있다. 저자인 홀튼 자신도, '이러한 말살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고한 목적하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동여 만든 아주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말살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와 비슷한 박해로 고난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쓰고 있다(Dave Hunt, <Judgment Day>, pp. 158-159).

절개너스(Gene Gurgan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교는 맹렬하게 기독교를 공격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데 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신앙의 이 세 가지 핵심 교리를 모두 부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에

계 삼위일체는 가증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마리아라는 아내가 없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세 가지 신을 믿는 다신교도들로 간주한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메시아 등과 같은 칭호를 예수님에게 주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또는 주님은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대언자나 위인일 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Peril of Islam〉, pp. 47-48).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또한 창시되었을 때부터 반유대적이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받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인들이며, 유대인들은 강탈자일 뿐이다.

유대인들이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의 대의명분에 참여하지 않자,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의 재산과 소유물들을 강탈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추방하여 결국 유대인들을 제거했다.

사히 알-부카리 하디스(Sahih Al-Bukhari Hadith)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지막 날은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을 말살시켜야 비로소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알라가 바위들과 나무들에게 목소리를 줄 것이며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오, 무슬림이여, 오, 압둘라여, 내 뒤에 아직 한 유대인이 숨어 있습니다. 와서 그를 죽이시오!”(Dave Hunt, 〈Judgment Day〉, p. 12).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이 그 성지 즉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표시하고 있는 아랍 또는 무슬림의 지도(Map)는 단 하나도 없다. ... 아랍의 지도자들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온주의자 대적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에 관한 싸움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해 왔다(《Judgment Day》, pp. 14-15).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교는 사악한 거짓말들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방 종교임이 확실하다.

이슬람교의 목표

Islam's Goal



이슬람교의 목표는 알라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주후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할 무렵에, 그는 아라비아반도 대부분을 이슬람교를 써서 자신의 지배하에 통일했고, 그의 신봉자들은 무함마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멀리 전진해 나갔다.

그로부터 200년 안에 이슬람교는 동쪽으로 중국과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서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다. 무슬림 군대는 사산 왕조(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비잔틴 제국, 그리고 서고트 제국을 정복하였고, 1,28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통치하는 칼리프 제국을 수립했다.

이 일은 칼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부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동반되었다.

712년에 무함마드 카순(Muhammad Qasun) 휘하의 무슬림 침입자들이 인도 침공을 개시했다. 그들은 사원들과 궁전들을 파괴했고 모든 도시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 '인도에서 무슬림들이 저지른 학살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었으며 단순히 수적으

로 비교할 때, 나치에 의해 이루어진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큰 규모였다(Serge Trifkovic, <Sword of the Prophet>, 2002년, p. 12). …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학살을 동반한 이슬람교의 정복은 1,300년 이상 계속되었다(Dave Hunt, <Judgment Day>, pp. 156-157).

칼로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창시 때부터 이슬람교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였다. 꾸란은 “그들이 책의 사람들(기독교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알라의 종교가 온 세계에 군림할 때까지 그들과 전쟁하라.”라고 말한다(꾸란2:193).

꾸란에는 무슬림들에게 칼로 이슬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100개 이상 있다. 폭력적인 지하드를 벌이고 있는 작금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꾸란에 기록된 대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슬람교의 힘이 약하고 적이 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하드로부터 후퇴하여 평화를 채택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이슬람교 학자들은 주장한다. 지하드를 벌이기 위해 새롭게 준비를 갖춘 뒤 무슬림들은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지하드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심판의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Michael Evans, <Beyond Iraq>, p. 48).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은 ‘다르 알-하르브’(Dar al-Harb) 즉 전쟁의 세계 또는 비이슬람 민족의 세계와 ‘다르 알-이슬람’(Dar al-Islam) 즉 평화의 세계 또는 무슬림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의 정의에 따르면 평화란 세계의 모든 곳을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것이며, 완전한 평화는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전 세계가 무슬림의 종교를 채택하거나 또는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될 때까지 지하드의 의무는 계속되며 오직 휴전에 의해서만 중단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Gene Gerganus, 〈Peril of Islam: Telling the Truth〉, Taylors, SC: Truth Publishers, 2004년, pp. 59-60).

지하드의 세 단계

17년 동안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 걸개너스(Gene Gurganus)는 무함마드의 삶과 포교 활동이 두 부분 즉 메카에서의 관용의 시기와 메디나에서의 공격의 시기로 나뉘었음을 보여 준다.

메카에 있을 당시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였다. 그 기간에 무함마드는 비무슬림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자신의 대언의 말들을 썼다. 예를 들면, 꾸란 2:256은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 진리는 오류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느니라.”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칼을 집어 들었고, 이슬람교를 강제로 따르게 하기 위해 자기의 남은 일생 동안 무력을 사용했다. 무함마드가 후기에 쓴 많은 대언들은 그의 초기 대언들과 모순되며 불신자들과의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 꾸란 2:256과 무함마드가 초기에 쓴 유사한 내용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들이 무함마드가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정책을 바꾸기 전에 쓰였다는 사실과 그 구절들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걸개너스는 지하드에 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Peril of Islam〉, pp. 114-115).

첫째, 쇠약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비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 무슬림들은 메카에서 무함마드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른다.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꾸란2:256).

둘째, 준비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무슬림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소수 집단이 될 때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재정적, 육체적, 군사적, 정신적 부분과 다른 모든 가능한 부분에서 투쟁을 시도할 준비를 한다.

알라의 적들과 너희의 적들,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나 알라는 아시는 그 외의 다른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군대와 말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준비하여 그들 (비무슬림들)을 대적하라(꾸란8:59-60).

셋째는 지하드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무슬림들이 힘, 영향력, 그리고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이 될 때’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모든 무슬림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적들과 싸워 비무슬림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슬람교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지하드에 관해 무함마드가 받은 최종 계시인 꾸란 9:5 -- ‘네가 어디에서 이교도들을 발견하든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며, 사로잡아 괴롭히고, [전쟁의] 모든 술수를 동원하여 그들을 숨어 기다리라.’ -- 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구절은 ‘네가 어디에서 그들을 발견하든지’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슬람의 정복에는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다(〈Peril of Islam〉, p. 114).

폐기의 교리

결개너스는 이슬람교의 ‘폐기의 교리’에 대해 설명한다. 이 교리에 따르면, 알라는 꾸란의 어떤 내용들을 나중에 나온 새로운 명령들에 의해 폐기 또는 무효가 되도록 만든다.

이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은, 꾸란에서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될 때 더 새로운 계시가

이전의 계시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절이 오래된 구절을 취소시킨다. 당신은 여전히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는 말을 꾸란에서 볼 수 있지만, 꾸란 2:193에서 '그리고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이는 알라만을 위한 신앙 이니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항복한다면, 압제자들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적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새로운 명령 때문에 이전 구절은 더 이상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는 구절은 나중에 쓰인 계시들에 의해 취소(만수크) 되었다.

가브리엘(Gabriel)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슬림들이 꾸란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이 폐기의 교리는 아랍어로 나시크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알라가 진보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를 통해 무함마드를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꾸란의 많은 사본들이 어떤 수라가 메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메디나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 주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어느 것이 더 새로운 계시인지를 알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Peril of Islam), p. 69).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경우

철학자 타이미야(Ibn Taymiyah) (1263-1328)는 <무함마드 비방자의 목에 들이대는 칼>(The Sword on the Neck of the Accuser of Muhammad)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이 책에서 타이미야는 무슬림들이 소수 집단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비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교 신도들이 쇠약 단계에 있을 때 책의 사람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이 알라와 그의 대언자를 모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위를 참아야 한다. 신도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책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 적의 손을 자를 수 없다면 그 손에 입을 맞추라’는 이슬람교의 속담이 있다. 메카에서 힘이 약했을 때에 무함마드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이었다. 그러나 메디나에서 힘이 강해지자 그는 한 마리의 포악한 사자가 되었다.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서슴없이 억압하고 박해한다. 반대로 기독교 국가 또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자기들 자신을 사랑 많고 배려심 많으며 남들에게 관대한 사람들로서 보이도록 하는 데 대단히 능숙하다(Gurganus, <Peril of Islam>, p. 107).

배도한 기독교에 대한 심판

*Judgment on Apostate
Christianity*



하 하나님께서 과거에 배도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교도 국가들을 일으키셨듯이, 현시대도 배도한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일으키셨다고 볼 수 있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수백 년이 지나면서 매우 많은 수의 교회들이 신약 성경의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떠나 성례주의(유아 세례와 미사), 성직주의(제사장 체제), 그리고 교황 제도라는 이단 교리로 돌아섰다. 기독교는 주후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로마를 수도로 했던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 '기독교계'(Christendom)의 중심은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이동했다. 비잔틴 제국은 명목상 '기독교' 국가였지만 배도한 국가였다.

비잔틴의 이단 교리는 매우 많으며 특히 침례(세례)와 성례를 통한 구원, 유아 세례, 제사장 제도, 미사의 제병(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된다는 화체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성자들'의 중보, 외경의 정경화, 기적을 일으키는 성화들, 성스러운 유물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비잔틴 제국 전체와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채 기독교를 표방하는 유럽의 일부를 정복했다. 즉 사도들에 의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존재했던 모든 지역이 배도했고 무슬림들에 의해 정복당했다.

무슬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건물들을 파괴했고 남은 건물들은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의 예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아 소피아(거룩한 지혜) 성당이다. 콘스탄틴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황제에 의해 주후 360년에 처음 건축되었을 때부터 이 건물은 카시드라(cathedra), 즉 로마 카톨릭교회 동부 교구의 주교좌 성당이였다. 원래는 메갈레 에클레시아 즉 ‘대성당’이라고 불렸지만, 주후 430년경에 그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의 건물은 주후 537년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건축되었다.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1054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로 그리스 정교회의 최고 주교좌 성당이였다. 그런데 1453년에 무슬림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그곳은 훼손되었고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이슬람교의 테러리즘은 우리 시대의 배도한 기독교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심판이다.

이슬람교의 목표가 되는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명목상 ‘기독교’ 국가들이며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배도가 더 많이 진행될수록 이슬람교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침투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유럽에 있는 5,600만 명의 무슬림들 중에 600만 명이 로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 있고, 4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배도한 루터 교회를 가진 독일에 있다.¹⁾ 독일의 루터교는 욕을 들어 마땅한 19세기 신학적 모더니즘의 어머니였다.

1) 전 세계 각국의 무슬림 인구 현황은 www.muslimpopula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리프보치치(Serge Trifvovic)는 이슬람교의 현재 발전상과 미래의 목표에 관한 놀라운 통계를 제시한다. 30년 만에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2,00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독일에는 대부분이 터키 사람인 400만 명의 무슬림이 있고, 프랑스에는 주로 북아프리카 사람인 5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있다. ...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중 거의 10분의 1이 무슬림이며, 빈사 상태에 있는 브뤼셀은 그 수가 50%를 넘는다.

주로 유럽에 있는 서구 도시들에서 눈에 띄게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생성됨에 따라서, 최초에 보이던 문화와 지역의 괴리 현상은 사라졌으며 군사적 방법이 아닌 인구 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정복이라는 대담한 개념이 무슬림 활동가들의 머리에 들어오게 됐다. 이 개념의 청사진은 20여 년 전인 1981년에 있었던 제3차 카바 이슬람 정상 회의가 메카 선언(Mecca Declaration)을 채택했을 때 만들어졌다. 그 선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령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지하드를 수행하기로 결의했다[참고로 여기서 ‘그들의 영토’는 전 세계를 뜻한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무슬림 소수 민족들과 무슬림 공동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제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무슬림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이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슬람교의 계율과 문화적 영향력을 무슬림 사회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다’(Gene Gurganus, <Peril of Islam>, pp. 53-54).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는 ‘출입 금지’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들은 무슬림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경찰들도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법이 아닌 이슬람의 샤리

아법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구역을 ‘민감한 도시 구역’(Zones Urbaines Sensibles) 또는 ZUS라고 부른다. 다음은 2011년에 게이트스톤 연구소(Gatestone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발췌했다.

많은 ‘출입 금지’ 구역들이 이슬람교의 샤리아법이 통치하는 초소형 국가처럼 기능한다.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은 이 구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많은 경우에 경찰, 소방, 구급차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 지원조차 제공할 수 없다. ‘출입 금지’ 구역들은, 수십 년에 걸쳐 무슬림 이민자들이 평행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인 해당 국가에 통합되기보다는 분리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을 장려해 온 다문화 정책의 부산물이다.

예를 들면, 이스트 런던의 타워햄릿츠(Tower Hamlets) 지역(타워햄릿츠 이슬람 공화국으로도 알려져 있다)에서는 타워햄릿츠의 탈레반으로 불리는 극단주의 무슬림 성직자들이 이슬람교가 명하는 베일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동네의 거리는 ‘당신은 샤리아법 적용 구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슬람교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포스터들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노상 광고는 정기적으로 파손되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져서 볼 수 없게 된다.

루턴(Luton)시의 베리파크(Bury Park)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무슬림 지역에 사는 비무슬림들을 괴롭혀서 많은 비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떠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 카운티에서는, 두 명의 기독교 목사들이 버밍햄(Birmingham) 시의 무슬림이 대다수인 한 지역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증오 범죄’ 혐의를 받았다. 런던 동쪽의 레이튼스톤(Leytonstone) 지역에서는 무슬림 극단주의자인 이자딘(Abu

Izzadeen)이 리드(John Reid) 前 내무 장관에게 “어떻게 감히 무슬림 지역에 오는가?”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넓은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거주 지역들이 프랑스 경찰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를 완곡하게 표현한 ‘민감한 도시 구역’(Sensitive Urban Zone; Zones Urbaines Sensibles - ZUS)이 751개에 달한다. 민감한 도시 구역의 전체 리스트는 프랑스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위성 지도들과 정확한 도로 경계들이 표시되어 있다. 어림잡아 약 500만 명의 무슬림들이 민감한 도시 구역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들에는 프랑스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인구의 20%가 무슬림인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몇 군데의 이민자 거주 지역이 경찰관들에게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슬림 청년들이 빈번하게 경찰관들을 돌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브뤼셀의 큐레겐(Kuregem) 지구는 자주 시가전과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은 두 대의 순찰차로 그 지역을 순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 순찰차가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순찰차는 그차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비타우트(Bernhard Witthaut) 경찰 국장이 8월 1일에 ‘데어 베스텐’지(Der Westen)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독일 전역의 도시들에서 경계할 만한 속도로 ‘출입 금지’ 구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법원이 정부에게 명령하여 네덜란드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40군데의 ‘출입 금지’ 구역 리스트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몇 개의 이민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슬림 인

구가 25%를 넘는 남부 도시인 말모(Malmo)의 큰 구획들이 비무슬림들에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말모의 로젠가드(Rosengard) 지구에는 소방관들과 응급 요원들이 경찰의 호위 없이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스웨덴의 고텐부르크(Gothenburg) 시에서는, 무슬림 청년들이 경찰차에 화염병을 던져왔다. 고텐부르크시의 앵거드(Angered) 지구에서는 15대 이상의 경찰차가 파괴되었다.

고텐부르크의 박카(Backa) 지구에서는, 청년들이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오고 있다. 또한 고텐부르크 경찰은 도시의 몇 지역에서 차량을 불태우고 응급 서비스 차량들을 공격하는 무슬림 10대 청소년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European ‘No-Go’ Zones for Non-Muslims Proliferating,” Gatestone Institute, 2011년 8월 22일).

2015년에, 한 유대인 저널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반유대적 증오의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다음은 ‘파리에서의 10시간 동안의 공포와 혐오’(NRG.co.il, 2015년 2월 17일)에서 발췌한 것이다.

2015년의 프랑스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파리는 군인들이 유대인 기관이 들어서 있는 모든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고, 베두인 아랍인들의 두건인 카피예(keffiyeh)를 쓴 남자와 베일을 쓴 여자들이 모든 거리의 모퉁이에서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술과 자유의 도시 파리에서 유대인들은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진작가인 벨하센(Dov Belhassen)과 함께 그의 배낭에 숨긴 고프로(GoPro)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날을 기록하면서 10시간 동안 파리의 거리들과 교외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잡지사의 저널리스트들을 살해한 것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인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파리의 긴장 상황 때문에 나에게 경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관광 명소로 알려진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으로부터 멀리 걸어갈수록 증오에 찬 눈초리들과 호전적인 언사들 그리고 적대적인 몸짓 때문에 나는 더욱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서안 지구의 라말라(Ramallah) 시내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베일이나 히잡을 쓰고 있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슬림 같아 보였으며, 모든 곳에서 대부분 아랍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결정하기를, 내가 이 지역들을 조용히,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결눈질조차 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리고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 거주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한 어린 남자아이와 히잡을 둘러쓴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저 사람은 여기서 무얼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될 걸 모르나?’하고 물었습니다. ... 근처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근처의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잠시 후에 두 명의 괴한들이 거리 모퉁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욕을 했고 ‘유대인’이라고 소리쳤으며 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 자기들의 구역에서 유대인 하나가 걸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했기에, 다음 거리 모퉁이에서는 두 청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우리는 그 충고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경호원은 우리가 차를 탈 때 나에게 ‘몇 분만 지체했으면 린치가 가해졌을 겁니다. 이 지역을 당장 떠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배도한 러시아 정교회가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다수의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 포함)에는 8,0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배도한 성공회 교회가 있는 영국을 생각해 보라. 1953년에 영국 성공회의 최고위 직무 수행자인 캔터베리 대주교는 “계시된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William Temple, <Nature and God>). 1961년에, 램지(Michael Ramsey) 대주교는 “천국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London Daily Mail, 1961년 10월 2일). 1982년에 런시(Robert Runcie) 대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 자신은 불가지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Sunday Times Weekly Review, London, 1982년 4월 11일). 1984년에는, 듀럼(Durham)의 켄킨스(David Jenkins) 성공회 주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뼈를 이용한 마술과 같은 속임수’라고 묘사했다(St. Louis Post Dispatch, 1984년 10월 28일). 같은 해에, 연합통신은 자기들이 설문 조사한 영국 성공회의 31명의 주교들 가운데 20명만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994년 7월 31일에 <Sunday Times>지는 최소한 100명의 성공회 사제들이 무신론자라고 보도했다.

영국이 무슬림들에 의해 장악당하게 된 것이 놀랄 일일까?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무슬림 인구는 15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이것은 영국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한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1언어로 말하는 성인이 없는 가정에서 산다. 런던에서는 지금 ‘흰 피부의 영국인’이 소수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 무슬림 중 높은 비율이 소위 ‘온건한’ 무슬림이 아니다.

2013년에 구프만스(Rudd Koopmans)는 자신이 유럽 전역에 걸쳐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9,000명의 유럽 거주 무슬림들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했는데, 유럽 거주 무슬림들의 다수가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IS)가 지지하고 있는 관념들 중의 많은 부분 즉 이슬람교 근본주의로 회귀하는 것, 종교법(꾸란)이 모든 세속적인 법들 위에 우선한다는 확신, 유대인과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증오, 서구를 이슬람의 적으로 보는 관점 등을 믿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학살 사건의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BBC가 1,000명의 영국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24%가 '그 대언자 즉 무함마드의 모습을 출판하는 자들에 대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파하는 무슬림 성직자들은 주류 무슬림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45%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거의 절반의 영국 무슬림들이 서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성직자들을 거부감 없이 편안한 가운데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영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슬픈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관점들이 유럽 거주 무슬림들 중에서도 '작은 소수 집단'의 관점이라고 간과할 수 없다. 서구 유럽 전역에 걸친 쿠프만스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한 무슬림들 중 3분의 2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보다 종교법이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꾸란의 적법한 해석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쿠프만스가 2008년에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벨기에 거주 무슬림의 56%, 그리고 오스트리아 거주 무슬림의 64%가 유대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이것은 무슬림의 유대인에 대한 태도가 오직 악화되어 왔을 뿐임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실제로, 과거 수년 동안 브뤼셀, 파리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계획된

유대인 살해 사건들을 볼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무슬림의 증오는 현재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분명히 우리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추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추세들 중의 하나인데 수백, 수천 명의 과격한 근본주의 무슬림들과 관련이 있는 이런 추세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Radicalization of Europe’s Muslims Hits a Crisis Point,” Breitbart.com, 2015년 3월 23일).

이런 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슬람교가 소위 ‘기독교’ 국가라 불리는 국가들 속으로 이같이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한다.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Judgment on
Apostate Israel*



비록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2,000년이 흐른 시점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수립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대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두 단계로 귀환할 것을 예견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

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갓이 그것들 위를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나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겔37:1-14).

이 대언에서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묘사되어 있다. 11절 말씀 즉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나라.”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다.

이 마른 뼈들이 과거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이스라엘은 땅끝까지 흩어졌고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같이 보였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두 단계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다.

첫째,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다시 인도되어 오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것이다. 8절 말씀은 죽은 뼈들이 먼저 일으켜질 때 “그것들 안에 숨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10절 말씀은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예언의 첫째 단계를 목격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자정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수립이 공포되었다. 그 공식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이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의 수립을 공표하며, 이 국가는 '메디나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국가'(Medinath Yisrael; The State of Israel)로 불릴 것이다. ...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민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 우리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민과 개발이라는 과업의 달성을 위해 우리와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온 모든 세대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위대한 싸움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안식일 예비일인 오늘 (유대력) 5708년 이아르월 5일, (서기) 1948년 5월 14일, 임시 국회의 이 회기에 고국의 땅 텔아비브 시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이 선언문 위에 얹는다.

이 선언이 있는 지 11분 후에, 침례교 성도로서 성경의 예언을 믿는 미국의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선포했다. 트루먼의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트루먼은 미국 국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 통치를 지지했다. 국무부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앞에 두고 무슬림 국가들로부터의 자유로운 석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몇 명 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슬림 국가들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트루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포레스탈(James Forrestal)은 아랍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바다로 밀어넣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David McCullough, Truman, p.602).

트루먼은 이런 압력을 자신의 성경적 확신으로 이겨냈다. 우리는 트루먼이 그의 장년기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14살이 되기 전에 성경을 세 번 통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루먼의 특별 법률 고문이던 클리포드(Clark Clifford)는, 트루먼 대통령이 그의 청년기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성경 신자’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적법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때때로 신명기 1장 8절 말씀 즉 ‘보라, **주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라, 하셨느니라.’를 인용했다고 말했다(“President Truman’s Decision to Recognize Israel,” Jerusalem Center for Public Affairs, 2008년 5월 1일).

‘타임’지는 미국 국민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 것을 크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인기 있는 라디오 해설가였던 토마스(Lowell Thomas)는 자신의 저녁 방송에서 ‘전국의 미국인들은 역사에 있어서 이날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Truman, p.619).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날을 축하했다. 그들은 도처의 유대교 회당에서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성취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웃한 무슬림 국가들과 세계의 여론의 끊임없는 적대심에 맞서서 국가의 지위를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대언했던 바와 같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표적들은 모두 너무나도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대언의 표적들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

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근대의 많은 영웅들 즉 헤즐(Theodor Herzl), 벤 구리온(David ben Gurion), 메이어(Gold Meir) 그리고 다얀(Moshe Dayan) 등은 모두 불가지론자들이었다.

또한 랍비들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이 분명하다. 비록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신명기 28장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신28:15)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하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신28:37).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수적으로 적게 남으리라(신28:62).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흠으시리니 네가 거기

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거기에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신28:64-65)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에서도 끊임없는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중동의 대부분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도와 아프리카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공격받고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 유대인들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오래된 예언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고난의 배후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이슬람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슬람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이슬람교 혹은 그것의 부흥과 확산은 분명히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발꿈치 밑에, 그리고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스라엘]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21:24).

이슬람교의 근본 취약점

Islam's Fundamental Weakness



이슬람교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슬람교 내부의 증오와 분쟁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 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이슬람교는 만들어진 때부터 분쟁하는 집이었고 그런 분쟁은 셀 수 없이 많다. 무슬림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격화된 중동판 ‘햇필드가(The Hatfields)와 맥코이가(The McCoys)의 분쟁’을 연상하게 한다.¹⁾

무슬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증오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초의 여러 칼리프²⁾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이 그들

1) ‘햇필드가와 맥코이가의 분쟁’은 1863-1891년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두 가문의 분쟁을 말한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분쟁은 서로 경쟁하는 당사자들 간의 격렬한 싸움을 표현할 때 쓰이는 관용구이다.

2) 칼리프(Caliph)는 아랍어로 칼리파(Khalifah)이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의 사도의 대리인’이다. 칼리프는 대인자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고, 종교를 수호하며, 동시에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킨다(네이버 지식백과), 칼리프 [caliph] 두산백과).

의 동료 무슬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부족 대 부족 간의 분쟁이 존재하며 그 예로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무슬림 타지크 부족, 무슬림 푸시탄 부족, 무슬림 하자라 부족, 그리고 무슬림 우즈베크 부족 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아랍 사람들 간의 분쟁, 아랍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간의 분쟁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 간의 분쟁과 같이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분쟁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다.

인종 집단 간의 분쟁도 있는데, 페르시아와 아시리아의 계보에 따른 오래된 분쟁과 다른 무슬림 집단들의 쿠르드 부족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쿠르드 부족은 터키, 아르메니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서 그들의 동료 무슬림들에 의해 수백만이 죽임을 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대부분의 쿠르드 부족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특히 19세기 이후로는 이슬람 국가들 간의 뚜렷한 분쟁들이 존재하는데, 같은 아랍 사람들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국가들로 분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스마엘의 성격에 대한 대언

사실 아랍 국가들의 폭력적인 성격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옛 예언에 잘 묘사되어 있다.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며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들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창16:10-12).

이 놀라운 대언의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후손들에 의해 성취되었고, 영적으로는 그의 영적 후손들인 무슬림들에 의해 성취되었다.

첫째, 그는 야생 나귀와 같이 거칠고 사나우며 대담하고 폭력적이며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증오에 차 있으며 전쟁에서는 항상 약탈을 할 것이다.

셋째,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동일한 지역에 남아 있게 될 것임을 뜻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랍 사람들의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정신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형제인 이삭의 아들들 앞에 계속 거하면서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은 적들과 대치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적들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처럼 그들은 결코 길들거나 파괴된 적이 없었다.

넷째, 그의 자손은 큰 무리가 될 것이다.

역사는 이 예언이 진실임을 입증했다. 아랍 사람들은 천사가 그들에 대해 말한 대로 독립적이고 사납고 끊어진 적이 없는 생존자들이다. 그들은 또한 그 수가 늘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수억 명의 아랍 사람들을 포함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22개의 아랍 국가들이 있으며, 이슬람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57개 국가에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무슬림/아랍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현대 '지혜자들'의 외침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이슬람교는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의 평화를 쟁취한 것 외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형태의 평화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아랍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아랍이 아랍을 상대로, 무슬림이 무슬림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늘 있는 일이며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슬림/아랍 사람들은 그들의 동생인 야곱(즉, 이스라엘)에 대해 맹렬하고도 완고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육신적인 후손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둘째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박탈한 사건 즉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영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이스마엘과 함께 권리를 박탈당한 그의 어머니 하갈이 품었던 최초의 불만을 복돋운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미움'이라 부르고(겔35:5),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미움과 야곱을 향한 예수의 미움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축복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겔35:2-15)(Bill Randles, <A Sword on the Land: The Muslim World in Biblical Prophecy>).

수니파 대 시아파

비록 더 작은 당파들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교 내에서 가장 큰 분쟁은 수니파(Sunnis)와 시아파(Shias) 간의 분쟁이다. 수니파-시아파 분쟁은 모든 무슬림들의 칼리프였던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둘러싼 싸움이 그 원인이며 이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초기에 있었던 무슬림들 간의 내전은 무함마드의 일부다처 결혼과 그의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

시아파는 자기들의 혈통을 무함마드의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i Ibn Abi Talib)로 추적해 올라가는데, 그는 무함마드의 아내인 카디자가 낳은 딸 즉 무함마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딸 파티마(Fatimah)와 결혼했다. 참고로 ‘시아’라는 명칭은 알리의 당파라는 의미인 ‘시앗-우-알리’(Shiat-u-Ali)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수니파는 자기들의 혈통을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아이샤의 아버지 아부 바크르(Abu Bakr ibn Qhuhafah)로 추적해 올라간다.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에 바크르는 최초의 칼리프가 되었다. 그는 2년 후에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마르(오마르) 이븐 알-카타브(Umar/Omar ibn al-Khattab)는 무함마드의 또 다른 장인이며 그는 이슬람교의 제2대 칼리프가 되었다. 그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644년 암살당했다.

우스만 이븐 아판(Uthman ibn Affan)은, 무함마드의 사위들 중 한 사람이며 그는 제3대 칼리프가 되었다(참고로 우스만은 무함마드의 딸 두 명과 각각 다른 시기에 결혼함). 그는 656년에 무슬림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다음으로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i Ibn Abi Talib)가 칼리프 제국의 다음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세 번째 아내인 아이샤의 반대를 받았다.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알리는 그녀가 무함마드에게 성실하지 않았다고 믿어 무함마드가 그녀와 이혼할 것을 충고했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해 아이샤는 알리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³⁾

656년에, 45세였던 아이샤는 이라크의 바스라에서 벌어진 낙타 전투(The Battle of Camel)에서 알리의 연합군에 맞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며 싸웠지만 그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때에 약 1만-1만 8,000명의 무슬림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여 메디나로 물러가서 678년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것을 낙타 전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이샤가 금화 200개

3) 역대 칼리프의 목록은 영어 위키백과, 'List of Caliphs' 항목을 참조 바람.

값인 알-아스카르(al-Askar)라는 이름의 진귀하고 거대한 낙타를 타고 있었고 그 낙타가 죽임을 당했을 때 전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최초로 나뉘게 되었다. 시아파는 바크르, 우마르와 우트만의 칼리프 제국들을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수니파는 그들을 대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The Companions of the Prophet)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숭배한다. 시아파는 아이샤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수니파는 그녀를 숭배한다.

시아파는 그들의 이맘(종교 지도자 혹은 선생)들을 기념하여 거대한 기념비를 세워 숭배하는데 수니파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왔다.

661년에, 알리가 무슬림들에 의해 암살되자 칼리프 제국은 무함마드의 친인척이 아닌 사람으로 최초의 칼리프가 된 무아위야 이븐 아부 수피얀(Muawiyah ibn Abu Sufyan)의 손에 넘어갔다.

무아위야는 680년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 야지드(Yazid)를 칼리프로 지명했다. 그러자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 이븐 알리(Husayn ibn Ali)는 칼리프 제국을 정통성이 있는 상속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 칼리프 승계에 도전했지만 카르발라 전투에서 자기의 동료 무슬림들에 의해 목이 잘리며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시아파와 수니파를 영구적으로 분쟁하게 만든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시아파는 후세인을 순교자로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아슈라’(Ashurah)라고 하는 연중 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아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통이 상호 연관이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이 둘은 곧 무함마드 이후의 칼리프 승계에 있어서 신성의 문제와 이슬람교의 수행에 있어서 성직자의 역할의 문제이다. 수니파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신과 동일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믿는 반면, 시아파는 알리와 알리를 따랐던 11명의 시아파 지도자들 즉 12명의 이맘들

만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들의 판단만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열두 번째 이맘은 죽지 않았고 단지 '은둔' 속에 지내 왔으며, '마흐디' 즉 신의 인도를 받은 자 - 이슬람의 메시아 - 가 완전한 이슬람 사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란의 많은 시아파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아파는 12명의 이맘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들을 '열두 명을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트웰버'(Twelver)라고 지칭하고 있다(시아파 전통을 따르는 소수 분파들은 다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이맘까지의 계보만을 인정함). 이맘들은 성인들로 대우받으며, 그들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다. 열두 번째 이맘의 귀환을 믿는 메시아 신앙으로 인해 이슬람교 성직자들의 계층적 조직이 ... 발전하여 그의 귀환 때까지 이슬람교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높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수니파의 전통과 명백하게 대치되는데, 수니파 전통에 따르면 '성직자들'(이맘)은 그들의 학식과 율법에 대한 전문성만을 인정받아 단순히 기도 인도자와 율법의 통역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서, 수니파는 시아파의 신앙생활에서 이맘들이 수행하는 '성인과 같은' 역할에 엄중하게 반대한다. 수니파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일은 사람들을 신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금지되기 때문이다("Redlines and Deadlines," PBS.org, 2004년 9월 23일).

수니파와 시아파 사람들은 모두 꾸란을 신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들의 기도 의식으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즉 기도할 때에 수니파 사람들은 손을 배에 놓지만 시아파 사람들은 손을 옆구리에 놓는다.

수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전통적인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수니'라는 명

칭은 ‘전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알 알-수나’(Ahl al-Sunna)에서 유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장 엄격한 형식의 이슬람교의 법 즉 샤리아법을 수행한다.

시아파 사람들과 수니파 사람들은 1,300년이 넘는 기간에 서로를 반대하고 극심하게 대립하며 살육을 거듭해 왔다.

무함마드가 살해된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십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동료 무슬림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무함마드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과 가장 충실했던 신봉자들은 (무함마드는 그들 중 일부를 완전한 무슬림이라고 칭찬했으며 그들에게 순교하지 않고 낙원에 갈 것을 약속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서로 싸웠다(Dave Hunt, <Judgment Day>, p.154).

(수니파와 시아파) 두 공동체가 모두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두 종파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와 폭력으로 특징지어진다. (“Sunni and Shiite Terrorist Networks,” Jerusalem Center for Public Affairs, 2002년 12월 18일).

13세기에 살라피즘(Salafism)⁴⁾의 주창자였던 이븐 타이미야(Ibn Tamyyah)는 시아파 사람들을 파문하고 배도자들인 그들을 말살할 것을 촉구했다.

살라피즘의 대부인 타이미야는 “시아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과 싸우라. 그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타이미야의 법에 따라] 무

4) 서구 문화를 배척하고 세속에 물들고 변질된 이슬람 교리를 샤리아가 지배하던 7세기 이전 이슬람 순수주의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또는 그 세력 집단의 믿음.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보통 살라피스트(Salafist)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동료와 그들의 직계 제자들을 부르던 살라프(Salaf)에서 유래 되었다. 남자들은 턱수염을 기르며, 여자들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니카브를 착용한다. 원리주의 성향에 순수 무슬림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불사한다는 점에서 알카에다와 유사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살라피스트 [Salafis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슬림은 타우히드(tawhid) 즉 유일신주의의 세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신에게 경배할 것, 오직 신에게 경배할 것,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질 것이다. 중세에 타이미야는 이맘 숭배를 포함한 시아파와 수피파⁵⁾의 수행과 믿음들이 오직 신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시아파와 수피파를 파문하기 위하여 타우히드의 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했다(Michael Weiss and Hassan Hassan, <ISIS: Inside the Army of Terror>).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연방(UAE),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디아, 중국, 튀니지, 팔레스타인의 가자, 터키, 그리고 레바논 등의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오늘날 무슬림 인구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시아파는



중동 지역 반정부 시위 국가 및 시아파·수니파 인구 비율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아제르바이잔과 예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수니파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시아파가 있다. 인도에도 비록 시아파가 전반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시아파 인구가 있다.

비록 시아파가 전체 무슬림 인구의 10-15%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수는 1

5) 본래의 수피주의(Sufism)는 8세기 이후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된 후 시아파 속에 나타난 것이다. 수피파(Sufis)는 철저한 금욕주의 입장에서 자기수행과 고행을 요구한다. 수니파는 수피파를 비아랍적, 비정통적이라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수피즘, 두산백과).

억 6천만-1억 9천만 명에 달한다.

수니파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샤리아법을 지지하며 근대 테러 단체 중 가장 악명 높은 단체들을 태동시켰는데 여기에는 알카에다, 탈레반, 이슬람 국가(ISIS 또는 ISIL), 무슬림 형제단, 살라피스트,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가자의 하마스, 필리핀의 모로 민족해방전선과 아부 사이야프, 인도네시아의 제마이슬라미야⁶⁾, 라스카르 지하드, 태국의 BRN-코디네이트, 소말리아의 알샤바브⁷⁾, 말레이시아의 캄풀란 무하이딘, 그리고 체첸의 테러리스트들이 포함된다.

2001년에, 수니파는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살인 중 70%를 저질렀다 (“Report on Terrorism,”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12년 3월 12일).

이것은 결코 시아파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시아파이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핵폭탄을 보유하기 일보 직전에 있으며, 시아파 칼리프 제국 수립을 염원하고 있다.

수니파-시아파 간의 내부 투쟁은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많은 측면들을 설명해 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지하드 무슬림들의 총구는 대부분 동료 무슬림들에게 맞춰져 있다.

무슬림들이 동료들의 손에 의해 배신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보듯이,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다른 무슬림들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Hunt, <Judgment Day>, p.156).

이것이 현시대 이란과 이라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은, 중동 지역을 가로질러 시아파 칼리프 제국을

6) 이 단체는 2002년 10월 12일 발리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202명의 사망자와 209명의 부상자를 냈다.

7) 이 단체는 2015년 4월 2일, 케냐 북동부 가리사의 한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15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희생자는 주로 기독교인 학생들이었다.

수립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토가 넓고 석유가 풍부한 이란에 시아파의 신정 정치를 창출해 냈고 지금도 여전히 이란은 이것을 표방하고 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있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에는 다른 요인들 - 예를 들면, 고대 페르시아와 아랍 간의 적대심과 오랫동안 존재한 영토 및 영해권을 둘러싼 분쟁들 - 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니파-시아파의 대립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소수의 수니파로서 다수인 시아파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이란에서 시아파가 종교 혁명을 일으키자 그는 곧 이란을 공격했다. 후세인은 자기 나라 이라크의 시아파 국민들이 그 종교 혁명에 가담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수궁이 가고도 남는다.

이란은 오랫동안 후세인의 바트당(Baath)을 반대하는 조직들을 지원해 왔고 이란의 새 지도자인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는 이라크와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도 혁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시아파의 테러 조직은 1980년 한 해에만 20명의 이라크 정부 관리들을 살해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Sunni-Shia Tension in the Iran-Iraq War," E-International Relations Students, 2012년 4월 21일).

시아파와 쿠르드 부족이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자 후세인은 그들 중 수만 명을 학살했다.

2006년 이후로 이라크의 수상인 누리 알-말리키(Nouri Al-Maliki)는 소수인 수니파를 통치하고 있는 시아파 인물이다. 미국이 2011년에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말리키는 수니파 인물들을 정부의 고위직에서 제거했고 시아파 민병대가 수니파 인물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것을 묵과해 주기 시작했다.

이라크는 인구의 다수가 시아파이고 현재는 누리 알-말리키 수상이 이끄는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 있다. 거기에는 궁지에 몰린 소수의 수니파가 있는데, 수니파는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2003년에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이 몰려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라크를 지배해 왔다.

시아파 출신인 수상은 전통적으로 정치의 대가들이던 수니파와 권력을 공유하기 위한 공식을 도출해 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Joe Mintz, "How the Sunni-Shiite Conflict Frames the Current Crisis in Iraq,"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년 6월 17일).

[전 부수상인 라피 알-이사위(Rafi al-Issawi)는] 부글거리다가 마침내 끓어 넘치게 된 수니파의 불만들을 열거했다. 말리키는 재판도 하지 않고 수천 명의 수니파 사람들을 감금했고, 테러리즘의 죄목으로 수니파 지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을 정치 일선에서 밀어냈으며, 이라크에서 알카에다에 맞서 용감히 싸웠던 수니파 조직인 '각성(the Awakening)'의 대원들에 대한 보상과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어겼는데, 그 결과 그 조직의 지도자들은 죽거나 도망을 쳤거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살라 알-딘(Salah al-Din), 디알라(Diyala) 그리고 모술(Mosul)의 주의회들이 -- 헌법에 따라 -- 새롭게 지방 정부를 구성할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은 무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수니파가 차별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벌였던 1년간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12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이라크의 보안 부대에 의해 살해되는 폭력이 가해졌다. 말리키는 자기 뜻대로 사법부를 완전히 전복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니파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정의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었다("How Obama Abandoned Iraq," Business Insider, 2015년 4월 17일).

이라크 영토의 넓은 지역을 정복한 이슬람 국가(ISIL)는 수니파 무슬림의 칼리프 제국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시아파 무슬림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이슬람 국가(ISIL)는, 시아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분개하며,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되찾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라크 내의 수니파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있다("ISIL terrorists raises flag at Turkish border," AhlulBayt News Agency, 2014년 7월 1일).

말리키가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면서 바그다드는 이란에게 우호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시아파의 종파적 가치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수니파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다시 한 번 깨뜨렸고 이로 인해 그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2014년 여름 바로 옆의 시리아로부터 북부 이라크에 걸쳐서 미친 듯이 날뛰었던 이슬람 국가(IS)의 수립과 회복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수니파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A former top adviser destroyed Obama’s Iraq policy in one sentence,” Business Insider, 2015년 4월 14일).

이슬람 국가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의 창설자인 알-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는 살라피즘의 주창자인 타이미야(Ibn Taymiyyah)의 후예로 칭송받고 있다. 알-자르카위는 시아파를 가리켜 ‘잠복하고 있는 뱀, 교활하고 악한 전갈, 염탐하는 적, 그리고 침투하는 독’이라고 불렀다(Michael Weiss and Hassan Hassan, <ISIS: Inside the Army of Terror>, p.28). 특별히 ‘참수’를 좋아하는 알-자르카위의 잔인함은 그를 우러러보는 동료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도살자들의 대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었다.

이슬람 국가는 사실상 이라크 수니파의 반시아파 테러리즘을 가리키는 가장 최근의 명칭일 뿐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가지고 나타났던 이슬람 국가와 거의 십 년 동안 싸워 오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라크의 알카에다(AQI)로, 그다음에는 무자히딘 자문회의(Mujahidin Advisory Council)로, 그다음에는 이라크의 이슬람 국가(ISI)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 만약 친숙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ISIS이다(Michael Weiss and Hassan Hassan, <ISIS: Inside the Army of Terror>).

이란은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들을 원조함으로써 이슬람 국가와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은 시아파 칼리프 제국을 수립하기 위해 이라크를 정복한다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니파 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적 우세에 맞서기 위해, 이란의 시아파는 자기들의 영향력 범위를 확장하여 '힘의 아크'(The arc of power) 즉 시아파의 초승달 지역을 만들었다. 이란의 힘이 미치는 영역은 현재 이라크를 가로질러 시리아까지 뻗어 있으며, 이란은 현재 이라크에서 ISIS를 격퇴하기 위한 싸움에 연합하고 있으며 시리아에서는 4년의 시리아 내전 동안 알-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했다.

또한 레바논에도 이란의 힘이 미치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Hezbollah)가 이란의 세력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으며, 이 단체는 정치권의 주류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예멘에도 이란의 세력이 퍼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자이디(Zaidi) 시아 분파인 후티(Houthi) 반군들이 최근에 정권을 장악했다. ... 시리아는 이전에는 이란의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란의 대리인이나 다름이 없다. 헤즈볼라도 이와 비슷하게 테헤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세력에서 이란의 대리인으로 변모되었다("Iran is creating an 'arc of power,' Business Insider, 2015년 3월 18일).

이라크에서 이슬람 국가(IS)는 시아파 사람들(그리고 수니파 사람들도)을 죽이고 있고 반면에 시아파 민병들은 수니파 사람들(그리고 시아파 사람들도)을 죽이고 있다.

민간 인권 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HRW)에 의하면, 이라크 보안군과 자원병들이 이슬람 국가로부터 아메를리 마을을 해방한 뒤, 민간인들인 수니파 무슬림들의 집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민병대들이 최소한 두 개의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한다. ... '이라크가 ISIS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ISIS와 싸우고 있는 군대들이 저지르는 학대 행위들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지독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라크에 위협

이 될 것이다.’라고 인권감시(HRW)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인 스톨크 부국장은 ‘인디펜던트’지에 말했다(‘ISIS blows up 10 Christian Families’ Homes,’ The Christian Post, 2015년 3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니파가 사우디 왕가의 형태로 권력을 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대부분의 시아파 성지들은 파괴되었다. 국가와 유착 관계에 있는 현지 수니파 근본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과격분자이며 보통 ‘와하비즘’(Wahhabism) 신봉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일부 시아파 지도자들을 투옥하면서 시아파의 관습들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How the Sunni-Shiite Conflict Frames the Current Crisis in Iraq,”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년 6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가니스탄과 그 밖의 나라에 이슬람교 사원과 학교를 건설해주고 그 나라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와하비즘’⁸⁾을 수출해 왔다. 사우디 왕족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지만,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공격했던 납치범들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

이 시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 있는 시아파 후티 반군들을 폭격하고 있다(“US Worried about Iran’s elite Revolutionary Guard training Houthi rebels,” Business Insider, 2015년 3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니파 탈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수니파, 그리고 수니파인 알카에다로부터 가장 큰 지원을 받았다. 탈레반은 자주

8) 이 운동을 창시한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출신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하브’(1703-1792)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건국이념의 기초가 되었고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것은 꾸란의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고 청렴한 생활을 중시하며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장례나 이슬람 예배의식에 배어 있는 미신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 집과 의식도 간소화하고 체스 같은 게임도 금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도 와하비즘을 신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와하비즘 [Wahhabism]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시아파의 예배 장소들을 공격해 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수니파 조직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크리스천뿐 아니라 시아파 무슬림들을 공격 목표로 삼아 왔다("Suicide bomber kills 20 Shia Muslims in Nigeria," The Telegraph, 2014년 11월 3일).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코하람은 2014년에 만 명을 살해했다. 그들은 '대대적 종교 정화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수백 개의 교회를 파괴했다("A New Arc of Evil: The Boko Haram, ISIS Merger," Breitbart.com, 2015년 3월 27일). 그들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쫓아냈고 인접한 차드, 카메룬, 니제르로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수니파 반군이 알-아사드가 이끄는 시아파 다수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 알-아사드는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다양한 수니파 지하드 조직들은 시아파뿐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다.

이집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니파이며 10%를 차지하는 소수 시아파는 여러 정부 아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다. 이집트는 909년부터 1171년까지 시아파 칼리프 제국(the Fatimid)이 통치했지만 수니파의 압바시드(Abbasid) 칼리프 제국에 의해 전복되었다.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스트(the Salafist) 분파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며 그것을 파괴하기를 바라고 있다. 살라피스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집권했던 모르시(Mohamed Morsi)의 지원을 받았고 무슬림 형제단을 대표했다.

2013년 6월에 모르시가 참석한 카이로의 한 집회에서, 살라피파의 성직자들은 시아파 사람들을 '더럽다'고 했으며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불신자들'이라고 불렀다("Egypt's Shiite Muslims Saw the Sunni Hatred Grow under Morsi," Los Angeles Times, 2013년 8월 10일). 모르시는 반복해서 "시아파는 유대인들보다 더 이슬람교에 위협하다."라고 말했다("Egypt's Shiite Minority: Between the Egyptian Hammer and the Iranian Anvil," Jerusalem Center for Public Affairs, No.

591, 2013년 9-10월).

우리는 예멘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싸움을 볼 수 있다. 2015년 초에 시아파인 후티 부족이 정권을 잡았다. 후티 부족은 이집트뿐 아니라 시아파인 이란의 혁명 수비대로부터 군사 훈련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멘에서 아라비아반도의 알카에다 또는 AQAP라고 불리는 수니파 단체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광분한 무슬림들 간의 전면적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3월에 수니파인 이슬람 국가(IS)는 예멘의 수도 산나에 있는 두 곳의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자살 폭탄 테러를 자기들이 계획해서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 학살을, ‘시아파 소굴들’에 대한 ‘신의 축복을 받은 작전’이라고 묘사했다(“ISIS Claims Responsibility,” Breitbart.com, 2015년 3월 20일).

수니파와 시아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탄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 왔듯이, 무슬림의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시아파 대 수니파의 분쟁에만 국한한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시아파도 시아파를 죽이고 수니파도 수니파를 일상적으로 죽이고 있다!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약점인 고질적인 분쟁과 내부의 증오야말로 ‘근본주의적인’ 칼리프 제국을 수립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해 온 이유이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로 인해 실패하였고 앞으로 이슬람 국가(IS) 역시 이것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예비하기

*Preparing
for the Antichrist*



이슬람교는 마지막 때의 표적이다. 이슬람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방법으로 적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길을 닦아 주고 있다.

반(反)유대주의의 주(主)배후 세력 이슬람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유럽의 이슬람화이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역사상 최고로 증오하는 인물일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슬람화는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일이다.

유럽은 과격한 이슬람교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후 70년이 흐른 뒤에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면서도, 反이스라엘적이고 親무슬림적인 정책을 채택해 왔다. 유럽연합 의회는 한 가지 상징적인 결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 법학 교수인 샤인(Halm Schein)은, 유대인들을 친숙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위선이 유럽에서 다시 번창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당시의 나쁜 경제 상황이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퍼졌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대치 상황이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슬람교를 유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유럽의 도시들에서 무슬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반유대주의도 증가하고 있다. 마르세유는 인구의 40%가 무슬림이고, 바르셀로나는 30%, 브뤼셀은 30%,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25%가 무슬림이다.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은 이슬람교가 카톨릭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Resurgent Anti-Semitism in Europe,” Israel Today, 2015년 2월).

월요일에 프랑스 사람인 한 유대인이 나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냈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프랑스 사람인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그들은 한 명씩 학살당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들 앞에 오만 명의 경찰들이 서 있다 해도, 프랑스에는 6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만약 그들 중 (낮게 잡아서) 10%가 극단주의자가 된다면 파리는 피바다가 될 것이며 그 피는 곧 유대인들의 피일 것이다.”

그는 일요일에 파리에서 있었던 (바락 오바마를 제외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TV에서 본 대로, 300만 명이 샤를리 에브드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행진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어도 좋다. 그런데 거기서 그 누구도 2015년 1월에 파리의 하이퍼 카셔(the Hyper Cacher) 슈퍼마켓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며 행진하지 않았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 사람인 유대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비록 독일이 시작했지만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자행되었다. 나치는 네덜란드에도, 폴란드에도, 프랑스 등등에도 있었다. 유럽은 하나의 대륙으로서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일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의 연구원들은 나치의 42,500개의 유대인 거주 구역과 수용소를 목록화했다. 그 수는 죽음의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 전쟁 포로 수용소, 매음굴과 나치가 임신부를 강제로 낙태시킨 '간호'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 홀로코스트는 단지 독일 사람들만 자행한 것이 아니었다(Pamela Geller, "The Death of the Jews of France," Breitbart.com, 2015년 1월 12일).

강력한 세계 지도자에 대한 열망

광란하여 날뛰는 무슬림들에 의해 야기되는 혼란, 이슬람 지하드에 의해 제기되는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작금의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세계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열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그는 최고의 문제 해결자로서,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평화의 사도로서 올 것이다.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단8:25).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동기 부여하기

이슬람교의 테러리즘과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초를 놓아 준다.

이제 곧 우리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규모의 유대인 이민을 보게 될지 모른다. 이슬람교의 테러리즘은 유대인들을 한 데로 끌어모아 그들을 자신들의 본향인 시온으로 데리고 올 하나님의 거대한 주격일 수 있다(Victor Mordecai, "Ben Gurion's Prophetic Letters," Israel Today, 2015년 2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가 일어나고 특히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다.

2015년 1월 프랑스 파리의 에브도 테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월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중심가에서 또 한번의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CBS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총격이 이슬람 폭자 만평가를 타깃으로 한 후 인근 유대교 회당의 랜덤 타깃 테러로 이어져 지난달 프랑스 테러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유럽 내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유럽 유대인 의회의 모세 칸토르 대표는 유럽 정부가 테러 조직에 맞서 자국의 유대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스라엘의 아비도르 리베르만 외무부 장관 또한 덴마크와 프랑스 테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테러의 희생자로 낙점되고 있다는 증거로 국제 사회는 이슬람 테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가 유럽에 또 한 번 발생했다고 말하며 덴마크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다. 또 유럽 내 유대인들을 목표로 하는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하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고향'이라고 말하며 유럽 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설득했다.

실제로 2014년 프랑스에서는 7,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정든 프랑스를 떠났다. 이는 2013년도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2012년 테러리스트 모하메드 메라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을 포함해 7명을 살해한 계기로 급증했다.

유럽 내 반유대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가자 지구에서 발생했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특히 유대인 겨냥 테러 공격의 증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예로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총 17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으며, 15일에는 프랑스 동부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묘지의 묘 수백기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1억 8,000만 뉴세켈(약 507억 원) 상당의 알리야(이스라엘 귀환 운동)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대규모의 이민 통합 목표를 필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 귀환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교육을 포함해 이민 박람회 개최 등 앞서 언급된 국가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 알리야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전화 핫라인 운영 등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덴마크 내 유대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7일 치러질 선거에 앞서 나온 발언으로, 이 프로그램이 유럽 내 유대인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한 언론 매체는 덴마크 유대인 총격 사건과 관련, 유럽연합(EU)은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강력한 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유대주의가 단지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닌 유럽과 그들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IS 테러 주요 타깃된 유대인들', <아시아투데이>, 2015년 2월 16일).

적그리스도와 중동 문제

*Antichrist and the
Middle East Problem*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달력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전에 있을 사건은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 즉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일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3-18).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

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살전5:1-5)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서술되어 있는 사건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서 교회들은 땅 위에서 보이고 그다음에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땅 위에서 다시 보이지 않는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의 사건들은 이방 국가들과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이 사건들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 대언의 마지막 한 이레 동안 일어난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9:24-27).

이 대언은 이스라엘과 구약의 언약과 대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계가 있다. 이 점은 24절에서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급된 것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칠십 이레는 70번의 7년 즉 490년이다. 첫 육십구 이레, 즉 483년은 이미 성취되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은 재건되었다. 26절에서 메시아는 이미 왔고 끊어졌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아 있다. 이 7년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27절에 있듯이 3년 반 뒤를 의미하는 ‘그 이레의 한중간에’ 적그리스도는 그 협정을 깨버릴 것이다. 그런 뒤 적그리스도는 제3 성전을 훼손하고 가증한 것들과 황폐함이 그 7년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것이다. 이 7년이 끝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마24:15).

교회 시대는 다니엘의 대언에서 69번째 이레와 70번째 이레 사이에 있는 괄호 부분이다. 바울은 교회 시대는 구약의 예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신비라고 가르쳤다.¹⁾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www.wayoflife.org에서 인쇄본과 전자책으로 구할 수 있는 <The Future According to the Bible>을 보기 바란다.

계시록은 평화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빈 활을 들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계6:2).

그 말과 빈 활은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은 있지만 처음에는 평화의 사람으로 올 것임을 상징한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서 다섯 번이나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로 불리고 있다(단11:21, 23, 27, 32, 34). 다니엘서는 그가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말한다(단8:25).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세상이 보아 왔던 외교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외교관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것이다.

또한 거짓 대언자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11-17절에서 그는 '또 다른 짐승'으로 불리고 있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거짓 대언자'로 불리고 있다.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평화와 종교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생명을 주어 그것이 말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높여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다(마12:39).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력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대언자는 사탄의 권능으로 거짓 이적들을 행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9-12).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통치자로서, 그 대언자는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할 것이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13:15-18).

아마도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 그리고 환난기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나 그의 대언자 중 하나 혹은 그 둘 모두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슬람교의 마흐디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은 다 이슬람교의 메시아인 마흐디(Mahdi)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땅 위에 알라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람들 모두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에 수집된 그의 저작물인 하디스(Hadith)를 수용하고 있는데, 하디스에 의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에 앞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범세계적인 칼리프 제국을 수립하고 어떤

기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7년, 9년 또는 19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마흐디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마흐디의 도래는 그들이 이사(Isa)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할 것이며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 또는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마흐디와 연합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시아파는 이 신학을 더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웰버’ 시아파(그리고 수피파)는 무함마드를 계승한 12명의 이맘(Imam)들이 무함마드의 영적인 완전함과 지혜를 물려받았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슬람의 빛의 해석자 또는 신탁자라고 믿는다.

그들은 열두 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이븐 하산 알 마흐디(Muhammad ibn Hasan al-Mahdi)가 바로 그 예언된 마흐디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가 주후 941년에 죽었거나 혹은 죽지 않았다면 사라졌고 마지막 때에 신이 그를 다시 나타낼 때까지 숨겨 놓았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를 그들은 ‘은신’(Occulta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 물체가 그 물체와 관찰자 사이를 지나서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질 때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마치 일식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다른 무슬림 분파들 즉 드루즈파(Druze), 무스탈리파(Mustaali), 자이디파(Zaidi), 그리고 니자리파(Nizari)들은 다른 마흐디를 믿으며 그래서 그들은 ‘트웰버’가 아니다.

수니파는 마흐디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올 때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며 무함마드의 후예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전 이란 대통령은 이맘 마흐디의 도래를 열렬하게 믿고 있으며 이란의 라디오는 그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방송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평화와 정의와 안전 보장이 압박과 기만을

이גיע 될 것이며, 역사상 가장 완전한 하나의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 그 구원자의 출현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순간은 하늘로부터 대언자 예수(PBUH)가 강림하는 것이다. 아즈라트 마흐디(Hazarat Mahdi)는 예의를 갖추어 예수를 맞이하고 그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한다. 그러나 예수는 당신이 나보다 이 일에 대해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타즈카랏 올-올리아'(Tazkarat ol-Olia)라는 책에 보면, "마흐디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이 두 위대한 사람들이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박에 저항하여 싸우고 세상에 정의의 수립함에 있어서 이맘 마흐디가 지도자가 될 것이며 대언자 예수는 이맘 마흐디의 부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신의 마지막 사자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몸소 전달했었고 마흐디의 때에 무함마드의 이상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Police Storm Home", WorldNetDaily, June 23, 2007).

우리는 이 예언들에서 이슬람교의 '예수'가 낮은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06년 1월 14일에 런던 '텔레그래프'지에 실린 글이다.

이란이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하여 세계와 대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서방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의문은 '무엇이 이란의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그런 무모함으로 내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아흐마디네자드의 독실한 믿음의 가장 주목할 점은, 시아파 이슬람교의 메시아 같은 인물인 '숨겨진 이맘'(Hidden Imam)에 대한 헌신이고, 자신의 정부가 그 '숨겨진 이맘'의 귀환을 위해 이란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취한 최초의 조치들 중 하나는 잠카란(Jamkaran) 사원에 약 천만 파운드를 기부한 것이었는데 그곳은 독실한 무슬림들이 '숨겨진 이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성스러운 우물 속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순례지이다. ...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마흐디의 귀환을 위해 일하겠다

고 서약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잠카란 사원에 보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데 정부는 부인하지만 대부분 사실로 믿고 있다.

시시때때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마흐디라고 주장해 왔고 그들은 열성적인 추종자들을 많이 얻어 왔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무함마드 쉬라지(Siyyid Ali Muhammad Shirazi)인데 그는 바브(Bab: '문')라고 불렸으며 바하이파(Baha'i)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들은 바브가 마흐디, 엘리야,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마흐디라고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로, 마흐다비아파(Mahdavia)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자운푸리(Muhammad Jaunpuri), 19세기 말 수단에 마흐디 국가를 세웠던 무함마드 아흐마드(Muhammad Ahmad), 아흐마다야파(Ahmediyya)의 창시자인 미르자 그훌람 아흐마드(Mirza Ghulam Ahmad) 등이 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나 그의 대언자들 중 하나 또는 그 둘 모두가 무슬림들에 의해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는 실제로 적그리스도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다. 그들은 희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의 대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어린양이 없이 그리고 어린양의 피 뿌림이 없이 유월절과 속죄일을 기념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한 개혁 유대교 랍비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죄들을 제거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행위들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즉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니라.”라는 말씀에 대해 그 랍비에게 물었을 때, 그는 사람이 문자적인

피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원(Temple Institute)²⁾의 한 대표자는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다른 방법을 주신 이유이고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랍비들이 성전이 파괴된 직후에 쓴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기도들을 드리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을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왕을 원했지 구원자를 찾고 있지 않았다.

주후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할 메시아를 찾아 왔다. 그 이후로 발전해 온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성전의 재건은 메시아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다. 랍비들 중 최고 권위자로 랍밤(Rambam)으로 불리기도 하는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에 따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잠재적인 메시아이다.

시몬 벤 코시바(Shimon ben Koshiba)는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반란을 지휘했던 2세기에 메시아로 간주되었다. 그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근거하여 바르 코크흐바(Bar Kokhba: '별의 아들')로 명명되었고 유대인들은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는 언약궤가 안에 놓여

2)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원 혹은 성전 재단은 구약의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기 위한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7월에는 성전에서의 희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붉은 암소를 복구하여 성전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중대 발표가 있었다(<http://www.templeinstitute.org/>).

있는 성전과 지붕 위에 있는 메시아의 별을 나타내고 있었다.

2010년에 성전 연구원의 한 대표자는 자기들이 성전 건축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세대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메시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그 사람,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것은 간단하다. 그는 평화의 중재자로 올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탄의 권능을 이용하여 무슬림들의 적대심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를 찾고 있다. 2010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비디오 인터뷰에서 개혁 유대교 랍비는 우리에게 메시아는 상황이 정말 어두울 때 와서 평화를 수립할 존재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예루살렘은 온전해질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전은 우리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영원한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빛 속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세상의 나머지 민족도 구속할 때까지 우리는 파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화는 와야 하지만 그 평화는 상황이 정말로 어두울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대언자들은 사악한 자들에게 평화가 없다고 말했다(사 57:12).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용

서받고 회심한 뒤에라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평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도 결국엔 거짓 평화로 드러날 것이며 거짓 평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속임수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3).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지 않다. 즉, 그들은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메시아, 그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을 도와줄 메시아를 찾고 있다.

비록 그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셈이고,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세상 국가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들과 거짓 이적들을 믿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세계의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물병자리의 시대'(Age of Aquarius)³⁾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평화의 축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곧 드러낼 것이다.

그가[거짓 대언자] 첫째 짐승[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

3) 스스로 신이 되려는 뉴에이지 추종자들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시기



이슬람의 바위 사원(왼쪽)과 가상의 제3 성전 모습

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계13:12-14).

적그리스도는, 현재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의 제3 성전이 성전 산 위에 세워지는 길을 열 것이다.

성경의 대언도 적그리스도를 제3 성전의 건축과 연결시키고 있다.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4) 제1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고, 제2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후에 건축되었으며 헤롯왕에 의해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치장되어서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렸다.

이스라엘에서는 제3 성전의 건축을 위해 매우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에 설립된 성전 재단은 (2백만 달러 가치의) 금 95파운드로 만든 메노라(등잔대)와 3만 달러가 소요된 대제사장의 금관을 포함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2010년과 2013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메노라는 성전 산 건너편에 있는 웨스턴 월 플라자(Western Wall Plaza)에 전시되어 있었다. 성전 재단은 또한 2014년 12월에, 제3 성전에서 사용될 희생물 제단을 완성했다.

예언 속의 무슬림 국가들

*Muslim Nations
in Prophecy*



성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의 장소로 회복된 이후의 이스라엘과 근대 무슬림 국가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들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극적인 반전이 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무슬림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에는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터키가, 동쪽에는 요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예멘, 오만,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무슬림 국가들(수단, 리비아, 알제리 등등)이 자리 잡고 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근대 국가가 태동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웃 무슬림 국가들과 빈번하게 전쟁을 치러 왔다.

1948년에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로 구성된 아랍 연맹에 대항해서 독립 전쟁을 치렀으며, 1956년에는 이스라엘 선박들이 자유롭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이집트가 허용하게 하기 위한 수에즈 전쟁이 있었다.

1967년에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로부터 군사와 무기 지원을 받은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의 연합군에 대하여 싸운 6일 전쟁이 있었다. 또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이집트의 소모전(War of Attrition)이 있었고, 1973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에게 공격당한 욘 키퍼 전쟁(Yom Kippur War)이 있었다.

이런 대규모 교전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PLO,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무슬림 단체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 상황이다.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확실한 말씀을 통해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의 예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금의 세계정세를 보면 무슬림들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것같이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영국과 유럽을 이민과 인구 증가를 통해 순조롭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세계 지배라는 이슬람의 목적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Barak Obama)는 이슬람 국가(IS)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적인 지하드가 이슬람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성경의 예언은 분명하게 이슬람이 세계를 장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은 에스겔서 36장 6-7절에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격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수치를 당해 왔지만, 그

날에 이스라엘은 높아지고 권능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 국가들을 지칭한다.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편 83편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보여 주며 결국 그들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설 것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블레셋) 사람들¹⁾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사11:13-14).

남쪽에 있는 자들은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리라(읍1:19).

고대 명칭인 '블레셋'은 히브리어의 '펠레쉐트'(Peleshet)에서 유래된 말로서 근대 명칭인 '팔레스타인'의 어원이다. 본래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원이 아랍도

1) 가나안의 남부 해안에 거주하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명칭은 블레셋(Philistia, 시60:8; 108:9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그들은 갑돌에서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그곳이 크레타라고 생각한다(창10:14). 그래서 그들은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아비 족속 즉 하세림에서부터 앗사(가자)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하였다(신2:23).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유대의 높은 지역과 지중해 사이에 있었으며 땅이 비옥해서 매년 좋은 수확물을 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미 왕과 도시를 소유한 강력한 사람들이었다(창20:2; 21:32; 출13:17). 그들은 가나안의 씨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족속들에 들지는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며 중동도 아니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왔으며 그리스 혈통이었다.

근대의 블레셋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이 고대 블레셋 사람들과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 이스라엘을 증오하며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고대 블레셋 사람들의 근거지들 중의 하나였던 가자 지구²⁾를 통치하고 있다.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가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가자와 웨스트뱅크(서안 지구)³⁾로 구성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염원하고 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회심한 이스라엘이 근대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르단(에돔, 모압, 암몬)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

2) 지중해 연안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으며 중심 도시는 가자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랍 난민촌에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의 주요 기지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여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기도 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가 되었으나, 1949년 UN의 이스라엘-이집트 휴전협정에 의하여 이집트 측에 편입되었다. 1956년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으나 1957년 다시 이집트의 영토가 되었고, 1967년 중동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와 함께 점령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가자지구 [Gaza Strip] 두산백과). 이곳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곳이다.

3) 이 지역은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둑'이라는 의미로 서안 지구(West Bank)로 불리며 제3차 중동전쟁(1967년)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됐다. 남·북·서쪽으로는 이스라엘 영토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접한다. 서안 지구의 구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을 장소인 모리아 산이 있다.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구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제3 성전 건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사11:13-14).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물을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 남아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남쪽에 있는 자들은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리라.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 산 위로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라(옵1:17-21).

요르단은 요르단강과 사해의 동쪽에 있는 고대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땅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요르단은 어느 정도는 친서방적인 아랍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과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요르단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 특히 남부 요르단 즉 고대의 에돔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롱하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또 떠받

쳐 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격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 내리리라(사63:1-6).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을3:19).

대언자 이사야는 정복자 그리스도께서 대살육으로 인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에돔 즉 남부 요르단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대언하였다. 여기서 보스라는 이사야가 예언했을 당시 에돔의 수도였다. 그곳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 트랜스요르단 지역에서 나온 것 중 가장 큰 건축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건축물들은 아마도 왕들의 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모스는 ‘보스라의 궁궐들’(암1:12)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스라의 현재 지명은 부세이라(Buseirah)이며 그 지역은 대부분 사막의 평지이고 작은 산들이다.

분명히 주님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중의 얼마를 물리치실 것이다. 요엘은 에돔이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을3:19).

성경에는 이집트와 에돔 모두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특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유대 민족을 대적하여 행한 그들의 폭력에 대한 징계로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John Phillips).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증오는 오래된 것이다. 에돔은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에 에서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창25:29-34). 비록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기껏 한 그릇의 죽보다 못하게 생각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장자권을 빼앗아 간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 에서가 나중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장자의 축복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을 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창27:33-41). 비록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임으로써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25:23). 이삭은 결국 이것을 인정했으며(창28:1-5)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셨다(창28:12-15).

에서의 후손들은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에돔 땅에 정착하였으며(신2:12) 야곱 곧 이스라엘에 대해 자기들의 조상이 표출했던 증오심을 계속해서 키웠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증오하게 되었다.

요르단은 에돔, 모압, 암몬을 대표하고 있는데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영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사11:14).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아시리아)

그 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곳 위에 흔드시는 그분의 손이 흔들릴 때에 이로 인해 그곳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것이요, 유다 땅은 군대들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대적하려고 결심하신 계획으로 인해 이집트에게 공포가 될 것이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자는 스스로 두려워하리라. 그 날에 이집트 땅의 다섯 도시가 가나안 말을 하며 군대들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곳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군대들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압제자들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맹세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신 뒤에 고쳐 주시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이집트에서 나와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야,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야,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사19:16-25).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집트의 수고의 산물과 에티오피아와 또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무역품이 네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네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네게 엮드리고 네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며 다른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리라(사45:14).

이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에 화평이 되리라. 그자가 우리 궁궐에서 밟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려고 일곱 명의 목자와 여덟 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피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그곳의 어귀에서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구출하리라(미5:5-6).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적이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집트는 1948년, 1949년, 1967년 그리고 1973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슬람 동맹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태도는 미래에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

이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비해 강력한 나라였고 지금도 여전히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네 번이나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하는 것을 주저한다 할지라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파괴할 수 없는 무기가 될 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이스라엘로 넘어올 자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사45:14). 이집트는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그분의 대장들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위의 예언에 있는 이집트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운명과는 다르다. 이집트는 단순히 정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여 이스라엘의 가까운 동료가 될 것이다(사19:18-21).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울 것이며,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한가운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게 될 것이며 그 경계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둥이 있게 될 것이다(사19:18-21). 그리하여 알라의 이름은 잊힐 것이다.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중심을 이루었던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하여, 미가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미5:6). 미가는 또한 이라크를 ‘니므롯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니므롯과 그의 동료들이 그 지역에, 남부 이라크에 있는 바빌론과 북부 이라크에 있는 니느웨를 포함한 최초의 도시 국가들을 세웠기 때문이다(창10-11장).

이집트부터 아시리아까지 큰길이 건설될 것이다. 고대 아시리아 왕국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땅과 터키의 동부 지방과 이란의 서부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 큰길은 그 두 지역 간의 여행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

다(사19:23-25). 이집트,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는 6일 전쟁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반자들이 되는 대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될 것이다. 이 국가들과는 분열과 적대심 대신에 연합과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그 국가들과 분쟁하는 대신에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을 가로지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결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군사적 대립은 없을 것이다. 그때는 개신교인인지 카톨릭교인인지, 민주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 왕정주의자인지 무정부주의자인지, 귀족 계층인지 무산자 계층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벨기세텍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이곳에서 만물을 축복하며 자신의 손들을 벌리고 계신 모습이 보인다. 한때 타락의 대명사였던 이방 민족의 나라 이집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며 폭력의 대명사였던 이방 민족의 나라 시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손의 일'이고 그대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 될 것이다(Jennings, <Studies in Isaiah>, p. 236).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사19:25).

레바논

내가 그들을 또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충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라(슥10:10).

레바논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권리로 이스라엘에 속하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창 15:18). 하맛(Hamath)이라는 도시는 천년 왕국 기간에 이스라엘 부족들의 북쪽 경계로서 언급되어 있는데(겔47:15-17) 하맛은 현재 레바논의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란(페르시아)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곱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나와 네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또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들과 불과 유향을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에게 비같이 쏟아리라(겔38:3-5, 22).

1935년까지 페르시아로 불렸던 이란은 러시아의 우방이며 이스라엘의 포악한 적이다. 이란의 국방부 장관은 이란의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열렬히 환호했다(AP, 2009년 2월 20일).

2008년 9월에, UN 주재 이스라엘 대사 메리도르(Sallai Meridor)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Israel Irked by Iran-Russia Military Ties,” PressTV.ir, 2008년 9월 13일).

러시아는 이란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주된 국가이다. 2014년에 러시아는 이란에 두 개 이상의 핵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Iran, Russia Agree to Continue Nuclear Cooperation,” ITAR-TASS, 2014년 5월 29일).

2012년 8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세계 군대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Jerusalem Post, 2012년 8월 2일). 같은 달,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거되어야 할 ‘암적 존재’라고 칭했고, 이란의 군 최고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환영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란에게 보복할 이유와 ‘유대인 국가를 영원히 없애 버릴’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The Top Commander,” The Blaze, 2012년 8월 18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도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 11월 8일, 그는 트위터에,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야만적이고 늑대 같고 영아를 살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체제는 진멸해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올렸다. 1년 전,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 지역의 사악하고 더러운 미친개’라고 불렀다.

에스겔서 38-39장의 예언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가담할 것이고 러시아와 함께 파괴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아라비아, 미디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격노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이 마시게 하라...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그곳의 왕들과 그곳의 통치자들이 *마시게 하여*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였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거하며 섞여 사는 백성들의 모든 왕들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사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라렘(25:15, 18, 24, 26-27).

수많은 낙타들과 미디안과 에바의 단봉낙타들이 너를 덮겠고 세바에서 나온 자들이 다 오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사60:6).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제적 동맹에 가담할 것이며 결국 아마겟돈 전투에서 파괴될 것이다(예레미야 25장). 그런 뒤에 아라비아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께 헌물을 보내게 될 것이다(사60:6).

예멘(세바)

수많은 낙타들과 미디안과 에바의 단봉낙타들이 너를 덮겠고 세바에서 나온 자들이 다 오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사60:6).

아라비아반도 남부에 있는 예멘 역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분께 헌물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예멘은 세바의 여왕이 다스리던 옛 향료 왕국이 있었던 곳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그 지역은 빈곤에 시달려왔다. 이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극적으로 바뀔 것이며, 세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올 재물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북아프리카(에티오피아, 리비아, 스바 사람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집트의 수고의 산물과 에티오피아와 또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무역품이 네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네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네게 엎드리고 네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며 다른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리라(사45:14).

칼이 이집트에 닥치고 죽임 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에 큰 고통이 에티오피

아에 있을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 가고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든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굽과 또 동맹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겔30:4-5, 19).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겔38:4-5)

지금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 중 세 국가의 이름이 성경의 대언에 언급되어 있다. 홍해에 접해 있는 에티오피아, 북쪽 해안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스바 사람들이다. 스바(sebawee)의 히브리 단어는 스바우(sebaw)에서 왔는데 스바우는 구스의 아들인 스바이다(창10:7). 스바의 후손들은 북아프리카에 거주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곡과 마곡이 이끄는 군사 동맹에 가담할 것이고 결국 파괴될 것이다(겔38:4-5). 에티오피아와 스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사슬에 묶여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사45:14).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슌14:8-9).



부록

1. 이슬람교 바로 알기 | 김재욱 118
2. 이슬람의 급성장과 그 대책 | 이만석 129
3. 할랄 푸드 열풍에 관하여 | 이만석 141
4. 이슬람과 성 윤리 | 이만석 147
5. 교회는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 이만석 152
6. 이슬람의 한국 정복 전략, 무섭대! | 이만석 167
7.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이슬람 | 이만석 174
8. 이슬람 여인들의 인권 유린 실태 | 유엔 난민 기구 185
9. 시리아 난민 사태와 이슬람의 유럽 및 미국 정복 202
10.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가 아닌 10가지 분명한 이유 217
11. 무함마드가 대언자가 아닌 50가지 이유 221
12. 왜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가? | 레베카 바이넘 227
13. 꾸란에서 예수님을 찾은 이슬람 지도자? | 김재욱 238

이 글들은 각각 목적에 따라 특정한 대상에게 쓴 것이므로 이 책 전체에서 중복되는 개념과 설명, 용어 등이 등장하지만 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두고 무함마드, 꾸란 등 이슬람 용어만 통일시켰음을 알려둔다. 글을 제공해 주신 분들과 번역으로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슬람교 바로 알기

김재욱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인접 국가들의 종교적 배경인 이슬람교. 지금부터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이며 세계적 현황은 어떤지, 왜 그리스도인이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¹⁾

현 재 이슬람교는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인구 증가율을 앞세워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을 잠식했고, 더 나아가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카다피의 과거 예언대로, 이슬람이 전쟁 없이 유럽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날이 불과 수십 년 내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덩샤오핑도 이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예배 장소인 모스크는 예배처 이상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데, 무함마드는 “지구 전체가 나의 모스크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 이 글은 짧지만 제목이 보여 주듯이 이슬람교를 바로 알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간략하게 다른 이들에게 이슬람교의 문제를 보여 줄 때 매우 유익하다.

다. 예루살렘의 성전 문제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몰고 와 마지막 7년 환난기를 열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열 발가락으로 여겨졌던 유럽 공동체나 EU 등이 국가 수가 많아지고 쇠락함에 따라, 중동 국가들이 바로 열 발가락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을 만큼 이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중동 중심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유럽은 10~20년 이내에 거의 이슬람화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도 40~50만 명가량의 이슬람 교인들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돈을 무기로 교육, 결혼, 구제, 꾸란 번역 등을 통해 새로운 무슬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모슬렘)이라고 하며 여성은 ‘무슬리마’라고 합니다.

1.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들을 포함한 3분의 1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의 신 알라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중에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빼면 알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뿌리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무슬림들이 성경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한다는 점 등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이고 아내 사라가 사라였을 때 그녀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며 이슬람 사람들은 그의 후예입니다. 성경에는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들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창16:12).

그러다가 이스마엘은 결국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의 씨를 이삭을 통해 보존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에 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다산하게 하며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열두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의 이 정해진 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니라(창17:20-21).

그런데도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무함마드의 고문 와라쿠와의 변개).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 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6-17).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은 메시아의 씨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도 아들이 더 있었음). 이스마엘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직접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애매하게 오해할 수 없도록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라고만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이 아는 알라는 전혀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누



이란 시라즈 지역의 한 벽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는 장면.

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여섯 명의 대언자(예언자, 선지자)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Muhammad)가 그 여섯인데 그중 무함마드가 최고 등급의 대언자입니다. 그 밖에도 20만 명의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전인 꾸란(코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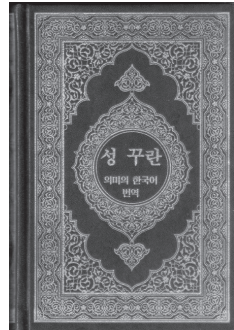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어느 누구도 알라의 벌을 막지 못하리니 (꾸란5:17)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유일신교로 오해하는 이들이 이슬람을 같은 유일신교라고 지칭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시는’ 삼위일체(Trinity)로 존재하시는 분(Triune

God)이지 알라신 같은 유일신이 절대 아닙니다. 알라는 초승달이 그들의 상징이듯이 고대의 월신(月神)입니다. 알라 무함마드 부족의 최고 신이었는데, 무함마드가 전능한 유일신으로 주장하며 이슬람교를 만든 것입니다.

2. 이슬람교의 태동과 경전 꾸란

무함마드는 주후 570년,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고, 25세에 첫 아내 카디자와 결혼한 이후 11~13명의 부인을 두었다가 62세인 632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지만 여행 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고, 40세 때는 히라산 깊은 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내의 후원을 받은 무함마드는 자기를 알라신의 대언자로 지칭하고 추종자들을 얻은 후에 622년 7월 15일을 이슬람교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 군대를 조직해서 다른 종교들을 공격했는데, 그가 죽던 해에 모든 아랍의 국가들은 그를 예언자로 추대하게 됩니다.

꾸란은 글을 모르는 무함마드가 20년 동안 가브리엘에게 받았다는 알라신의 계시를 자기 추종자들에게 적도록 한 책입니다. 그래서 1인칭의 아라비아어로 되어 있으며 전체 114장, 6,225절²⁾입니다.

꾸란의 뜻은 ‘독서(reading)’라는 의미인데, 주요 내용은 ① 유일신 알라를 믿고, ② 대언자 무함마드를 믿으며, ③ 천사, ④ 경전 꾸란, ⑤ 최후 심판, ⑥ 속명론, ⑦ 사후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믿음은 신앙 고백·기도(예배)·의무금(구빈)·단식·성지 순례의 다섯 가지 행위와 함께 7신 5행이라고 부릅니다.³⁾

2) 240쪽 하단 각주 참조

3) 최근에는 6신 5주라고도 부르며 7대 믿음 중 사후 세계를 제외한 여섯 가지를 다름

3. 이슬람의 양대 파벌 시아파와 수니파

이들에게는 시아파(Shias)와 수니파(Suunis)가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교를 양분하는 분파로, 수니파가 전 세계 15-18억 이상의 이슬람교도 중 85~90%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교조인 무함마드에게는 후계자로 지정할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 후 후계를 둘러싸고 대립이 시작되면서 시아파가 생겼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아부 바크르, 우마루, 우스만, 알리를 정통 칼리프(계승자·대리자)로 승인한 대 다수의 신자가 수니파를 형성했는데, 그들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정통 칼리프 왕조와 역대 칼리프 왕조로 봅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정당한 후계자가 그의 사촌이며 사위인 제4대 칼리프 알리뿐이라고 여기는 알리의 당파였습니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의 직계후손 11명만이 정당한 후계자이며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주장합니다.

수니파는 꾸란의 해석에 충실한 반면 시아파는 이맘을 무함마드에 버금가는 완전무결한 존재로 보고 그들의 꾸란 해석을 신봉합니다. 한편 시아파는 이슬람 영토와 이념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聖戰, 지하드)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한층 과격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양쪽 모두 과격하며 오랜 세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한다. 하마스 어린이들(왼쪽)과 어린이가 낀 자살 폭탄 테러단

4) 본서의 67쪽 ‘이슬람교의 근본 취약점’ 참조

4. 해괴한 천국/지옥론과 교리를 믿는 이유

이슬람의 교리에는 황당한 것들이 매우 많은데,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7층 구조의 천국입니다.

1층 : 끝없이 펼쳐진 강물이 넘치는 곳.

2층 : 이슬람 신자들만이 즐기는 곳.

3층 : 이슬람 신자를 섬기는 8만 명의 종들과 예언자들이 머무는 곳.

4층 : 제한 없이 많은 부인을 둘 수 있고 음식과 음악이 풍성한 곳.

5층 : 천 년마다 향락이 증가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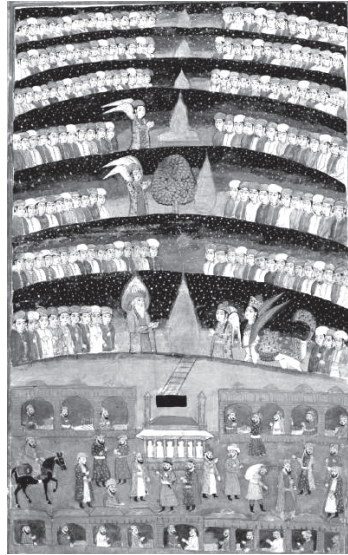
6층 : 100년마다 224,000명의 대언자가 늘어나는 곳.

7층 : 313명의 사도가 최종적인 주인이 되는 곳.

그들의 천국에는 하나님도 없고 거룩함도 없으며 거의 난잡하게 먹고 노는 판입니다. 물이 귀한 그들의 입장에서 끝없는 물이 펼쳐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으로 지어낸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한 죽으면 제한 없는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대목도 그렇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의 배경에도 이런 향락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미녀를 72명이나 아내로 둘 수 있으며 100명의 남자가 갖는 정력을 갖게 된다는 교리로 자살 테러를 주저 없이 감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지옥은 점입가경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향한 증오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층으로 이루어진 이슬람의 천국 상상도

1층 : 이슬람 신자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

2층 : 유대교인들이 가는 곳.

3층 :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4층 : 고대 아랍족인 사비안 족이 가는 곳.

5층 : 고대 페르시아의 마기 족이 가는 곳.

6층 : 위선자들이 가는 곳.

7층 : 이슬람교에서 떠나 타락한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협박을 하니 이슬람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한 이슬람은 전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도 철저한 포교 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있으며, 발톱을 숨긴 맹수처럼 단계별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세력을 얻으면 그들의 교리에 따라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할 자들입니다. 이슬람 치외 법권인 샤리아법과 이슬람 채권법도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기독교 정치인들을 위주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되는 데는 간단한 서약만 있으면 되고, 무척 쉽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죄들을 용납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종교 행위만 적당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는 자카트라는 의무금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호의를 얻기 쉽고 세력 확장이 쉽습니다. 또한 오일 머니로 포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슬람 교입니다.

5.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비상식적 특징들

여성 억압 : 이슬람교가 얼마나 여성들을 억압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남편에게 코를 잘린 여성의 사진이 해외 언론에 등장해 충격을 주

기도 했습니다(타입지 2010년 8월).

여성들에게 입히는 불편한 옷 문제도 이슈가 되곤 합니다. 또한 남녀가 간통을 저지르면 남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여자만 공개 총살시키는 장면이 인터넷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성인이 되는 여성들에게 여성 할례라는 것을 강제로 행해 여성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단지 남편을 위한 성적인 도구가 되게 하는데, 해외로 유학을 간 여성들까지 불러들여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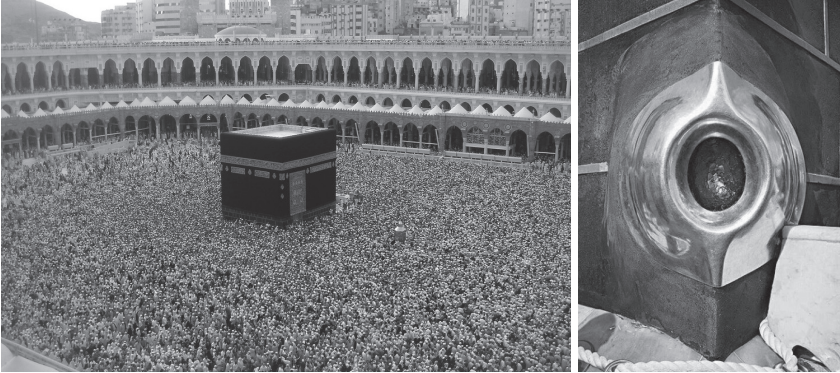
무함마드는 아홉 살 된 여성을 포함한 11~13명의 아내를 두었는데,⁵⁾ 이슬람은 교리적으로는 4명의 아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부다처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생리 기간에 욕정을 참지 못해 죄를 짓거나 평소에 밖에서 죄를 짓느니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인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도 무제한의 아내를 둘 수 있다면 여성들은 죽은 뒤에도 남자들의 향락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다처였고 율법에도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일부다처는 가인의 후에 라멕이 자기 멋대로 시작한 악한 제도입니다(창 4:19). 또한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는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 주도록 했지만 처음에는, 즉 하나



〈타임〉지의 고발로 화제가 됐던, 코가 잘린 여성. 오른쪽은 성형 치료로 코를 복원한 뒤의 모습

5) 영어 위키백과 'Muhammad's wives' 항목에는 총 13명의 이름이 나온다.



주위를 돌다가 종종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메카의 카바 신전(왼쪽)과 검은 돌

님의 질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마19:7~8, 5:31~32). 그러므로 한 남자가 오직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순리이며, 이혼이나 여러 아내를 두는 일은 전혀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마단(Ramadan) : 꾸란이 계시되었다는 라마단 월은 음력 9월로 한 달 동안 단식하는 기간이지만 해가 뜨고 질 때까지이며 해가 진 뒤부터 동이 틀 때까지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이슬람교가 행위의 종교이며 위선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우상 숭배 : 이슬람교도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Mecca)를 순례해야 합니다. 유일신을 섬긴다지만 우상 숭배와 행위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일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메카의 카바 신전에 있는 여성을 상징화한 검은 돌에 입을 맞추고, 사파 산과 마르와 산을 일곱 번 오르고 그 사이를 달리며, 메카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행진도 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보면 마치 천주교와도 비슷하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참된 기독교와는 다른 미신적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행해진 여러 형식들은 구원에 대한 표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 이슬람에 대한 대책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손잡는 필연적 과정에서, 성격상 이슬람은 결코 연합될 것 같지 않지만 은사주의의 변화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힌두교·이슬람 등에서 행하는 각종 괴상한 영적 활동인(오순절)은 사주의적 행위들을 보면 매우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통한 신비주의적 요소로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랑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치·군사적 폭력만이 있습니다. 죄의 개념도 없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육적인 향락만을 좇으며, 구원의 방법도 구원자도 없고 종교의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을 멋대로 훼손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경계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국내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참고 :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새 교회사(정수영 저, 규장), 두산백과사전 등

이슬람의 급성장과 그 대책

이만석¹⁾

먼저 이슬람의 정체를 알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라 일반 상식이 되어 버렸다. 미주나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슬람식 베일을 쓴 여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보인다.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00년에 1억 9,900만(12.3%) 명이었던 무슬림들이 10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0억 7천만(18.9%)을 헤아리다가 2015년 현재 공공연히 17억(23.6%)을 말하고 있다. 반면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1900년에 5억 5,800만(34.5%) 명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9억 9,900만(33.0%) 명이 되었고 지금은 22억(30.5%) 명이라고 한다.

19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6억도 채 안 되던 기독교 인구가 2015년 현재 22억이 되었다고 하니 115년 만에 394%나 성장하여 참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인구는 16억에서 72억으로 450%나 증가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

1) 이만석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여섯 개의 귀중한 글을 부록에 실었다. 여러 번에 걸쳐 다른 독자들을 위해 쓴 글들이라 그 안에 반복되는 내용이 조금씩 있으나 저자의 글의 취지를 살리며 또 글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독자들께서 이 점을 헤량해 주시기를 바란다.

계 인구 증가율에도 크게 미달하는 성장에 그쳤으며 세계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1900년 34.5%에서 2015년 현재 30.0%로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이슬람 인구는 1900년 18.9%에서 지금 현재 23.6%로 급격히 상승했고 인구로 볼 때 854%나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증가 추세는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반면 기독교 인구는 그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슬람 인구 급성장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

무슬림들은 출산율이 매우 높다. 출산율이란 한 여인이 평생 출산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를 말한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둘만 낳으면 인구가 유지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평균 2.1~2.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의 평균 출산율은 1.38명이고 대한민국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출산율은 약 1.25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3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이슬람권은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가 1986년도 4월 처음 이란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란 인구는 4천만 명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와 거의 비슷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란 인구는 8천만 명가량인데 대한민국 인구는 최근에 간신히 5천만 명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데는 이슬람 문화의 일부다처주의에 조흔 풍습이 큰

뭇을 차지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의 결혼 연령은 하한선이 없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50세 때 아이샤(Aisha)라는 친구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딸아이의 나이는 6세였다. 그러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3년을 기다렸다가 9세 때부터 합방을 했다고 한다. 무함마드의 행동은 지금도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표준이요 모범이기 때문에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자아이가 9세가 되면 학교에서는 성인이 되었다는 잔치를 벌여준다.

이란에서는 그 잔치를 ‘자쉬네 노셀레기’(jashn e no salegi)라고 부른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옹은 여자아이의 결혼 적령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한 살이나 두 살짜리와도 결혼해도 좋지만 부부생활은 9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모범을 따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슬람권에서는 여자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낙태도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는 가중된다.

개종의 자유가 없음

이슬람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무슬림 부모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무슬림이어야 하며 개종은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이슬람 신앙을 떠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꾸란에 보면 무슬림에게 자기가 믿는 다른 신앙으로 개종하라고 권하는 자는 이슬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어디서 발견하든지 살해하라(꾸란4:89)고 단호하게 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자는 정식 재판에 의해서 국법으로 처벌을 하고 체형을 가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지만 개종 자체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들이 명예 살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자체 모순에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으로는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도 겉으로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무슬림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교 활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위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이란 꾸란도 읽지 않고 무함마드의 가르침도 관심이 없지만 그 사회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무슬림이라는 종교 신분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실상은 무신론자 혹은 비무슬림이면서도 법적으로만 무슬림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중동에 살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슬림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 퇴로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학술회원인면서 당대 최고 권위의 이슬람 학자로서 이슬람에 관한 책을 120여 권 저술한 유수프 가라다위는 “만일 개종하면 살해하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았다.

포교 활동

이슬람처럼 상식적인 사람이 도저히 적응하면서 살기도 힘들 것 같은 괴상한 교리를 가진 종교가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급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서양에서 포교하고 있고 유럽의 청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슬람의 포교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교리의 단순함을 이용

이슬람의 교리는 단순하다. 기독교의 교리 중 삼위일체 교리 등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조차 불신자들에게 이해할 만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는 단순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라일라 일랄라 무함맘 라술알라)”라는 것만 아랍어로 고백하

면 개종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아랍어로 신앙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짧게 여러 차례 끊어서 복창할 수 있도록 일러준다. 이것을 따라서 복창함으로 무슬림이 되면 많은 무슬림들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 준다.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을 거친 뒤 세례를 받아야 정식 기독교인이 되는 복잡한 절차와는 달리 구두로 복창만 하면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교리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삼위일체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그럴듯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땅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거짓말이란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야 어려서부터 그것이 진리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속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도전을 받으면 그 즉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슬람에서 예수나 무함마드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던 선지자(대언자)들인데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존경하는 것이고 신은 오직 알라뿐이 없다고 주장하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간다고 한다.

집단행동을 통한 연대감을 이용

문화란 집단 습관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무슬림들은 습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율법을 들으며 태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꾸란 구절부터 암송한다. 새벽에 동이 뜨기 전부터 동네가 떠나가도록 찌렁찌렁한 스피커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Azzan)이 울려 퍼진다. 그러면 아버지부터 습관적으로 수돗가로 가서 무함마드가 기도하기 전에 씻었던 방법으로 세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찬찬히 살피면서 잘

따라 하면 매우 기뻐하면서 칭찬과 상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을 한 집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서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런 실천적 신앙은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 주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대감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이슬람 문화에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서구 문화에서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들을 보면서 막연한 동경심이 생기게 되고, 무슬림들이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던 유럽에서는 신학의 타락으로 인해 절대 가치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풍조가 만연하여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며 구시대의 산물로 조롱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하여 어떤 종교도 나름대로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목회자들을 모실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지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본 일도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들어본 일도 없는 청년들이 볼 때 어른이나 아이나 나란히 줄을 서서 ‘굽혔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매우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철저해 보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개종자가 속출하게 된다.

타끼야 교리

이슬람의 포교 방법 중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타끼야 교리다. 이는 소위 위장 교리라는 것으로서 이슬람, 무함마드, 꾸란, 알라...등 이슬람에서 최고의 자리에 뒤편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교도들에게 거짓말도 허용한다는 논리다. 매스컴이나 이슬람 성직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보면, 분명히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사람 목을 잘라 죽이라

는 구절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꾸란 8장 12절이라든지 47장 4절이라든지 목을 쳐 죽이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구절이 있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감춰야 하겠는데 이미 인쇄된 꾸란이 누구나 사서 볼 수 있도록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을 미화하는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너무나 쉬운데 구두로 세 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한국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마스크에 등장해 이슬람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방송 담당자들은 성직자들이 자신의 교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꾸란에 보면 이혼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과(꾸란2:229) 아내를 바꾸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꾸란4:20) 심지어는 이혼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꾸란 65장이 있다. 그런데도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된다는 미화된 거짓말을 한다. 그 방송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일일이 그 꾸란을 읽어보고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일단 거짓말을 하면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포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에서는 미화된 홍보용 거짓 자료(동영상, 책자, 전단지 등)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유통시킨다.

지하드를 통한 포교

이슬람의 포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즉 거짓과 폭력이다. 거짓은 타끼야라고 한다면 폭력은 지하드(성전)라고 한다. 혹자는 지하드는 자신과의 내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대 지하드와 이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잡아야 하는 전쟁을 의미하는 소 지하드로 나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하드라는 개념이 너무 혐오스럽고 끔찍하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이 들을 때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후대에 만든 사상으로서 꾸란과 하디스의 개념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정통 학자들도 이 하디스는 근거가 없는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디스란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이슬람의 제2의 경전으로 취급될 정도로 이슬람 율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지하드를 성전(Holy War: 聖戰)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무슬림들이 볼 때는 테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단순히 이슬람을 믿지 않고 무함마드의 계시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죽이려 가는 사악한 전쟁이 어떻게 거룩한 전쟁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꾸란에서는 이 지하드가 모든 무슬림들의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날 아라비아반도에 사는 유목민들이 “우리도 이슬람에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찾아왔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이들이 비무슬림들은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신앙심이 없음에도 귀의했다고 고백한다고 책망하면서 진정한 무슬림의 정의를 내려 주었다. 진정한 무슬림이란, 첫째는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둘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며 셋째는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를 실천하는 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말했다(꾸란49:15).

오늘날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지방에 근거를 둔 소위 이슬람 국가를 자처하는 수니파 무장 단체 IS가 이슬람 율법대로 실천하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만일 진정한 무슬림이 되기를 원한다면 IS에 합류하여 지하드를 하라고 촉구한다.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헌신된 무슬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런던의 무슬림들 80%가 IS를 지지하며 매주 평균 5명씩 IS에 가담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무슬림들의 69%가 IS를 지지한다고 한다. 유럽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아 누리며 자라난 무슬림 2세들이 잔인한 IS를 지지하고 동

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이를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혹자는 무슬림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 폭발시킬 돌파구를 찾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은 플레랑스(관용)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유 없이 누구를 따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최대의 편익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부로 남의 종교나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면 가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설 땅을 잃을 것이다. 사람을 납치해 목을 잘라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것 등 최근에 보여준 IS의 끔찍한 행동은 오히려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 분명히 알도록 네 이웃과 싸우라”(꾸란9:123)는 구절을 실천하기 위한 헌신된 무슬림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민 정복 정책

무함마드가 보여 준 행동은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 해야 할 모범이다. 무함마드가 주후 622년 메카에서 핍박을 피해서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이슬람에서는 헤지라(Hejira)라고 하며 이를 이슬람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 달력은 이때를 원년으로 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메디나라는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잠시 그곳에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세력을 얻어 그곳의 총 통치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을 규합하여 주변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고 결국 630년 자신의 고향 메카까지 점령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뤘다. 당시 메카의 카바 신전 안에는 360여 개의 우상들을 안치해 놓았었는데 그는 신전의 문을 열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카바 신전을 오직 알라의 신전으로 명명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 체제를 확립했다.

이것이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모델이다. 무슬림들은 오늘날 역시 유럽과 세계 각처로 이민을 가서 그곳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그 사회와 체제를 전복하여 이슬람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함마드가 칼과 폭력으로 점

렷듯이 현대의 무슬림들도 자신들을 받아 준 국가의 체제를 이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타끼야가 적을 속여 아군의 숫자를 늘리는 작전이라면 지하드는 적들을 죽여서 적들의 숫자를 줄여서 아군들이 우위를 점령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정책이다. 문화라는 것은 지역 조건에 맞게 혹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된 자신들만의 집단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래 살려면 그 지역의 풍습에 동화되고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은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예의범절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토착민들과 동화되어야 마찰 없이 평화 공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문화 평화공존을 교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이교도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는 꾸란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다(꾸란4:139~144, 꾸란3:28 등).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꾸란5:51)며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구절도 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무슬림들은 타문화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그들에게 최선의 혜택을 베풀어 주면 그들도 감동해서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며 계속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슬림들의 테러 덕분에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보호법까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는 그들을 동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정책 덕분에 유럽에서조차 무슬림들에게 1부 4처 제도를 인정하는 법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줄어드는 유럽 인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슬림들 출산에 많은 복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의 율법인 샤리아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을 운영하는 곳이 85개 도시에 있을 정도다. 이처럼 무슬림 인구는 다문화 정책을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대책

이슬람의 급성장에 대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이슬람의 정체를 알리는 일이다. 그들의 예쁘게 포장된 양의 가면만 보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이리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는 세미나를 열어 교인들을 일깨워야 한다.

유럽과 미주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통계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또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무슬림들의 미화된 강의를 들었다면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는 강의도 들어야 이슬람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성경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파고들어 올 수 있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교양 강좌나 유명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작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변증을 위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만들어진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그들은 성경을 변질 위조된 책으로 선언하고(꾸란5:13) 꾸란은 하늘에

있는 책의 원본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성경의 진위를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꾸란3:4). 이런 위험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 주변으로 몰려드는 무슬림들을 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때 살기 좋았던 유럽이 이제는 무슬림들을 키우는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 본토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무슬림들과 내부에서 태어났지만 본토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무슬림 2-3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 정책 대신에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출산을 장려하여 자체 인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낙태를 엄벌함으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낙태만 막아도 인구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의 가르침과 무함마드의 행동 모범 때문에 절대로 타문화와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모르면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없고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할랄 푸드 열풍에 관하여

이만석

최 근 몇 년 동안 농림 수산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들은 세계 인구의 25%인 이슬람교도의 식탁을 사로잡자는 모토를 가지고, 또는 710조원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랄 식품과 할랄 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앞다투어 개최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런 노력 탓인지 요즘 한국의 식품업계에는 ‘할랄 인증’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밀가루 제조업체인 동아원은 87종류의 일등급 밀가루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제과업계 중에는 크라운제과가 조리퐁과 콘칩 등 4종류의 과자류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 농심과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라면들과 CJ제일제당의 김치와 햇반 등 43개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프랜차이즈가 받았다는 할랄 인증은 한국이슬람중앙회(KMF)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이는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내용이라고 한다.

대체 ‘할랄’이 무엇이기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그 인증을 받으

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할랄이란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 있다. 무슬림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람’이라고 한다. 한국 식품업체들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을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이들은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은 곧 위생적이며 맛과 질과 신선도가 우수한 웰빙 식품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굳게 믿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할랄 식품을 보도할 때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취급된다는 멘트를 함께 내보내곤 한다. 그러나 사실 할랄 인증은 위생이나 성분 등 식품 자체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슬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꾸란에 의하면 ‘죽은 고기, 피, 돼지고기,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것, 목 졸라 죽인 것, 때려죽인 것, 추락 등 사고로 죽은 것, 서로 싸워서 죽은 것, 다른 짐승이 일부를 먹다 남긴 것,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꾸란5:3).

그런데 꾸란 2장 173절에는 “고의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경우에, 또는 알라에게 불순종할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알라께서는 잘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꾸란 5장 3절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는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2장 173절을 중요시할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발리, 말리키, 하나피, 샤피이 등 4개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할랄 인증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국이슬람중앙회가 할랄 인증을 한 것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위원회가 규정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국내용에 머무는 것이다.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의 할랄 식품 인증 기준은 크게 다음 몇 가지

로 요약된다.

1. 도살자는 무슬림이어야 한다.
2.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야 한다.
3. 짐승의 머리가 메카를 향하고 죽어야 한다.
4. 목의 4개의 혈관을 단번에 잘라야 한다.
5. 도살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쳐야 한다.
6. 목을 친 짐승을 거꾸로 매달아 그 피를 다 빼야 한다.
7. 짐승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도살하면 안 된다.
8.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 없다.
9. 사냥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사냥개가 일부분이라도 먹었으면 그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가축을 잡기란 쉽지가 않다. 도살자가 무슬림이어야 하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사람이 모두 일일이 목을 쳐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부득이 도축용 기계를 사용하여 짐승의 머리가 메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스피커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반복하여 들리게 한 상태에서 도살하고는 할랄 인증서를 붙인다. 혹시 녹음기가 고장 나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계속 방송되지 않았다 해도 그 도축장에서 잡은 것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이 된 고기만 먹으며 그렇지 않은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그런 식당은 건물 외부에 “이 업소는 무슬림이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이 찾아온다. 물론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해도 비무슬림

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을 우리는 원리주의 무슬림이라고 부르며 쌀라피 혹은 와하비 무슬림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한 가지는 할랄 인증의 기준이 영원히 불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라도 샤리아 위원회에서 할랄 기준을 바꿔놓고 공포하면 즉시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양의 무역업자들이 중동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된 것을 보고, 차를 마실 때 각설탕을 곁들여 먹게 하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무슬림들에게 접근하여 각설탕을 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슬람의 이مام이 “각설탕은 비무슬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람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요가 대폭 줄어 버렸다. 깜짝 놀란 무역업자들이 이مام에게 찾아가서 충분한 대가를 약속하며 각설탕이 ‘할랄’이라고 공포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민하던 이مام은 드디어 기막힌 묘책(?)을 찾아내 선언했다.

“각설탕이 하람인 것은 맞지만 입에 넣기 전에 차에 담가서 꼬쓸(목욕)시키면 할랄이 된다.”

그러자 모두들 안심하고 다시 각설탕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할람과 하람을 수시로 바꾸는 이مام들의 황당한 파트와(알라의 이름으로 내리는 유권 해석)에 익숙해져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지만, 아직도 중동에서는 차를 마실 때 각설탕을 차에 담갔다가 먹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이란에서 철갑상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하람 생선이었고, 수출하는 용도로만 잡도록 허락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카스피 해변에 가면 누구나 철갑상어구이를 먹을 수 있고, 방문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고급 메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어느새 할랄 식품으로 바뀐 것이다. 고등어나 새우도 비늘이 없어 원래는 하람이지만 중동의 이슬람권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식당에서 여러 가지 새우 요리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도 언젠가 할랄 음식이 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최근에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개나 고양이 고기를 할랄로 선포했다. 어떤 무슬림들도 개나 고양이 혹은 돼지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하람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 성직자의 파트와(이슬람 칙령) 한 번에 할랄이 되는 것이다(조선일보2013. 10. 17).

할랄(허락된 것)과 하람(금지된 것)은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 하람이 할랄로 변경된 사례를 찾다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발견했다. 이슬람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하람(불법)이었다. 그런데 시리아에서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 여인들이 성 접대하는 것을 할랄(합법)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교(性交: sex) 지하드(Jihad al Nika)’라고 불렀다. 이 새로운 파트와(알라의 이름으로 내리는 유권 해석)에 대해서 아랍의 여러 무프티(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이를 지지하는 새로운 파트와들을 다투어 발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이슬람 성직자 무함마드 알 아리피(Muhammad al Arifi)는 남편이 있는 여인도 ‘성교 지하드’에 동참하는 것은 할랄이라고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로 성직자인 너세르 알 아므르(Naser al Amr)는 이슬람 전사들의 주변에 여인이나 여자아이가 없을 때는 마하람(혈연 관계가 있어 결혼이 금지된 여인)과의 성관계도 할랄이라고 선포했다(shia-online 2013. 9. 10).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할랄과 하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리고 할랄 인증은 순수하게 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랍 지역의 도살장과 똑같은 도살장을 만들어 더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그가 무슬림이 아니라면 그 도살장에서 도축된 고기는 할랄이 될 수 없다. 그가 무슬림이라도 짐승이 죽을 때 그 머리가 메카를 향하지 않았든지 또는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그 고기는 규정상 할랄이 아니다. 이처럼 할랄 인증은 위생이나 신선도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했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 것이다.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7억 무슬림들이 모두 할랄 음식만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오히려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원하는 극소수의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을 미끼로 지하드 자금을 끌어모을 뿐 아니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권위로 경제계를 장악해서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경제 지하드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때로는 무슬림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앞을 다투어 할랄 인증서를 얻으려고 매달리는 현상이 안 쓰롭다. 마치 “우리가 보통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이슬람 율법을 지키겠으니 우리 물건을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를 샤리아로 다스리기 원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에게 돈 싸들고 제 발로 달려 들어가는 격이다. 지금까지 할랄 인증이 없어서 이슬람 지역에는 전혀 수출을 못했던 것도 아니다.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그들이 돈 싸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좀 더 손쉽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겠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신앙의 양심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기업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요원한 꿈일까.

이슬람과 성 윤리

이만석

최 근 국민일보 기사에 'IS(이슬람 국가), 야지디족 10대 소녀 수천 명 성 노예로'라는 기사가 눈에 띄어 읽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성 윤리가 철저해서 정조를 생명처럼 중시한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10대 소녀 수천 명을 납치하여 성 노예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값을 매겨 경매에 부치거나 팔기도 한다는 뉴스에 놀랐을 것이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8월 IS에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15세 소녀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 소녀는 지금도 억류된 수많은 10대 소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 소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IS는 소녀들을 모아 놓고 전사들에게 계급이나 전과에 따라 몇 명씩 데려갈 수 있게 했다. 그 소녀들은 눈의 색깔이나 몸이나 치아 상태에 따라 값을 매겨 팔기도 했는데 이 소녀는 여러 차례 팔려서 어떤 집에 갔더니 비슷한 처지의 소녀들이 몇 명 더 있었고 밤마다 성관계를 위해 번갈아 불러 나갔다. 만일 성관계를 거절하면 폭행을 당하

는 경우가 빈번했기에 너무나 괴로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지만 마음을 고쳐 먹고 밤중에 창문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알자지라 영어방송에서도 탈출한 19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소녀들은 탈출에 성공했을지라도 성적 학대를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충격뿐 아니라 납치되었던 여성이라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2014. 11. 17).

비단 IS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보코하람(서양 교육은 범죄 행위라는 뜻)도 비슷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보르노주 치복시에서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했고 탈출에 성공한 수십 명 외에 219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인데 보코하람의 지도자로 알려진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들은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결혼했기에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인 인권 감시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9년 이래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성은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보코하람의 손에서 탈출한 일부 여성들은, 피랍 여성들이 강제 개종, 강제 결혼 등을 통해서 성폭행 당하고 있으며 성 노예로 팔리기도 한다고 증언했다(뉴시스 2014.11.1).

참고로 유럽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은 무슬림들에 의한 강간 사건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인구 28만의 스웨덴의 말뫼는 인구 137만의 수도 스톡홀름보다 강간 사건이 5~6배 많다고 보고되었다(fjordman 2005.2.20). 이는 스웨덴 인구의 평균 5%가 무슬림인데 말뫼는 그 다섯 배가 되는 25%가 무슬림이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집단들은 성 윤리가 문란한데 이것이 이슬람 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슬람의 원리주의나 근본주의란 꾸란에 있는 그대로,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모범

그대로를 실천하겠다는 사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함마드가 보여준 성 윤리의 표준은 무엇인가? 우선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실로 그것은 수치스럽고 죄악으로 가는 길 이라”(꾸란17:32)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무슬림들은 간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알려계서 주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 사람의 무슬림이 수십 명의 한국 여인들을 간음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언젠가 한번 파키스탄 무슬림을 체포했는데 한국인 여대생이 제발 자기 남편을 풀어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호소하기에 “당신 부모님과 상의할 테니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더는 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분명히 정식 결혼도 아닌데 왜 이슬람 율법이 금하는 간음을 하는 것일까?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하는 하디스를 살펴보면 전쟁시에 적군의 남성들은 모두 죽이고 아이들과 여성들은 포로로 잡아서 병사들에게 나눠 주었다. 전쟁을 치르느라고 오랫동안 아내와 떨어져 살던 병사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리품으로 배당된 여인들과 즉석에서 성행위를 즐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래 하디스를 보자.

알라의 사도(무함마드)의 동료들 중 어떤 이들은 비무슬림 남편 보는데서 그 아내들과 성행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지고하신 알라께서는 계시를 내려주셨다.

이미 혼인한 여성들과는 금지되나 네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과는 예외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내리신 알라의 명령이니라(꾸란4:24)(Sahih Muslim Book 8, No. 3433).

여기서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

으로 받은 여성 포로나 노예들로서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며 사고팔거나 말과 무기 등과 바꾸기도 했다는 것이 이슬람 역사의 증언이다.

최영길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꾸란4:24).

여기서 아랍어의 니카(Nikah)라는 단어는 결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관계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과의 '결혼'보다는 '성관계'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으로 볼 때 더 적합하다. 또한 전쟁 포로와는 남편이 있더라도 결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구절에서 지참금이라고 번역된 아랍어는 우주르(Ujur)인데 이는 어떤 수고의 대가로 주는 돈, 품삯, 임대료, 사용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번역한다면 이 구절은 아래와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는 성관계가 금지되나 전쟁 포로들은 예외니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다. 그리고 간음이 아닌 합법적 성관계를 원할 경우는 품삯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함으로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품삯을 줄지니라(꾸란4:24).

위의 꾸란 구절 덕분에 지금도 많은 헌신된 무슬림들이 지고하신 알라의 자비로 내려주신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맘껏 즐기고 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디스들을 보면 일부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에게 아래와 같

은 질문을 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여 우리가 여성 포로들을 전리품으로 배당받았는데 값을 잘 쳐서 받고 싶어 그녀들과 성행위를 할 때 질의 사정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알라께서 태어나게 하실 자들은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다 태어나게 되느니라.”(Sahih Bukhari B.34 No.432).

우리는 알라의 사도와 빌-무스탈릭으로 전쟁을 하러 가서 멋진 아랍 여인들을 포로로 잡았다. 우리는 아내들과 떨어져 있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들을 원했다. 한편 그녀들을 좋은 값에 팔고도 싶었다. 그래서 그녀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 사정을 했다. 그러다가 알라의 사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그분께 물었더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부활의 날까지 태어날 자들은 다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Sahih Muslim B.8 No.3371).

이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위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의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부카리와 무슬림의 하디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무함마드가 보여 줬던 모든 말과 행동은 이슬람 율법이라고 불리는 샤리아의 근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가장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 율법대로 통치하는 나라로 독립을 선언한 IS에서는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참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정당화하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그런 행위에 대한 수치심은커녕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광신적 무슬림들만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부터 그의 후계자인 칼리프들을 포함하여 현대의 이슬람 지

도자들까지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들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미워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다. 순진한 여인들이 속아서 무슬림과 결혼해 일생을 망치는 것만은 말려야 하겠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경전이나 권위 있는 하디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교회는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만석

이슬람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슬람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폭력과 테러와 범죄행위가 급증하기에 이제까지 온건한 눈으로 이슬람을 바라보던 유럽인들까지도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 박사는 20세기가 낳은 인류 최고의 정치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23세부터 81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58년 동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임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자문 위원을 역임했기에 이론과 실제 정치의 최고 권위자였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1993년 <포린어페어즈>라는 잡지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은 냉전 시대가 끝나면 지구촌은 이슬람권의 인구 폭발과 폭력적인 속성 때문에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등과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논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각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웃의 다른 문화

에 대해 인정하고 포용해 줌으로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선진화된 지성인의 태도라는 보편적인 믿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문명의 충돌론을 발표한 헌팅턴 박사는 학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고 아무도 그 논문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만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다. 승객들이 가득 타고 있는 비행기를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아 3,000명에 달하는 생명을 살해한 테러였다. 온 세계가 애통할 때 중동의 무슬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축포를 터뜨리며 기뻐했다는 것은 뉴스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그 후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무슬림들의 테러 때문에 문명의 충돌론이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현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는 바로 알아야 유럽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슬람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이슬람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흔히 이슬람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창조주 유일신 절대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Allah)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종교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같은 신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다.

알라(Allah)는 무함마드가 속했던 꾸라이시족이 섬기던 종족 신이었다. 이슬람 역사에 의하면 알라에게는 라트(Lat) 우짜(Uzza) 마나트(Manat)라는 세 딸 신이 있었다.

알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이미 믿음을 떠난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꾸란5:17).

알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다(꾸란4:157).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막아보겠다는 사탄의 모략이다.

알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산 채로 승천했다고 한다(꾸란4:158).

알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꾸란7:73).

알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꾸란19:88-91).

알라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의 출현을 미리 알리러 왔다고 한다(꾸란61:6).

예수님은 무슬림이었으며 알라만을 믿으라고 전파했다고 말한다(꾸란5:72).

그러므로 이슬람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함마드의 발밑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인류 구원을 막아 보려는 다른 신 알라(Allah)를 믿는 종교이다. 그들의 목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며 이는 거짓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요일2:22). 그러므로 이슬람의 영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여 인류를 지옥으로 빠뜨리려는 악한 영이라는 기본적인 정체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타끼야(Taqiyya) 교리를 알아야 한다.

이슬람의 정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타끼야(위장)라 부르는 거짓말해도 좋다는 편리한 교리가 있어서 이교도들을 속이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꾸란 구절들을 보자.

알라께서는 너희가 생각 없이 한 맹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으시며 진심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 알라는 잘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시다.(꾸란2:225)

배교한 자는 알라의 가혹한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한 자는 예외로 한다.(꾸란16:106)

그래서 무슬림 학자들은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거짓으로 미화시킨 이슬람을 홍보한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들이 미화시킨 거짓말을 듣고 대신 홍보해 주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 결과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미화된 자료들 중 어느 것이 참된 이슬람을 소개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화되지 않는 이슬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직접 읽어 봐야 한다.

셋째: 무슬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보통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칭한다. 보편적인 인식으로 볼 때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의하면 자칭 무슬림이라고 해도 그들을 무슬림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꾸란에 의해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무함마드가 주후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후 군사적 힘이 생기자 주변 사람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그러자 사막의 유목민들은 이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칭 무슬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하

면서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라고 하고 진정한 무슬림의 정의를 선포했다.

사막의 베두인들이 “우리가 만나이다.”라고 말하니 말해 주라.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 아직 믿음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고 말하라”...오직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절대로 의심치 않으며 생명과 재산을 바쳐 알라를 위해서 지하드 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믿는 자(무슬림)들이다(꾸란49:14-15).

그러므로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 하는 자들이 아니면 진정한 무슬림들이 아니다. 이것은 이름 없는 소수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꾸란의 구절이다. 그러므로 어떤 무슬림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든지 “무슬림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면 그는 속이고 있든지 속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꾸란의 정의에 의하면 알카에다, 탈레반, 무자헤딘, 헤즈볼라, 오사마 빈라덴, 보코하람...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무슬림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스러운 무슬림들은 사실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의미의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저 창조주에게 복종하며 복을 받기 원하는 순진한 우리의 이웃일 뿐이다.

넷째: 지하드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의 이슬람화이며 세계를 알라의 종교로 통일시키는 것이다.(꾸란8:39, 꾸란2:193)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무신론자들과 싸우는 전쟁을 지하드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지하드를 성전(聖戰:Holy war)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다. 지하드란 그저 알라를 위하여 혹은 이슬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무슬림들과 싸우는 전쟁을 말한다.

그들은 한 사람씩 설득하는 포교를 통해서 이슬람의 확산을 피하기보다는

이교도들을 전쟁으로 점령하여 국가의 체제를 바꿔서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모델이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당시에도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웃들과 싸우고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전쟁을 피하고 출전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꾸란9:86-90). 무함마드는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내려왔다고 아래 구절을 선포했다.

그리고 신자인 채 하는 위선자도 알고 계신다. 알라의 길을 위해서 싸우라, 와서 적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싸우는 법을 알았더라면 따라갔을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신자라기보다는 불신자에 가깝다. 알라께서는 너희가 숨기는 것을 잘 아신다(꾸란3:167).

너희가 비록 싫어할지라도 전쟁은 너희에게 부과된 의무니라(꾸란2:216).

이런 꾸란의 전쟁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며 위선자들은 가혹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꾸란4:145).

어떤 이들은 지하드 용사들을 이슬람 율법도 잘 모르는 몰지각한 광신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지하드라는 것은 내면의 영적 전투를 의미한다고 둘러대기도 한다. 그러나 꾸란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샤리아의 근본정신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통일시켜 알라 앞에 굴복시키고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싸우라고 한다(꾸란8:39).

샤리아로 통치한다는 말은 그들의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꾸지 않았어도 이슬람 율법의 통치하에 묶어 두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무슬림이 마음은 이미 타 종교로 개종했으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슬람을 떠났다면 이미 무슬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보다는 이슬람의 율법 아래 복종하는 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나 신앙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통치 수단을 포함한 총체적인 삶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샤리아의 근본정신은 유명한 ‘알왈라 왈바라’(Al Walla Wal Bara)이다. ‘알왈라’(Al Walla)라는 말은 “모든 무슬림들은 인종 국적 성별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돕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왈바라’(Wal bara)라는 말은 “모든 무슬림들은 인종, 국적, 성별,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절대로 비무슬림을 돕거나 지지하거나 친구로 삼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해서는 안되며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이런 정신 때문에 무슬림들이 많아지면 사회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유럽의 각 나라 정부가 잘 발달된 복지 정책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고 의식주와 교육까지 챙겨 주었어도 그들은 유럽에 절대로 동화될 수 없고 동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유럽을 공격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샤리아의 근본정신 때문이다. 꾸란에서도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꾸란3:28, 꾸란4:144)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집단행동을 하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자신들의 활동에 유리하도록 바꾸기 원하며 비무슬림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로 분리 독립을 꾀하며 결국은 무력으로 자신들의 목표인 이슬람 통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인도에서 이슬람 종교 때문에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이나 방

글라데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럽의 보스니아 사태 또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태국의 남부 3개 주, 중국의 신장성, 나이지리아 북부 등 세계 각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이교도들을 친구로 삼지 말고 절대로 사랑하지 말며 알라의 원수요 무함마드의 원수요 모든 무슬림들의 원수로 대하라는 꾸란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꾸란60:1).

여섯째: 대한민국의 딸들을 지켜야 한다.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숨막힐 것 같은 율법의 족쇄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왔더라도 방문 목적이 끝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무슬림들 중에 불법 체류를 하면서라도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불법의 굴레를 장기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고국에 처자식이 있더라도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인 아내 한 사람을 더 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슬람의 결혼관은 한국의 결혼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무슬림과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인 여성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1. 남편이 숨겨 둔 다른 아내가 있거나 또는 다른 아내를 더 취하면 같이 살 수 있는가?(꾸란4:3) 무슬림 남자들은 4명까지 아내를 취할 합법적 권리가 있다. 내 남편은 무슬림이지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유혹이다.
2. 이혼은 남편만의 권리이며 남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구두로 3회 통보만으로 이혼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꾸란2:229-230)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3회 통보해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

3.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꾸란 4:34) 무함마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꾸란2:221) 이슬람 국가에서는 타 종교인들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남편의 나라에서는 탈선행위일 뿐이다.

이슬람의 결혼 개념은 한국 사람들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결혼을 아랍어로 니카(Nika)라고 하고 결혼 계약을 ‘니카 계약’이라고 하는데 ‘니카’라는 단어는 원래 성행위를 의미한다. 결혼 계약서에는 반드시 메흐르(Mehr)라는 아내의 몸값을 써넣어야 한다. 이 금액이 기록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기재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무슬림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평생 독점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이다. 아내는 몸값으로 받은 돈만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남편은 돈 주고 아내를 샀기 때문에 아내의 주인이며 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평생을 이 여인만을 아내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혼은 아랍어로 ‘탈락’(Talaq)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즉 문장을 구성할 때 남편은 탈락을 ‘한다’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내는 탈락을 ‘당한다’는 표현만 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몸값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원할 때는 부담 없이 버리고 귀국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자매들이 무슬림들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 결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일곱째: 무슬림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거짓 영에 속고 있는 피해자들일 뿐이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적으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체계적인 꾸란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꾸란을 7세기 문어체 아랍어로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환자를 미워하는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으며 환자의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을 볼 때 의사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병의 증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 형제자매들은 불쌍히 여기며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덟째: 이슬람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산유국들인 이슬람 국가들과 친선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한다. 간혹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오래 체류했던 무슬림들끼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니까 적당히 이용하라”는 매뉴얼까지 소개한단다. 이 모든 현상들은 복음 전파의 기회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사회 혼란으로 가는 위험 상황 직전 단계인가?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박대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한다. 이에 무슬림들은 차별 대우를 당한다고 항의한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유럽처럼 복지를 완벽하게 제공했다라도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트집을 잡아 항의를 할 것이지만 이것도 이슬람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수로라도 그들에게 트집 잡힐 만한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술 등은 권하지 말아야 하며 여성들은 가슴골이 드러나는 복장이나 초미니 바지나 치마는 삼가는 것이 좋다. 여성은 혼자서 무슬림 남성에게 차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금해야 할 것이며 혼자 집으로 초대를 받으면 정중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들 보는 데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꾸란을 발로 차거나 낙서를 하거나 찢는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근무 중 이슬람식 기도 시간을 요청하면 회사 내규를 들어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양보하면 집단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무슬림들이 특별히 혐오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며 '천국'을 설명할 때도 무슬림들은 침상에서 술잔을 받쳐 들고 후리(선녀)들이 기다리는 곳을 연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전문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정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언어 소통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인지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한국어를 하겠지만, 신앙 서적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외국인들을 전도하려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언어권씩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몽골 사람들은 A교회로 보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B교회로 보내고 아랍인들은 C교회로 보내는 등 서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몽골 사람들을 맡은 교회는 담당자를 세워 몽골의 역사와 사회와 정치 상황과 토속 신앙과 언어를 익히고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각 나라 언어를 익히고 추방된 선교사들이 많아서 원하면 적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원어민 목회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십여 개 언어권의 외국인들을 모아 놓고 회중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 가지 언어로 설교를 하면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열째: 무슬림들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무슬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경전인 꾸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흔히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알려계서 하늘의 원본을 내려보내신 것이 꾸란이다”라고 하는 소위 성경 변질론에 기초한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변질된 성경을 믿고 있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이 변질된 줄을 전혀 몰랐는데요. 그런데 언제 변질된 거죠?” 하고 되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저 변질되었다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지 언제 어디가 변질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사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콤파 사본과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발견에 의해서 최소한 주전 1-2세기부터 현재까지는 변질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무함마드도 메카에 있을 때 즉 주후 610년부터 622년까지는 성경이 진리라고 했다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꾸란3:3). 그러나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통치권을 확보한 후에 힘이 생기자 주후 624년부터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가진 성경은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언제 변질되었다는 것인가? 대답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함마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도 딸도 없는 알라(Allah)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한다.”

이는 요한에게 우레(천둥)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우레(천둥)가 누구와 결혼해서 요한을 낳았다는 말이 아닌 것과 같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지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격과 인품과 인간 됨됨이가 우레처럼 급하고 과격하고 강하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격과 인품과 됨됨이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평화의 아들’, ‘정의의 아들’, ‘위로의 아들’ …등의 칭호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면 그 질문들을 전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열한째: 귀국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이 자기 나라에 귀국한 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개종자들은 가혹한 징계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그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은 무효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본 교회에서 돌보던 무슬림 출신의 성도가 귀국할 때는 그의 주소가 어디인지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며 그 부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양육한 한 사람의 무슬림 출신 개종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의 한국 정복 전략, 무섭다!

이만석

이슬람에게 속고 있는 한국

공산당보다 무서운 무슬림 대한민국 정말 심각하다.

이슬람 인구가 세계 인구의 1/4에 육박하고 17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매일 무슬림들의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어느새 한국에 들어와 세력을 형성하여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혹자는 무슬림들이 우리 중에 많아지면 우리가 중동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웃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라(꾸란8:39)고 명하고 있으며,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지옥에 갈 위선자들(꾸란4:237-145)이라고 한다.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거짓 홍보전이다.

이슬람에는 타끼야(Taqiyya)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는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무슨 거짓말이나 맹세를 해도 좋다는 것이다(꾸란2:225, 꾸란16:106 등) 한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고 하는 학압두 박사는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되며(꾸란2:229) 이혼하는 법을 알려 주는 이혼장(꾸란65장)도 있다.

꾸란에 불신자들의 목을 치라는 구절(꾸란8:12, 꾸란47:4)들 때문에 열심히 무슬림들이 매일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 소위 이슬람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며 타끼야 교리를 적용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까지 혐오스러운 부분을 숨기고 타끼야를 적용해 미화시켜 한국어로 번역 출판해 놓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BS를 비롯해서 학생들이만 보는 EBS교육방송 뿐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 SBS등 공중파 방송들이 앞다퉈 이들의 거짓말을 대신 홍보해 주고 있고 순진한 국민들은 별생각 없이 속고 있다.

둘째 아랍어 공교육화 운동이다.

이슬람의 언어는 아랍어이다. 1972년 리비아 주재 이슬람 종교성에서 발표한 선교 전략 중 둘째 항에 보면 “아랍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아랍어를 각급 학교에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무슬림들은 2005년부터 아랍어를 대학 입학 수능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는 전략에 성공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랍어가 수능 과목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난이도가 쉬워 아랍어에서만 백 점짜리가 쏟아져 나오자 학생들은 쉽게 고득점을 얻기 위하여 8개

언어 중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2013년 수능 시험 때는 45.8%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무슬림 교수들은 인기 좋은 아랍어를 공교육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마다 아랍어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천 명의 아랍인 무슬림 선교사들을 교육부 재정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들은 성적이라는 칼자루를 잡고 학생들을 손쉽게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슬람화는 순풍에 돛단배처럼 급진전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과서를 통해서다.

이슬람권에서 장학금을 받아 박사 학위를 받아 온 한국인 무슬림들이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미화된 이슬람 사상을 주입시킨다. 심지어 모 대학 아랍어과에서는 수강생들 모두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암송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또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해마다 중·고등학교 사회 및 역사 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미화된 홍보용 이슬람을 소개하고 가르친다. 그들은 “듣고 보니 좋은 종교군요!”라면서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호감을 느끼도록 대신 홍보해 준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꾸란을!”이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새겨 넣을 정도로 명백한 이슬람의 핵심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슬림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미 이런 혐오스러운 표현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넷째 결혼 출산 전략을 통해서다.

이것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확실히 성공했던 방법이다. 민주 사회는 모든 것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다처에 낙태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 덕분에 압도적인 출산율로 숫자가 급증하는 무슬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을 배출하여 헌법을 이슬람 율법으로 대체하면 전쟁도

하지 않고 이슬람 국가가 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유럽에서 이슬람 국가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슬림들이 한국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면 본국의 처자식을 초청하여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그때 한국 여인은 법적으로 이혼하고 동거하면서 본처를 호적에 등재하여 국적을 받게 한다. 아내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알라께서 허락하신 일부다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국인 아내가 본처를 초청하여 동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미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혼하고 본처를 데리고 와 같이 살아도 항의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한국 아내는 한낱 국적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다섯째 할랄 식품을 통해서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허락된 것을 말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 17억 무슬림들을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너도나도 할랄 인준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매스컴에서는 이것이 공인된 웰빙 식품이라든지 위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며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지켰느냐의 문제이지 위생이나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랄 식품은 짐승이 죽을 때 메카를 바라보며 죽어야 하며 목을 칠 때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샤리아’라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도 와서 사 먹는다는 점이다. 오직 원리주의자들만이 샤리아를 철저히 지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것은 무슬림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슬람 율법을 정작 우리가 철저히 지킬 것이니 물건을 팔아 달라며 원리주의 무슬림들에게 돈을 바치는 행위라고 본다.

여섯째 모스크 및 이슬람 학교 건립을 통해서다.

이슬람의 모스크는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모스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이웃 마을을 공격하라는 전쟁을 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지할 때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테러 계획을 세우는 본부 역할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종종 이슬람의 자금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 중에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거나 이교도들에 대한 중오를 가르치는 것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일곱째 수쿠크(이슬람 채권)를 통해서다.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받아들여자는 것은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유치하여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테러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진정한 무슬림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 하는 자들이라고 꾸란이 말하고 있다(꾸란49:15). 생명을 바쳐 지하드 하는 방법을 테러라고 한다면 재산을 바쳐 지하드 하는 방법이 이슬람 금융으로 유희하는 수쿠크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그 핵심인데, 현재 이슬람권의 은행에서는 모두 이자를 주고받고 한다.

그러나 진짜 큰돈을 가진 원리주의자들은 은행에서 율법이 금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예금을 하지 않는다. 은행은 이들의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특별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원리주의자'임을 선언하는 행위이며 이들은 이자에 관련된 율법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들은 손을 자르고(꾸란5:38)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살해하라(꾸란9:5) 등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 하는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국가에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다.

다문화 정책이란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21세기에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 주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정책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엄청난 테러가 발생하여 수천 명이 살해되었을 때, 유럽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정책으로 무슬림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최선의 복지를 제공했으니까 유럽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매우 순진한 착각이었다.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3개 열차 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05년 7월 영국 런던의 3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테러는 약 25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00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전국적 무슬림 폭동으로 8,973대의 차량이 불탔고 프랑스 정부는 결국 3개월간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유럽의 정상들은 다문화 정책은 무슬림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포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의 무서운 흥계를 모르고 다문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슬람의 세력이 유럽처럼 커졌을 때 서울 지하철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무슬림들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은 타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위장하여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힘이 생기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점령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며 중국의 신장성,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 태국의 남부 3개 주, 나이지리아 북부 등 세계 곳곳에서 이 계획은 진행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2005년에 한국인을 포함하여 15만 명이라고 발표했

는데 2009년 발표를 보니 20만 명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09. 8. 12.). 4년 사이에 5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슬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력을 늘려 나가는데 우리가 그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미화된 그들의 홍보자료만 보면서 속고 있으면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유럽처럼 이슬람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미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때문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일을 적극 홍보하여 그 위험성을 알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이슬람

이만석

2015년에 대한민국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 었었다. 교과서는 장차 우리의 조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뇌리에 기초 지식을 주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슬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첨단 과학을 발달시켜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가던 유럽인들이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이슬람의 정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슬람 학자들의 미화된 거짓 정보만 배운 덕분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이슬람이 미화되어 홍보되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장차 국가 안보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슬람이 평등교리를 주장함?

교과서에는 “이슬람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리를 내세웠으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여 주었다. 카스트제의 차별에 시달리는 인도인 중에서는 점차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천재교육 262쪽, 267쪽, 282쪽, 금성출판사 281쪽, 285-286쪽, 362쪽 등).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슬람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에 평등사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순진한 학생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화시켜 놓았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도 이슬람에 평등사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 내용 중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여 주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슬람교를 미화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지즈야(Jizya)라는 특별한 세금이 있다(꾸란 9:29). 이는 비무슬림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는 평등이 없었다는 증거다. 이것을 개종만 하면 세금을 줄여 주었다고 미화시켜 놓았다. 문장만 보면 개종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특혜가 아니라 비무슬림들에게만 부과했던 지즈야(인두세) 납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슬람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평등이 없다. 상속도 여성은 남성의 1/2만 받아야 하고(꾸란4:11) 법정에서도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증언의 1/2의 효력을 갖는다(꾸란2:282). 이것은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실제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의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면 이슬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심지어 금성교과서 287쪽에는 “이슬람에서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찾아보자”고 질문함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슬람은 평화와 관용의 종교라고 각인시켜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 증거들을 찾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과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돕는 것이 된다.

부정에 긍정으로 ‘몰타기’

교과서 내용 중 이런 것이 있다.

이슬람교도가 늘어나면서 힌두교도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문학 작품이 아랍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천재 262쪽).

이슬람교도가 늘어나면 타 종교인들을 멸시하고 친구로 삼지 말라는 꾸란의 가르침(꾸란4:144, 꾸란3:28, 꾸란5:51)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인도의 문학 작품이 아랍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는 말로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식으로 희석시키고 있다. 무슬림들과 타 종교인들과의 갈등은 목숨이 달린 잔인한 핍박이며(꾸란9:123, 꾸란8:39, 꾸란9:5) 문학 작품 번역 정도의 업적(?)으로 희석시킬만한 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관용 정책(?)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여러 차례 들어가 있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영토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데에는 종교적 관용 정책과 우수한 문화와 함께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천재 267쪽, 303쪽, 금성281, 285-286쪽, 326쪽 등).

이슬람에서 종교적 관용 정책이란 꾸란에 의하면 존재할 수가 없다(꾸란 3:118-119, 꾸란8:55). 이슬람을 믿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정책이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무슬림들에게만 지즈야(Jizya)라는 세금을 부과시켰다는 말이다. 이것은 비무슬림들의 목을 자르지 않는 대가로 세금을 내면 무슬림보다 열등하여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 ‘2등 시민’(Dhimmi)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에 대한 보상도 다음과 같이 그 죽은 피해자의 종교 또는 성별에 따라 분배된다. 미국의 인권 감시단의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배상금이 차등 적용된다고 한다. 피해자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남성이면 배상금은 무슬림 남성의 절반이 된다. 기타 종교인(불교, 힌두교, 시크교, 정령 숭배자, 무신론 등)인 경우의 배상금은 무슬림 남성의 16분의 1이 지불된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이다(꾸란4:11).

미국 내무부에서 2006년도에 조사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에서는 바하이교를 믿는 사람들을 살해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문제에 예민한 21세기에도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법들이 이슬람권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슬람에 평등이 있다는 거짓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당장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이 된 이유

교과서에는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이 된 것은 무함마드가 처음 계시받은 밤 셋별과 함께 초승달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천재 268쪽).

이슬람에서 초승달을 상징으로 한 것은 원래 꾸라이시족의 신 알라가 달신(Moon god)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로버트 머레이 박사). 그런데 교과서 내용은 알라가 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만들어 낸 거짓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처음 꾸란을 계시받았다는 밤은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꾸란 97장에 설명되어 있다. 이 밤은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가지고 내려온 날이며 일천 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이라고 한다(꾸란97:3). 이슬람 학자들은 이 ‘권능의 밤’(라일라툴 까드르)은 라마단 달(이슬람력 9월) 27일경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원래는 라마단 달 마지막 10일 중 홀수인 날 중 어느 날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27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력은 음력으로서 달(moon)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일 무함마드가 진짜 ‘권능의 밤’(음력 27일)에 처음 계시를 받고 나서 하늘의 달을 봤다면 초승달이 아니라 그믐달을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지역에 살던 꾸라이시족의 신 알라가 월신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을 교과서에 등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문명(?)

교과서 내용 중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이슬람의 학문은 유럽으로 전해져 근대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천재 269쪽, 금성 288-289쪽). <신의 용광로>(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 저, 이종인 역)라는 책은 이슬람 문명을 찬란한 최고의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 과연 찬란한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주후 570년에 태어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주후 610년 자신의 종족신 알라(Allah)를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다가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주후 622년 메디나(Medina)로 이주하면서 창설한 종교다. 그는 메디나에 온 지 채 2년이 안 되어서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등극하였다. 그는 아라비아 제2의 도시 메디나의 통치권을 쥐고 처음 맞은 해인

주후 624년부터 군사력과 정치적 힘이 생기자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Nadir족, Quraiza족, Khaibar족)을 살육하고 유목민들을 학살하고 군사력을 키워 630년 메카의 항복을 받아내어 아라비아반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주후 632년 무함마드 사후에도 칼리프들을 통해서 칼의 정복 역사는 계속되었다. 이들은 애초에 어떤 문화를 소중히 여기거나 문명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들이 파괴와 살육의 정복 행진을 했다는 것은 초기 이슬람 역사를 양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슬람 군대가 이란이나 이집트를 정복할 때의 피로 점철된 역사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함마드가 죽고 아부바크르가 첫 번째 칼리프로 선출되자 여러 종족들이 그를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많은 배교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아부바크르가 진두지휘하는 이슬람을 따르게 되었다. 심지어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인 정통 칼리프 4명 중 병들어 죽은 사람은 아부바크르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3명(우마르, 우트만, 알리)은 모두 살해되었다. 이슬람의 역사에는 항상 피가 흘렸으며 어떤 점령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문화나 문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보인 일이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IS(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점령지에서 인류 문화유산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슬람의 찬란한 문명이란 천문학, 삼각법, 아라비아 숫자, 그리스 철학 등이다. 그런데 천문학은 아라비아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혹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고 이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슬람이 천문학의 원조라면 정확한 태양력을 놔두고 왜 부정확한 월력(음력)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또한 삼각법은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의 탈레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주후 7세기에 무함마드가 만든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또한 아라비아 숫자가 이슬람의 산물이라니 황당할 뿐이다. 아라비아 숫자의 십진법이나 0(Zero)의 개념 등은 인도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것이 아라비아를 거쳐 갔다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지금도 아라비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1, 2, 3, 4 등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공용 숫자로 사용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이 왜 이슬람의 산물인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은 다 신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슬람은 유일신 철학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마치 이슬람이 만들어 낸 문명처럼 홍보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이슬람은 미술을 금기시한다.

그림을 그린 자와 그림을 소유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천사는 그림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Sahih Bukhari vol 3, book. 34, no. 318).

이슬람은 음악을 금기시한다.

간음과 음악과 음주와 남자가 실크(비단)옷을 입는 것을 허용하는 자들은 산이 무너져 죽을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돼지와 원숭이가 될 것이다(Sahih al Bukhari Hadith No. 5990).

이슬람은 이교도들의 시와 문학을 금기시한다(꾸란26:224).

이슬람은 조각을 금기시한다(꾸란5:90).

미술과 음악과 시와 문학과 조각 등을 제외하고 무슨 찬란한 문명을 말한다는 것인가?

이슬람의 역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관한 기사가 있다. 2대 칼리프인 우마르가 이슬람 세계를 통치하던 때 암르 알 아아스(Amr al-Aas) 장

군을 보내 이집트를 점령했다. 당시 이집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 그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발견했다. 역사에 의하면 거기에는 수십만 권의 책과 두루마리들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도서관의 책들을 어떻게 할까를 물었더니 우마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이 꾸란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라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꾸란과 다른 내용이라면 이단 문서이므로 파괴해야 한다.

이 명령을 받은 아아스 장군은 그 책과 두루마리들을 도시의 목욕탕에 떨감으로 주어 6개월간 모두 태워 없앴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천주교의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 역사를 2006년 1월 18일 그의 연설문에 인용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술, 음악, 조각, 시, 문학 등을 대하는 이슬람의 태도를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IS의 세계적인 고대 문화재 파괴 행위를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경전대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미화된 홍보자료를 생각 없이 교과서에 옮겨서 차세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보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

바드르 전투 미화

교과서 내용 중에는 바드르 전투에 대한 내용이 있다.

바드르 전투: 메카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메디나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금성 285쪽).

바드르 전투는 이슬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주후 622년 난민으로 메디나에 들어온 무함마드는 2년이 채 못 되어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통치자로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메디나 주민들의 경제를 살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농사나 수공업을 장려할 형편도 못 되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주변의 부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공격 목표는 자신을 추방한 꾸라이시족의 대상 무역상단이었다. 무함마드는 바드르(Badr) 계곡에 이슬람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다가 메카의 가장 큰 무역 상단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었던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무슬림들은 14명 죽었으나 메카 군인들은 70명이 죽고 패퇴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로 무함마드의 위상이 메디나 주민들 가운데서 높아지게 되고 무슬림들은 그의 명령을 철저히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경제 문제는 대상무역 상단을 공격하는 일과 주변의 군소 부족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무함마드는 생전에 624년부터 630년까지 6년 동안 27차례나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래서 메디나 주변에 평화롭게 살던 유목민들과 군소 종족들은 무함마드의 군대가 오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쪽을 택했다. 꾸란 8장은 ‘전리품의 장’으로 불리며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슬람의 포악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지하드의 의미

교과서에는 또한 “지하드는 위협을 받을 때 최후의 선택이다”는 내용이 등재되었다(금성 286쪽).

지하드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지하드가 없었다면 이슬람은 이

시대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상징에 보면 전쟁용 긴 칼이 많이 등장한다.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도 ‘이슬람의 신앙 고백과 전쟁용 칼’이 그려져 있다. 지하드가 이교도들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것은 꾸란의 일관된 개념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즉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과 양국 간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온 세계는 이제 곧 이슬람과 기독교의 화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암살당했다. 체포된 암살범은 이슬람권의 영웅이 되었고 이란에는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칼레드 이슬람 볼리’(Khaled Islamboli)라는 거리가 생겼고 그의 얼굴이 실린 우표까지 발행되었다. 그에게 암살을 사주한 알-아즈하르 대학의 ‘쉐이크 우마르 압둘 라흐만’ 교수는 법정에서 그를 죽이는 것은 꾸란의 지하드 명령을 실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관이 지하드는 영적이고 내면적 죄악과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세계 최고의 이슬람 신학교인 알-아즈하르 대학에서 평생 꾸란과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당신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꾸란 구절을 계시받은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꾸란 구절들을 외우자 법관은 그를 처벌하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 혐의로 석방하고 말았다. 지하드는 알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무슬림들이 싫어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꾸란2:216).

물론 한글 꾸란에는 성전이 허락되었다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미화된 오역이며 사실은 “지하드의 의무가 너희에게 부과되었노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직한 번역이다. 알라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라고 꾸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꾸란49:15).

이 외에도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교황의 주도권 욕심 때문이라고 왜곡시켜 놓았다든지 이슬람 부분을 기독교에 비하여 의도적으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

는 등 지적할 것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평등의 종교’니 ‘관용의 종교’니 ‘최고의 이슬람 문명’이니 ‘지하드의 개념’ 등의 문구는 사실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려야 우리 후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럽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문명을 발전시켜 놓았지만 이슬람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매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절대로 그런 실수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슬람의 실상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슬람 여인들의 인권 유린 실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평화와 평등의 종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조혼과 여성 할례 같은 반인륜적 악습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¹⁾

1. 조혼

시리아 난민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 조혼

안녕하세요? 유엔 난민 기구 방문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5월. 5월 하면, 5월의 신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5월의 신부란 말이 있듯이, 눈부시게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은 어여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들의 힘찬 시작을 찬란하게 축복해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다른 한 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하받는 행복한 축복의 결혼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결혼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어린 난민

1) 이것은 유엔 난민 기구 블로그(UNHCR)에 나온 글이다. <http://happylog.naver.com/unhcr/post/PostView.nhn?bbsSeq=55690&artclNo=123462110494&scrapYn=N>

소녀들이 결혼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조혼(Early marriage, pedophilia)이 그러합니다. 시리아 난민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면서 겪었던 위험천만한 위기를 무릅쓰고도 폭력과 가난 그리고 질병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사라져야 할 악습인 조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혼이란 무엇인가요?

조혼이란 혼인 대상자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혼인을 일컫습니다. 조혼은 어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혼은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혼은 가난과 신부의 몸값, 지참금, 조혼을 인정하는 문화나 법, 종교적 혹은 사회적 압박, 지역적 관습, 미혼에 대한 불안, 문맹, 혹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조혼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을 단절시키고,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움아맙니다. 조혼은 주로 조기임신이나 조기출산으로 이어지며, 이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큰 위협에 빠뜨립니다. 15세 이하 아이들의 출산에 대한 위험성은 일반 성인의 그것보다 다섯 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조혼을 강요당하는 아이들

요르단과 레바논, 이라크에 시리아의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 가운데 3,500여 명은 부모를 도중에 잃거나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격변과 불안, 스

트레스, 정신적 충격의 양상은 눈에 보이는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아동 노동 착취나 조혼, 성적 학대나 성매매와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난민촌에 머무는 시리아 난민 여자아이들은 성폭행과 조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사는 부호들은 매파를 통해 몸값을 주고 어린 신부를 찾기도 합니다. 시리아 소녀들은 훨씬 더 어렵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기도문을 외우며 뿌리치려 해도 매파들은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시리아에서 법적 혼인 나이는 여자 17세, 남자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여자 13세와 남자 16세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법적으로 제한한 나이 이하의 혼인에 대해 아무런 벌금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루어지는 조혼은 한 달에 약 80에서 120회 정도 됩니다.”라고 유엔 난민 기구 직원인 와이팅(Karen Whiting)이 밝혔습니다. 내전 이전의 시리아에서 조혼은 흔치 않았습니다. 남부의 다라(Daraa)와 같은 전통 부족에게 조혼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에 의하면, 3%의 시리아 소녀들이 15세 이하에 혼인을 하였고, 18세 이하에 결혼한 비율은 1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시민들이 내전으로 인해 타국으로 넘어와 난민이 되면서 조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시리아 공동체에 조혼이라는 행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은 이전 시리아에 있을 때 보통 받아들여지던 배우자 간의 나이 차가 지금은 훨씬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조혼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식적인 문서 없이 이루어지는 다수 혼인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 측에서 차후 지침금이나 혼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혼은 이른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타리(Zaatari) 난민촌에 머무는 한 여성은 혼인 두 달 만에 이혼한 경우도 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결혼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레바논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 트리폴리(Tripoli), 지중해와 모래사장의 해변을 따라 작은 산책로가 나있는 누르 휴양지(Nour resort)는 현재 55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난민촌이 되었습니다. 여름 관광객들을 위해 지어진 작은 아파트에서, 아미나(Amina)는 딸과 약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미나의 딸, 바툴(Batoul)은 올해 14살이 되었습니다.

아미나(35)는 “전 열네 살에 결혼을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일찍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여자아이들은 절대로 남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선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선 바깥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요. 할 일도 거의 없는 데다, 학교도 다니지 않으니깐요. 조금 걱정돼요. 딸아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바툴은 엄마 옆에 웃음을 잃은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바툴의 약혼자 모하메드(Mohammed)는 17살이며, 이 약혼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바툴은 조금 주저하다 약혼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혼은 사실 하고 싶지 않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툴은 “그렇지만 부모님이 결정하셨다”면서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나의 친구인 라비하(Rabiha)는 이곳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많은 난민 부모들이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라비하는 유엔 난민 기구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 현지 여성 위원회장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6, 17, 18살 정도에 결혼을 해요. 여기선 대부분 학교를 가지 않아요. 부모들이 성적인 부분, 특히 강간과 같은 위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4살의 여자아이를 정략결혼시켜요. 심지어 12살의 아이들까지도요.”

라비하는 아미나나 다른 어머니들이 딸들의 조혼을 강요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비하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비하의 설득은 열두 번 중 절반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다. 라비하와 여성 위원회는 유엔 난민 기구의 지원을 받아 난민촌 거주자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조혼은 젊은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가혹한 삶일 수 있어요. 제가 봐 와서 알아요.”라고 말하며, “학교도 다니지 않으니, 낙담하고 우울해져요. 아이들이 조혼을 하도록 놔뒀선 안 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 난민 여성들은 시리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시리아 난민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는 조혼이나 아동 노동 착취, 고립, 생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조혼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분류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혼인은 그들의 유년기를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난민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조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사진 참조).

어린 난민들은 살기 위해 강제적으로 혼인을 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혼에다 자신의 미래를 거는 어린 난민 소녀들은 이른 이혼이나 폭력, 혹은 조기 임신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나이 든 배우자가 아닌 교육이며, 아이들은 신부가 아닌 학생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난민 아이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11살 예멘 소녀의 절규²⁾

국제부에서는 미국 CNN 방송이나 AP 통신 등 외신 뉴스를 보고 듣는 것과 더불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도 세계 각지의 소식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 영상들을 보던 중 한 소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언가 말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눈빛이 보통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차고 야무지면서 고집도 있어 보이는 눈빛. 3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쉽게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나다 알 아달. 중동 지역 국가인 예멘에서 살고 있는 올해로 11살이 된 소녀입니다. 나다는 얼마 전 강제로 한 남성에게 시집보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나다의 분노와 경고, 세상을 향한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중동미디어연구소의 이름으로 올라온 이 동영상에서 나다는 “강제로 결혼시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분 50초 동안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폭포수처럼 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와 세상을 향한 분노인지, 조혼(혼인 적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인 연소자가 일찍 혼인하던 풍습)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안도감 때문인지 나다는 마치 1인극에 출연하는 배우처럼 실 새 없이 말을 토해냅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910만 번의 조회 수를 기록한 ‘나다의 인터뷰 동영상’입니다.³⁾ 나다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던지 처음 영상을 봤을 때보다 조회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동영상의 조회 수는 70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현재는 900만을 넘음).

2) 이것은 SBS 국제부에서 전한 소식이다. <http://news.zum.com/articles/8095860>

3) https://www.youtube.com/watch?v=-J7_TKgw1To(제목: 11-Year-Old Yemeni Girl Nada Al-Ahdal Flees Home to Avoid Forced Marriage: I'd Rather Kill Myself)

조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우리나라와는 지리와 문화 모두 가깝지 않은 중동의 나라 예멘. 나다의 동영상이 잘 잊히지 않아 예멘의 조혼 문화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역시나 악습은 뿌리가 깊은 법,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살이 안 된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지난 2009년 예멘 의회를 통과한 상태였지만 나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배경도 특이했습니다. ‘조혼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던 예멘의 10살 소녀 누즈드가 20살 많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인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10살 이혼녀’ 누즈드의 이야기는 국내에도 자세히 소개됐고 책으로도 번역돼 있습니

다). 예멘 사나 대학의 성개발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예멘 여성의 52%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멘의 조혼 문화가 이미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멘 보수파들은 결혼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조혼금지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법안이 통과될 당시 야당 의원 모하메드 알 하즈미는 “우리는 더 어린 여성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 어디까지나 가족의 몫이 되어 하며 이를 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즈미 의원은 또 “결혼 적령기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땐 12살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5살 정도가 적합하며, 새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혼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만약 개입한다고 해도 15살부터는 결혼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슬람과 개도국의 조혼, 해결책은?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인구 기금(UNFPA)이 지난해(2012년) 제1회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조혼한 여자아이의 절반가량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이며 5분의 1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입니다. 아시아의 빈민국 방글라데시의 조혼 비율은 66%, 아프리카 니제르는 77%에 달합니다. 유엔 인구 기금은 최근 중남미와 중동, 동유럽 등에서도 조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도국 소녀들의 경우 조혼 풍습 때문에 제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성인 여성보다 쉽게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개도국 10대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출산과 관련 있다는 유엔 여성 기구(UN Women)의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나다의 나라인 예멘에서는 지난 2009년 12살 소녀가 아이를 낳다가 끔찍한 산통 끝에 사망해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조혼이 소녀들의 교육 기회와 건강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라는 것은 굳이 유엔 기구나 해외 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안타까운 건 관련 개도국의 조혼 문화를 없앨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연구원 가우디 반 굴릭은 “각국 정부가 유엔 권고 기준인 만 18세 정도로 결혼 가능 연령을 법제화해야 하며, 이미 결혼한 소녀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모가 돈을 받고 어린 딸을 팔아넘기는 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서 행해졌던 풍습입니다. 예멘과 같은 세계 최빈국에서 조혼이라는 폐습이 없어지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 누즈드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이번에는 나다가 유튜브를 통해 당당히 외쳤듯 사회의 굴레와 틀을 깨려는 용기와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시기가 당겨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녀들의 외침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날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다는 현재 예멘 여성 보호 단체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나다의 삼촌인 아브드 알 살람은 아랍방송 TV 알후라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파들이 여전히 조혼금지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나다의 이번 사건이 조혼을 금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다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차라리 나다가 이 사건이 가라앉을 때까지 예멘을 잠시라도 떠나있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파들이 자신과 나다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영상의 끄트머리에서 나다는 이번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데 대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모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는 11살 나다의 울분에 가득 찬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다의 바람대로 예멘에서 조혼이라는 악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벌어진 즐거운(?) 축제

무함마드는 여섯 살짜리 신부와 결혼했다. 그런데 사실 이슬람은 1,500년 동안 그것을 발전시켰다. 이슬람 하마스의 땅에서 2009년 8월 2일에 450쌍의

결혼이 있었는데 신부들은 대부분 일곱 살이었다. 450명의 새신랑들이 가자(Gaza)에서 10세 미만의 소녀들과 결혼했다.⁴⁾

가자에서도 즐거운 축제가 있었다. 이것은 하마스가 지원하는 450쌍의 합동결혼식이다. 신랑은 대부분 20대 후반이고 신부는 대부분 10세 미만이다. 무슬림 고위 인사들 예를 들면 하마스의 지도자 마흐무드 자하르도 정성스럽게 마련된 경축 행사에 동참한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거들었다. 자하르는 똑같은 검정 양복을 차려입은 새신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온 세계와 미국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행복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 모두 나와 환호했다. 새신랑들은 하마스로부터 미화 500달러씩을 받았다. 사춘기에도 이르지 않은 소녀들이 현란하게 화장을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의 꽃다발을 받았다.

지역 하마스 세력가인 이브라힘 싄라프는 연설을 통해서 “전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직면하여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 결혼식을 준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제 여성 연구 센터에서는 현재 세계에 오천백만 명가량의 어린 신부들이 살고 있다고 추산하는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무슬림 국가에 있다. 이 어린 신부들의 29% 정도는 이집트에서 정기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으며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26% 정도는 요르단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4) <https://www.youtube.com/watch?v=RYmtaXQHEtw>(제목: Hamas organises mass wedding in Gaza - 2 Aug 09). <http://www.snopes.com/photos/politics/masswedding.asp>

2. 여성 할례

여성들을 확대하는 의식 중 하나는 여성 할례이다. 여성 할례는 ‘여성 성기 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으로서,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세계 보건 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약 1억-1억 4,000만 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일 6,000여 명의 소녀들이 할례 시술을 강요당하고 있다. 여성 할례는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이민 온 이들 가운데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2003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무슬림 여성 17만 명이 이 수술을 실행하였다. 이 수술의 위험성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은밀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현재 영국의 11세 이하 어린이들 가운데 24,000명의 여자아이들이 수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수술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할례 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여성의 할례는 남성의 할례처럼 포피만 절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음핵이 제거된다. 여성 할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대한 결정권이 없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하여 강제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원이나 청결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야(Daya)라는 전통적인 할례 시술자가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면도칼이나 유리 조각 등으로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서, 많은 여성이 수술 도중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감염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또 수술 중에 과도한 출혈로 사망하기도 한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 의하면, 여성 할례는 산모가 출산 시 태아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은 이슬람 율법이 규정한 여성 할례 의식 규정이다.

여성들이 언제부터 할례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성 할례는 중부 이북 아프리카에서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서부 사하라를 제외한 국가들(베냉, 부르키나 파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소말리아, 수단, 토고, 이집트)과 아라비아반도의 남부 지역(예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다.

예멘 해안 지역 주민 중 96퍼센트의 여성이 할례를 행하고 이집트는 97퍼센트 이상 이 할례를 한다. 터키, 이란, 삼 지역(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 할례가 행해지지 않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10~27세 사이에 있는 7,000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할례를 한다고 한다.

일부 무슬림들은 알라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시켰다. 이슬람 초기 수니파 법학자들은 할례가 의무냐 혹은 관례냐, 그리고 남아뿐만 아니라 여아에게도 해당되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샤피이파(수니파의 4개 법학과 중의 하나)들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할례가 의무라고 규정하였으나 이집트의 말리키파(수니파의 4개 법학과 중의 하나)는 무슬림들에게 할례는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그것도 의무가 아닌 관례라고 했다.

샤피이파들은 할례를 마치 남자들이 공석에 나올 때 수염을 깎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성 할례는 아주 소수의 하디스에만 기록되었다. 여성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할례의 핵심이 피부를 자르는 것이므로 여성과 그의 남편을 위하여 너무 많이 자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다르게 할례를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태어난 지 7일째, 10일째, 13일째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다.

이란과 같은 시아파들은 이브라힘과 무함마드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믿고 모든 무슬림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Joseph w. Meri, Medieval Islamic Civilization, 2006. 1)이집트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이 할례를 해야 했고 이브라힘도 이집트에 온 다음에 할례를 했다고 한다. 이브라힘과 루뜨(롯)가 이집트의 알미나 근처 바니 하산 지역에서 5년간 살았다고도 한다.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출신 무슬림 사아드에게 물어보니 “할례는 이슬람의 청결에 속하는 것으로 남자는 대개 한 살이 되기 전에 모두 할례를 하고 여자는 12~13세가 되면 할례를 한다.”라고 했다. 또, 이집트인들이 할례를 ‘후후르’ 혹은 ‘따하라’(청결)라고 부르는 것은 할례가 이슬람이 규정한 청결 의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따하라라는 단어를 할례의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할례를 ‘카프드’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나온 여성의 생식기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인상을 주므로 이 용어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오늘날 이집트인들 대부분은 여성 할례를 결혼과 부부 관계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하산이란 무슬림은 여성이 할례를 받으면 “조용해진다(아랍어로는 ‘후두으’이며 남편에게 잠자리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라고 했다. 일부 무슬림들은 여성의 할례가 이슬람 율법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집트에서는 1979년 가족 계획 협회의 주관으로 여아의 할례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1990년에는 아동 권리의 국제적 합의문에 따라 여아 할례를 아동의 성적 오용 내지는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1993년 연구에서는 매년 세계 200만 명의 여자아이가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에서의 할례가 전체 건수의 50퍼센트에 해당되었다. 여아 할례는 나일강 유역을 따

라 그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져 나갔고 이들 지역에 사는 무슬림 여성은 물론 일부 기독교(이집트)와 유대교 여아(에티오피아의 팔라샤 유대인)도 할례를 했다.

여아 할례는 종교와 상관없이 없다고 했으나 무슬림 남자들은 여성을 유혹(가와야)의 상징으로 보았고 따하라는 소녀들에게 욕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준다고 생각했다. 또 여아 할례를 하지 않으면 여아가 남성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음핵을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거위의 목처럼 길어진다는 말도 전해졌다. 이집트인들에게 음핵과 소음순은 여성의 몸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통념이 자리를 잡아 갔다. 실제로 이것들을 더러움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할례를 하지 않은 여성이 만든 음식은 깨끗하지도 않고 맛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 여성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불임이 된다고 믿기도 하고 만일 남편이 그곳을 만지거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곳을 만지면 그 남편과 아이가 죽게 된다는 낭설도 퍼졌다. 이에 비해 할례를 하면 혼전에는 여아가 순결을 지킬 수 있고 결혼 후에는 오직 남편에게만 정조를 바칠 수 있도록 여성의 성욕을 막아 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흥분과 욕정을 막아 주고 죄를 짓거나 잘못된 짓을 안 하게 된다고도 믿었다. 그래서 무슬림 여성은 정숙한 여성의 요건으로서 할례를 하였고 만일 할례를 하지 않은 소녀는 그 지역 사회가 받아 주지 않아 혼인이 불가능했다.

특이한 점은 무슬림들이 여성의 생식기를 종교와 관련시켰다는 점이다. 이집트는 나일강 변에서 자연신에게 제물을 드리곤 했는데 다산의 신에게 여성의 생식기를 잘라 바치며 땅에 묻거나 나일강에 던졌다. 그래서 여성 할례는 수확 절이나 나일강 홍수 때 행해졌고 여성들은 매달 나일 강을 찾았다. 이집트에 이슬람이 들어왔으나 이런 관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일부 무슬림들은 여아 할례는 ‘순나(관례)’라고 하여, 음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르거나 혹은 음핵과 소음순을 자르는 것을 당연시했다. 무슬림 남성은 혼인 지참금을 신부에게 주어야 하므로 혼인을 경제적인 거래로 간주했다. 여성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여성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성은 할례 중이나 부부 관계 중 고통스럽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했고, 여아가 할례를 받으면 부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며, 이웃은 이 가정을 방문하고 선물을 갖다 주었다. 이런 여아 할례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수입원이 되고 특히 일부 이슬람 웨이크들이 여아 할례를 이슬람 법적으로 '할랄'(허용)이라고 한 것이 오늘날 이집트에서 여성 할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여성 할례가 이슬람 율법이나 아니냐를 놓고 무슬림 웨이크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1996년 이집트 정부는 여성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런데 2010년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시골과 나일강 지역, 사이드(이집트 남부) 지역 그리고 도회지 사람들 중 4~10세 사이의 무슬림 여아와 일부 기독교 여아들이 할례를 행했다. 반면 북쪽 지중해 해안가인 마르사 마뜨루흐의 유목민들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할례를 사춘기, 결혼 등과 같이 통과 의례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금지해도 여전히 국민들이 여성 할례를 시행한다.

무슬림 여성들에게 순결은 중요한 덕목이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유럽 무슬림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슬람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벨기에 국회의 엔트위즈 상원 의원은 벨기에에서 여성 할례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살해 위협을 받고 중단하였다. 이슬람식의 음핵 절개는 전 세계 28개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성 약 17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할례를 받았다. 여

성 할례가 1985년부터 영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자 2003년에 더욱 강화됐다. 유니세프(unicef)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2천 5백만 명의 여자 어린이 및 어른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크리스천투데이,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 증가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2016. 1. 1.)

ISIS, 400만 여성에 '할례' 명령... "선물로 생각하라"

이라크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수니파 무장 단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가 점령 지역에서 40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에게 성기 일부를 절제하는 '할례'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 24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ISIS는 점령지인 북부 도시 모술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11~46세의 여성들에게 할례할 것을 명령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400만 명의 여성들이 할례를 당할 위협에 처했다.⁵⁾

유엔의 이라크 주재 인도주의 부조정관인 재클린 배드콕은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제네바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ISIS는 이를 부도덕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면 심각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라크, 특히 이 지역 일대에선 매우 새로운 것으로, 꼭 다뤄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라크인이나 이 지역 여성들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쿠르드 언론매체 '베이스뉴스'(BasNews)는 지난 23일 "할례 파트와는 '이슬람 국가'의 칼리프를 자처하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지시이다."라며 "이를 모술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할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관습이 아니었다. 북부 이라크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쿠르드족만 할례 관습을 이어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소셜 미디어를 타고 ISIS가 시리아 알레포 등지에서 할례

5) 헤럴드 경제(2014년 7월 25일)

파트와를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일반적으로 할례 관습은 이집트와 수단, 동아프리카에서 여성의 성인 의식으로 주로 이뤄진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3,000만 명의 여성들이 할례를 거친 것으로 추산된다.

할례를 치르는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대부분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 위험이 크다. 심하면 불임이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유엔아동기금은 지난 22일 영국 정부 주최로 열린 ‘여성 할례와 강제 결혼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여성 할례를 이번 세대 안에 없애는 내용의 국제 헌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ISIS를 지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여성 할례는 神의 뜻 아니죠… 전 세계 2억 명이 고통 받아”

2016년 2월 6일 조선닷컴

아프리카 소말리아 여성들은 세 겹의 고통을 이고 산다. 극심한 생활고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이 남녀 공통의 수난이라면, ‘전통 성인식’이라는 명분으로 아이의 성기 일부를 자르고 꺾매는 이른바 ‘여성 할례’는 여성들만의 고통이다. 전 세계 30개국 2억 명의 여성이 피해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2월 6일을 ‘여성 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할 만큼 심각한 인권 문제다. 소말리아는 여성의 98%가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NGO 월드비전 소속 님코 에이드 어와레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생생해요. 일곱 살 적이었죠. 큰 가방을 들고 와서 날 억지로 눕히던 친척들. 그 고통이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몸에 지속되고 있어요.” 그녀가 전하는 여성 할례의 부작용은 ‘참상’ 수준이다. “할례를 한 여성들은 출산할 때 더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자르고 꺾매니 몸 안쪽 관(管)에 이상이 생겨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악취를 풍겨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5년 전 병균에 감염된 열한 살 소녀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이슬람의 유럽 및 미국 정복

With Open Gates: The forced collective suicide of European nations¹⁾

이 글에서는 현재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슬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먼저 접하고도 하나님을 저버린 유럽과 미국은 이슬람의 공포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물려옵니다.

순서는 복음이 전달된 그대로입니다.

유럽, 미국,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유럽 및 미국의 교회들이 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의 공포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 영상은 2015년 11월 9일 유튜브에 게시된 뒤 약 2주 만에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2016년 1월 16일 650만 클릭). 이

1) <https://youtu.be/LZHBi5SLzqw>, 유튜브에서 '벨른 집단 성폭력 현장, 경찰도 통제 불능 상태였다 / YTN' 검색, <https://youtu.be/ZAbiQDXOG5s>, 'IS 대원 4천여 명, 난민에 섞여 유럽 잠입' / YTN

슬람의 공포가 무엇인지 영상에 담긴 저들의 절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알



이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와 비견될 만한 탈출 행렬입니다.

기 어렵기 때문에 한 형제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해 자막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글로 올립니다.²⁾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쪽 읽으시면 유럽에서의 이슬람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인권과 감상주의로 처리한다면 후대가 감당할 수 없는, 뼈아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흑시라도 더듬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흑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행17:26-27).

그런데 이슬람 난민 사태처럼 국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한곳으로 모이면 바벨탑에서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략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로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대적할 것입니다.

2) Jay Lee 형제님의 번역. <http://fingerofthomas.org/welcome-fingerofthomas/> 참조 바람.

국경의 문들이 열리며 유럽 민족들의 강압적인 집단 자살이 시작되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풀밭 사이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해설자 : 독일은 2015년 말까지 엄청난 숫자의 난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15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설자 :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집트 탈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것과 비길 만한 거대한 탈출 행렬입니다.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에 갇혀 있던 이민자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약속의 땅 독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설자 : 다른 쪽의 비극은 이 행렬이 유럽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럽인 이민자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유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막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 유럽 여인의 절규

우리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과 그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 왔어요. 피해자는 우리들이지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빼앗아 가버린 우리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야 해요.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들을 여기서 데려가야 합니다. 여기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저들 같은 사람들이 살 장소가 아닙니다.

이슬람 지도자의 군중 독려

그들(유럽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 그들은 번식력을 잃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인구를 늘려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저들에게 인구를 제공하고 저들과

우리 자녀들을 키워 줄 것이다! 난민들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새로 올 칼리파의 이름으로 저들을 모을 것이다!

약탈 장면. 이슬람 난민들이 뛰어서 몰려간다. 그러고는 외친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독일! 독일! 독일!

이슬람 난민들이 몰려가며 경찰들과 싸운다.
유럽의 원주민들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슬람 난민들과 경찰들이 계속해서 싸운다.
이슬람 난민들의 약탈과 방화, 경찰들과의 몸싸움이 계속된다.

해설자 :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치적 기구가 지금처럼 바뀐다면 5, 10, 20년 후에 독일에는 몇 명의 독일 사람이 남을 것이며, 프랑스에는 몇 명의 프랑스 사람이, 영국에는 몇 명의 영국 사람이 남을 것인가?

다른 해설자 : 프랑스 작가 카뮈(Renaud Camus)는 이런 인구 유입을 ‘거대한 교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것이 15세기 이후 프랑스에 일어난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 목표가 무엇이죠? 목표는 유럽 연합 안에서 ‘인종 간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개입해서 더 강제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혁해야 하며 그렇기에 변화할 것입니다.

역사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감상주의에 빠질 때 나라가 힘을 잃고 결국 망하게 됨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여자 해설자 : 20년 전에 누가 프랑스 백인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결국 소수 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런던은 인종적으로 아주 다양해져서 이제 백인들은 이곳에서 소수입니다. 버밍햄에서 백인 가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 인종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는 무슬림입니다(참고로 현재 영국은 인구의 1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현재 런던에서 신생아에게 붙여지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은 정치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프란은 벨기에 법을 이슬람의 샤리아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도범은 손이 잘리고, 간음한 자들은 돌에 맞으며 동성연애자들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한 무슬림
만약 불신자들이 우

리를 몰아내고 싶다면 네 명의 아내를 두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 보세요. 그것부터 실천하면 가능할지 모르죠.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해설자 : 무슬림 이민자가 노르웨이에 가져다준 또 다른 것은 소위 강간 전염병입니다. 최근 경찰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사례의 100%가 다 비유럽인 이민자 남성에게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노르웨이 현지 여성이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정

해설자 : 스웨덴 사람들은 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일부와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과의 신

경전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스웨덴 여인과의 인터뷰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죠?

“무슬림 인구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해설자 :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우리는 그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을 받는 흐름 말입니다.

다른 해설자 : UN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5년 이내에 리비아와 불가리아보다 못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슬림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한다.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여기는 당신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나라는 당신의 것, 우리나라는 당신에게 속해 있어요.

무슬림의 항변

승리를 위한 다른 길은 없다! 알라를 위한 순교와 지하드를 제외하고는!!

해설자 : 이 계획에 반대하는 스웨덴 사람들은 인종 차별주의자, 파시스트 심지어 나치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슬림 혁명가들이 파시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의 집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공격 영상 중 하나입니다.

난민 수용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나치야 꺼져!”라고 외친다.

독일 관리 : 만약 여러분이 다문화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독일을 떠나셔도 됩니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우리는 반드시 나치의 정책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33~1945년
까지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오! 그건 그렇고 매년 새로 태어나는 독일인보다 죽는 독일인이 더 많습니
다. 이는 어찌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나치들 역시 자식을 낳는 것에 익숙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에게 의존
해야 합니다.

다른 해설자 : 스웨덴의 이민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습
니다. 만약 스웨덴 사람이 로젠가르드에 가면 다른 무슬림들의 눈을 감히 쳐다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뭘 봐?'라고 하며 폭행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들이
스웨덴 사람들을 발견하면 귀를 자르고 그의 차를 부수고는 여기서 당장 꺼지
라고 합니다. 스웨덴 학교의 시험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로
인해 일부 지역의 범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 : 저는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라마단이 갖
는 공통적인 가치 그리고 영국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 것을 알아
주기를 원합니다.

무슬림들의 행진

영국은 지옥으로 가
라! 영국 경찰은 지옥으
로 가라! 타크베! 알라!

영국 여기자 :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는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시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하노버

한탄하는 여성 목소리 : 메르켈 수상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파멸로 갑시다.

메르켈 독일 총리

제 생각에 여러분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워프 대통령은 이슬람 사람들이 독일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이 독일 사람을 가리키며

너희는 무슬림이 될 거야! 너희 애들은 무슬림이 될 거야! 너의 아들은 무슬림이 될 거야!

네덜란드 로테르담 뉴스

16년간 적어도 1,400명의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강간당하거나, 인신매매당하거나, 폭행당했고 심지어 휘발유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전부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영국 캐머런 총리 : 해피 라마단!

이슬람 지도자 :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유럽으로 이민을 간다. 반면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싫어하는 유럽은 100명의 인구가 80명으로 줄고, 10년 후 80명은 60명으로 줄고, 그 60명이 나중에 40명이 되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영국 국민당 의견

그 이후, 좌익과 자본주의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연합은 우리를 고향으로부터 쫓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민과 타 인종 간의 결혼을 장

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민자 노리개들을 임시 노동자로 데려왔고, 다민족 실험을 수행했으며 그리고 이제는 난민들을 데려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핑계, 다른 거짓말입니다. 진짜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국 민족 대량 학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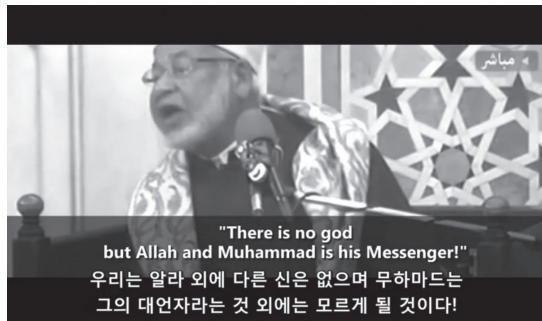
유럽 의회

여성의 발언 : 당신은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책은 진지합니까? 아니면 그냥 큰소리만 치는 겁니까?

남성의 반박 : 큰소리만 친 건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바다를 건너올 수 없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은행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

시간이 지나면 유럽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대언자라는 것 외에는 모르게 될 것이다!



독일로 가는 기차에서 무슬림들

알라가 그들(유럽인)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 주기를!

알라가 그들의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게 해주기를!

알라가 모든 곳에서 이슬람에게 승리를 주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함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분쟁 지역인 시리아에서 왔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세네갈, 알바니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 : 여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먹고 자기만 하고 아주 느린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해설자 : 살자우는 36명의 주민이 있는 스위스 홀스타인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정부는 320명의 이민자들을 이 마을의 빈 성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건물은 아주 장엄합니다.

무슬림 난민 :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합니다. 음식도 형편없습니다. 이걸 개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해설자 : 이 시리아 난민은 과일주스에 설탕이 15퍼센트나 들어 있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이런 불만들로 인해 1월부터 바이에른주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슬림 : 저는 돈을 원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시리아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서요.

해설자 : 이 이민자는 난민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여기가 난민들이 살기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온 이유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을 위한 노래 찬치

난민들을 위한 목소리! 오늘 이 무대에는 콘치타 월스트입니다.

무슬림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주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걸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나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비아나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왔어요.

들어와 봐요. 형편없습니다. 아래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걸 좋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저는 이 이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봐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남자와 더구나 매우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강한 젊은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1등급 군인들 같습니다. 유럽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독일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메르켈이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가 한 일은 미친 짓입니다. 모든 종류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해설자 :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말인가요?

트럼프 :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무슬림들

우리는 여기에 머물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 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인종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겁을 먹

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많고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더 강해지고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놀려버릴 것이다.

독일 뮌헨

해설자 : 여기가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그들에게 박수를 쳐 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다른 해설자(전직 KGB 요원) : (아무리 바르게 이야기해도 유럽 사람들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로) 평등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보고 자신들이 받을 심리적인 충격으로 당연히 그들(무슬림들)은 미래에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독일 사람들을 향해) 도덕이 무너진 사람은 진짜 정보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팩트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완벽한 근거를 가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는 충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환영

난민들을 환영합니다! 난민들을 환영합니다! 독일~ 절대로 절대로 다시 조국과 나라에 대한 반역이여 영원하라~. 국제 연대 만세~! 아테네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주민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는 모든 어린이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해설자 : 200명의 튀르키예 학교 학생 중 83퍼센트는 외국인입니다.

“독일 애들은 항상 저기에 앉아 있어요. 항상 외톨이죠.”

“다른 학생들이 그 독일 학생을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소리 지르고 발로 찹니다. 독일 애들이 어슬렁거리면 재미로 주먹을 날립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다니니까요.”

“독일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겁쟁이에요.”

독일 아이를 때린다.

무슬림 남자

우리는 아주 아주 빠르게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많아야 두 명 낳습니다. 우리는 7~8명씩 낳죠. 알겠죠? 우리는 아내를 넷씩 두니까 애들이 22명이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알라에 의해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첫째로 출산에 의해서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당신 딸들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딸은 무슬림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겠죠. 그리고 당신 딸은 수염 기른 남자와 결혼하겠죠.

난민들을 위해 프리 키시

무슬림 :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자 :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무슬림 : 네 바로 거기에요. 제 성기는 아주 커요. 이만하죠. 아주 커요. 정말 이에요. 의사가 아무하고나 섹스하고 아기를 만들라고 했죠.

또 다른 무슬림 : 이 난민 캠프에 400명의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여자를 데려오죠? 만약 데려온다고 하면 그 여자는 ‘400명이랑 섹스를 해? 제기랄.’ 이러겠죠.

독일 뉴스

막테버그의 대학 캠퍼스에서 19세의 소녀가 오늘 오전 4시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무참하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소녀에게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동네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 중 네 번째 사건입니다. 10월 초에는 24세 여성이 무덤에서 무참하게 강간당했습니다. 2주 전에는 두 명의 19세 소녀들이 숨어 있던 남성들에 의해 습격당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강간 사건들과 관련해서 경찰들은 이 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들에 의하면 그들은 30세가량의 '남쪽 사람' 모습(무슬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설자 : 그들(유럽 사람들)에게 진짜 정보를 주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관념과 논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급소를 맞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뉴스

캠니츠에서 7살 여자아이가 저녁에 자전거를 타다가 공원에서 어떤 남자에 의해 제지당했고, 바로 이 놀이터에서 그 남자는 그 여자아이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전거에서 끌어 내린 뒤 7살 난 여자아이를 강간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엄마는 여자아이가 울면서 그녀에게 울 때에야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남쪽 혹은 북아프리카 사람이 그랬어요”라고 했습니다.

최종 결론 : 유대인 식 교육기관 PAIDEIA 설립자 바바라 러너 스펙터(스웨덴)

유럽은 다문화 사회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이 변혁의 심한 고통에 우리는 결국 다 동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은 지난 세기처럼 단일 사회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유럽이 겪을 커다란 변혁입니다. 유럽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문화 사회를 위한 유럽 사람들의 선도적 역할로 인해 분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 사람들의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역할 없이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가 아닌 10가지 분명한 이유

Ten Obvious Reasons Why Islam is Not a Religion of Peace¹⁾

1. 최근 10년 동안에만 무려 18,000건의 테러 공격이 명백히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다른 종교들의 테러는 모두 합하여 총 12회 정도에 불과함).

2. 이슬람교의 대언자인 무함마드는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의 종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여기에는 여자들도 포함되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 잔혹한 무함마드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명령받는다.

3. 무함마드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알라는 무함마드가 신의 사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고 많은 곳에서 말했다. 무함마드는 정확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삶 마지막 9년 동

1) <http://www.thereligionofpeace.com/pages/articles/10-reasons-not-peace.aspx>, 박용찬 형제님의 번역.

안 최소한 65회의 잔혹한 군사 작전을 명령하였다.

무함마드는 노획한 전리품, 비도덕적 섹스,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찬 낙원의 보상을 미끼로 자기의 병사들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동기들을 가지고 사악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고무시켰다. 그는 포로들을 참수했고 어린이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들을 강간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러한 무함마드의 패륜적 사례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명령받는다.

4.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그와 함께 생활했었고 그의 종교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곧바로 동료였던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였다.

무함마드가 총애하던 딸 파티마는 메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불신자들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무함마드가 죽은 뒤 6개월 만에 동료 무슬림들의 박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었다. 심지어 그녀는 제2대 칼리프가 된 남자에 의해 갈비뼈들이 부러진 후에 무함마드의 손자를 유산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이슬람교 개종자이며 무함마드에게서 아들과 같이 양육된 파티마의 남편 알리는 무함마드가 총애했던 아내이자 - 무함마드가 '완벽한 여자'라고 말했던 - 아이샤가 일으킨 군대에 대항하여 내전을 치렀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25년도 채 안 되어 벌어진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무함마드 사후 첫 번째 집권했던 네 명의 무슬림 통치자들 즉 칼리프들 가운데 세 명이 살해되었다. 그들 모두가 무함마드의 최측근에 속했다. 제3대 칼리프는 제1대 칼리프의 아들의 동맹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 몇 년 후에 제5대 칼리프에 의해 살해되었고 죽은 당나귀 가죽에 싸여서 불태워졌다. 제4대 칼리프(알리는 제5대 칼리프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뒤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다. 제5대 칼리프는 더 나아가서 무함마드가 총애했던

두 명의 손자들 중 한 명을 독살하였다. 여기서 살아남은 나머지 손자도 나중에 제6대 칼리프에 의해 참수당하였다.

무함마드의 가족 구성원들, 최측근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간의 내분과 권력 투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격화될 뿐이었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겨우 50년 만에, 이교도들의 종교 속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카바 신전은 다름 아닌 무슬림들 간의 내전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처럼 공존이 허용되지 않는 ‘끝없는 대립과 투쟁’, 바로 이것이 이슬람교라는 집에 속한 사람들의 숙명이다!

5.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다른 종교 신자들에 대해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슬람교에 복종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죽은 직후 수십 년 내에 그의 아랍 동료들은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땅들을 침략하여 정복하였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단 25년 만에, 무슬림 군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밖의 28개가 넘는 국가들의 영토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포획하였다(여기의 28개 국가들은 그 당시 지역에서 유래된 현시대의 국가들을 말한다).

6. 무슬림들은 비무슬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역에서만 저지를 받으면서, 무려 1,4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종교 신자들을 대적하여 자기들의 성전(聖戰), 즉 지하드(Jihad)를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도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명백히 알라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힌두교인들 그리고 불교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슬람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종교도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

7. 이슬람교는 그 교를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협박함으로써 교인들을 유지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 잔혹한 관습은 무함마드에 의해 세워진 사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8. 이슬람교는 비무슬림들은 완전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무함마드는 무슬림이 살인하는 경우 사형시킬 수 있지만, 비무슬림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결코 사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9. 꾸란은 결코 단 한 번도 비무슬림에 대한 알라의 사랑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다만 500번 이상 비무슬림에 대한 알라의 잔인함과 증오에 관해 말한다.

10 “알라신은 위대하다! 알라신은 위대하다! 알라신은 위대하다!”(“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u Akbar!”). 이것은 2001년 9·11 테러 때 피랍을 당한 유니티드 항공기 93편의 조종석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이다.

무함마드가 대언자가 아닌 50가지 이유

50 Reasons Muhammad Was Not a Prophet¹⁾

왜 온 세상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참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까요? 여기에 범주별로 정리된 5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몇몇 이유들은 하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무함마드의 영적 문제들

- 무함마드는 처음에 계시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계시들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인상을 받았다.
- 무함마드는 ‘가브리엘과의 만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벽에서 여러 차례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
- 무슬림 자료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마귀에게서 온 계시를 직접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사탄의 구절들》, Satanic Verses, Salman Rushdie 참조).

1) <http://www.answeringmuslims.com/2014/04/50-reasons-muhammad-was-not-prophet.html>, 캐나다의 박용찬 형제님의 번역.

- 무함마드는 자신에게 망상과 거짓 믿음들을 가져다 준 마술 주문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주장했다.

무함마드의 이교주의와 우상 숭배 문제들

-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장려한다(예를 들면, 카바 신전을 향해 절하기와 검은 돌에 입 맞추기 등).
- 이슬람교는 이교도의 의식들을 장려한다(예를 들면, 메카 순례).
-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무슬림들이 매일 기도 시간에 그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함마드를 신격화한다.

무함마드의 폭력 문제들

- 메카를 떠난 뒤에 무함마드는 사람들을 강탈함으로써 자기의 종교를 지원하였다.
- 무함마드는 키나나라는 사람이 돈을 감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그를 고문할 것을 명령하였고 자신은 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 취했다.
- 무함마드는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 무함마드는 비록 배도자들이 이슬람교를 떠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라고 추종자들에게 명령하였다.
-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폭력으로 예속시키라고 명령한다.

무함마드의 과학적 문제들

- 꾸란은 별들이 알라가 마귀들을 쏘아 죽이는데 사용하는 미사일이라고 주장한다.

- 꾸란은 태양이 탁한 물웅덩이 안으로 진다고 주장한다.
- 만약 무슬림들이 개인위생에 관한 무함마드의 가르침들을 진지하게 따르면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쉽게 죽음에 이를 것이다.
- 무함마드는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브리엘의 그 대답은 완전히 거짓이다.

무함마드의 결정적 증거에 관한 문제들

- 무함마드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자기가 저녁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떠나 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알라가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 그 계시의 결과 모든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계시들이 정말로 알라와 관계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 꾸란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무함마드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지만 성경은 무함마드를 적그리스도 중 하나라고 본다.
- 꾸란에 의하면, 알라는 만약 무함마드가 거짓 계시를 만들어 내면 그의 대동맥을 끊어 무함마드를 죽일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죽을 때 그는 자신의 대동맥이 끊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다.
- 꾸란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 꾸란은 어떤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꾸란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 꾸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의 중요한 논거는 이 책이 ‘문학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 꾸란의 저자는 아론과 모세의 남매인 미리암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다른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랍어로는 똑같기 때문).
- 꾸란은 알렉산더 대왕과 이슬람이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고 주장한다.
- 알라는 꾸란을 부패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꾸란은 (무슬림

의 기준들에 의하면 이미 부패되었다.

- 무슬림들은 꾸란이 알라의 영원한 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알라는 취소 교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원한 말에 대한 자기의 영원한 마음을 반복해서 바꾼다.
- 꾸란은 최소한 두 구절을 빼놓고 있는데, 그 구절들에서 알라는 성인 여자들이 성인 남자들의 간통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모유를 먹이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준다.
- 꾸란은 다른 자료들에서 표절한 수많은 거짓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무함마드의 여성에 대한 문제들

- 무함마드는 자기의 추종자들이 매춘부들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꾸란은 무슬림 남자가 한 번에 최대 네 명의 아내를 가지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꾸란의 명령을 어기고 네 명의 아내 이상을 가져도 되는 권리를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 무함마드는 아이샤라는 이름의, 사춘기도 되지 않은 9살짜리 여자아이와 성 관계를 가졌다.
- 꾸란은 무슬림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를 때려서 복종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 이슬람교는 무슬림 남자들이 그들의 여자 포로들과 노예 소녀들을 강간하는 것을 허용한다.
- 무함마드는 자신의 양아들이 (무함마드가 원인 제공을 하여) 이혼을 한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와 결혼하였는데, 꾸란은 무함마드의 이런 패륜적 행동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변론을 제공한다.
- 무함마드는 자기의 아내인 사우다가 살이 썩어서 매력이 없어지자 그녀와 이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사우다는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로서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 무함마드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지적이지 못하며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주

장하였다.

- 무함마드의 아내들이 그에게 왜 아이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지를 묻자, 그는 자기가 아이샤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무함마드의 신학적 문제들

- 꾸란에 따르면, 알라는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 꾸란에 따르면, 알라는 ‘최고의 기만자’이다.
- 무함마드에 따르면, 알라는 사람들이 죄 짓기를 원하며, 만약 우리가 죄 짓기를 거부하면 우리를 진멸하겠다고 위협한다.
- 이슬람교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알라가 우리를 파멸하려 하기 때문에,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는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탄이다.
- 무함마드는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 이슬람교는 알라가 무슬림들의 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지옥에서 벌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 무함마드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알라의 축복으로 영원한 발기 상태를 유지하며 처녀들과 계속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낙원을 약속하였다.

무함마드의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

-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 성경의 영감, 보존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경과 모순된다.
-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완전한 실패자로 그리고 있다.
- 무슬림들은 복음이 부패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슬람교에 따르면, 복음

의 일부는 알라 그 자신에 의해 부패되었다.

- 이슬람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유다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복음을 뒤바꾸어 버렸다.
-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 진리임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모순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확증거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교를 거부해야 한다.

왜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가?

Why Islam is Not a Religion?¹⁾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 주제인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특히 저널리스트들)은 종교를 무서워하고 그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 개념들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학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일에만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어서 가장 넓은 의미의 종교가 무엇인지조차 논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종종 종교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서 이슬람교의 신학 체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교 비평가들은 이 종교에 대해 비평할 때에 이 종교의 비종교적인 측면들 즉 이슬람교의 정치적 측면이나 사법적 측면에 대해서만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측면의 이슬람교 또는 샤리아법 하나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논의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교

1) 바이넘(Rebecca Bynum)이 2011년 10월 18일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미국 ACT 지부에서 행한 "Why Islam is Not a Religion?"이라는 제목의 연설이다. http://www.newenglishreview.org/custpage.cfm/frm/100100/sec_id/100100. 박용찬 형제님의 번역.

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교라고 스스로 암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슬람화 현상의 중요한 문제들 - 무슬림들의 이민, 모스크 건축,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이슬람교로의 개종,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로 침투하는 것 - 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손을 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슬람교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슬람교의 윤곽을 넓게 정의하기 위해서, 즉 이슬람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단지 신앙 체계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슬람교가 종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단지 종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결국 삶의 총체적 체계이며 그 안에 특정한 사회 체계, 사법 체계와 지정학적 열망들 - 땅의 정복과 통치 - 을 포함하는 정치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슬람교를 겉으로 보기에 수달을 닮은 오리너구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짐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리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알을 낳으며 수달 같지 않은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너구리는 수달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범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오리너구리는 다른 것과는 너무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한 별도의 범주를 지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슬람교도 이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과 너무 다르고 독특해서 종교²⁾의 범주에만 남을 수 없고 그것만을 위한 별도의 범주로 특별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저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모든 면에서 완

2) 여기서 연설자가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고의 선을 추구하며 인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믿음 체계를 뜻함.

전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무주의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이슬람교의 도덕률은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 현실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래프 위에 신앙 체계들을 그려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의 한쪽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보는 종교들이 있고,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없으며 세상은 사랑이 없고 무관심한 곳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내닫고 있는 물질 결정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관점입니다. 한편 그래프의 다른 쪽에는 하나님은 악하며 세상은 포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긴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도 괴상한 관점이 바로 이슬람교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의 도덕률이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슬람교가 일관되게 영에 속한 일보다 물질에 속한 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는 진리나 선함 등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이슬람 교리의 명령들에 대해 물질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도덕률, 순응 그리고 심지어 합법성도 이슬람교 안에서는 모두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폭탄 테러에 실패한 한 여성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만약 내가 [내 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라도 내 딸이 하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집에서조차 여자의 몸이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유대인들에 의해 거두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³⁾

비록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양상이 이슬람교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들은 피붙이라도 그저 재산과 같이 취급받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교가 여자들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녀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집에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사실상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그녀 자신이라는 재산을 훔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족들은 종종 그 절도를 무효화시키고 이슬람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기들의 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완화하기 위해 그녀를 죽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교는 말 그대로 인륜과 천륜까지 뛰어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 체제입니다. 즉, 이 체제에서는 몸을 통제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생각은 오로지 물질적인 세상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이슬람교 자체가 무슬림들을 위한 이른바 ‘대리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에 대한 경배는 이슬람교에 대한 순종으로 정의되고, 이슬람교는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알라신의 완전한 뜻을 대표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한 것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라는 완전히 초월적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 이것은 자살 폭탄 테러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알려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인 딸이 망가지면 안 되기에 알려 주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종교가 축소되어서 교리로 그리고 오직 교리로만 완전히 변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 있는 믿음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복잡하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살아 있는 진리가 없는 공허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종교란 보다 높은 가치 - 진리, 아름다움, 선함 등 - 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학 수업에서 배웠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들이 세상을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사람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고등 종교들이 장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가치들을 우리 자신과 결합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선해지고, 진리를 추구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종교는 - 구원과 상관없이 -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즉,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⁴⁾

반면에 이슬람교도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기들보다 밑에 둡니다. 이슬람교가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런 영적인 가치들은 이슬람교 안에, 심지어 꾸란 안에 그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2005년 5월에 뉴스위크는 쿠바의 관타나모에서 꾸란이 화장실 변기로 씻겨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곧바로 전 세계 무슬림 국가에서 폭동이 발생해 20여 명이 살해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슬람교의 배타적 우월성, 바로 이것이 이런

4) 여기의 하나님은 물론 각 종교에서 달리 불림. 연설자는 여기서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문제의 핵심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이 한낱 종지와 잉크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묘사하는 만화를 그린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슬람교의 종교적 원칙이 오직 물질적인 세계로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교보다 더 높은 진리는 없고, 이슬람교보다 더 높은 선은 없으며, 이슬람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슬람교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하였고, 그 결과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고 고상한 가치들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슬람교 자체를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제 세 가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예로 들며 그것들이 어떻게 이슬람교 밑으로 종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늘려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며 그에게 다가가는 다리도 없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믿음이란 이슬람교 그 자체가 진리이고 정의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교리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살아 있는 믿음 즉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대체해 버립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삶을 하나님께로 엮습니다. 즉 기도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의 기도에는 개인적이거나 친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은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일종의 공식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근육을 움직이면서,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실시합니다. 마치 군사 훈련처럼 기도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의 99가지 이름 중 하나에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우체국 같은 존재이므로 기도가 분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의 기도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친밀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혹은 경배란 우리가 사랑과 흠모와 경외 그리고 감사로 살아 있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노래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예배가 이슬람교에 대한 순종으로 정의됩니다.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고 사람이 그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일이며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순종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개념은 또한 민주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식 사고에 따르면, 사람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사람을 흠모하고 높이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현대의 특징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과학의 발흥과 과학이 약속하는 전지전능함 즉 사람이 과학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일반 대중이 과학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슬람교의 총제적인 신앙 체계와 총제적인 삶의 통제가 이 세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는 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면 날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닌 오직 물질세계에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슬람교는 해답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자, 아직도 이슬람교를 종교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이슬람교가 거짓 종교이거나 악한 종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선해야 한다거나 선한 행동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단순히 사람들을 통치할 권력을 얻기 위하여 대언자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거짓 말이며 이 위에 이슬람교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나 론 허바드⁵⁾ 또는 역사상 시시때때로 사람이 만든 종교를 창시했던 다른 창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신의 대언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의 악하고 잔인한 품행을 모든 사람이 본받을 품행의 표준으로 높이는 종교는 사람들을 나쁜 행동으로, 심지어 이슬람의 무자비한 지하드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를 다시 이슬람 문제의 핵심으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쁜 종교가 사회에 유익한 종교와 똑같은 혜택과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이 사회는 종교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어떤 종교가 행하는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일에 간섭하

5) L. Ron Hubbard, 사이언톨로지교의 창시자. 이 과학 종교의 신도로는 톰 크루즈, 제니퍼 로페즈, 더 스티븐 호프만 등의 연예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지 않으며, 국가는 모든 종교 기관들이 우리의 국가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번창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과 또 다른 형태의 배려를 통해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답례로, 종교(특히 미국의 경우 기독교)는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가진, 정직하고 근면한 시민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도덕규범에 맞게 행동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며 외부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자 기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종교(특히 미국의 경우 기독교)란 사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키웠고 가족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공공서비스를 육성했고 사회의 화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이와 정반대로, 자기를 분리시키며 무슬림 우월주의를 육성해서 사회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의 자선 기부 전통은 오로지 동료 무슬림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고, 무슬림들은 입양과 일부다처제를 통해서 말 그대로 건전한 핵가족 제도를 파괴합니다. 일부다처제의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들을 인간이 아닌, 재산의 지위로 격하시킵니다. 심지어 몰몬교의 일부다처제도 결국 이런 일을 합니다.

아랍의 봄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이슬람 경찰 국가가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무슬림 사회 전반에 폭력과 혼동이 난무한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슬람의 여러 종파들은 다른 종파들과 싸우고, 부족들은 다른 부족들과 싸우며, 약탈이 만연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대적하며 자기 가족을 지켜야만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종교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도덕률과 문명사회의 기준들을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슬람교가 비도덕적인 종교라는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인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개인적 덕목인 관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사회적 규범인 정의를 무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일부다처제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1878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자들에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상속권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강제 결혼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반유대주의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비무슬림들에 대한 증오를 설파하는 것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무슬림들은 비무슬림들보다 우월하다거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불평등을 기본으로 하며 일반적인 종교와 평행선을 이루는 또 하나의 법 제도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허용되면 이 사회는 존속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개인의 관용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슬람교는 신앙 체계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 체계의 결합체입니다. 이 체제는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합니다. 즉 이슬람교는 독특합니다.
2. 철학적으로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허무주의의 범위 밖에 있으며 이 체제의 도덕률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3. 사회에서 이슬람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만들어 내기보다 사회의 폭력과 불화를 싹트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최소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해서 이슬람교를 종교에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법에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였고 또 거부하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슬람교의 실체가 무엇이며, 실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 발견된 곤충을 어떤 부류로 분류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유기 농산물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면서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신앙 체계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이슬람교 수호자들이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해 온 비장의 카드 즉 “이슬람교는 종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 혼동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방법이 이슬람교를 단지 정치적 또는 사법적 체계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체계로 합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쪽의 진리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거짓 체제와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을 찾은 이슬람 지도자?

왜 꾸란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등장할까?
이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김재욱

다 음 글은 SNS를 통해 많이 전파된, 이슬람 지도자의 회심에 관한 동영상 글로 푼 것이다. 이 글은 꾸란에 기록된 예수님과 무함마드를 비교한 뒤 스스로 무함마드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전직 이슬람 종교 지도자 마리오 조셉(Mario Joseph)의 인터뷰 형식의 실화이다.¹⁾ 다소 길지만 일단 이 내용을 읽고 난 뒤에 살펴보기로 한다.

마리오 조셉의 증조부와 증조모는 터키 출신인데 인도에 이민 가서 남부의 케랄라(Kerala) 지방에 정착했다. 그는 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지만 극적으로 회심하였고, 그 뒤 그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여기 마리오의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글로 남겼다.

1) 마리오 조셉의 본명은 모울라비 술라이만(Moulavi Sulaiman). 구글에서 'Muslim Imam - Moulavi Sulaiman - turns and becomes a Catholic Preacher'라고 치면 카톨릭교회가 전하는 조셉의 이야기가 나온다. 유튜브 제목 'Holy Quran Converted Me to Christianity' - Former Indian Imam Sulaiman (Mario Joseph) 한국어 제목 검색 '꾸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꾸란에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²⁾

인터뷰 진행자(크리스티나 카사도):

정확히 언제 처음으로 이슬람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나요?
언제부터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따르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슨 이유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마리오 조셉: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성직자)으로, 교구 제사장으로 지낼 때에 저는 저의 교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에게 신은 알라밖에 없었고 또 저는 알라가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기에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럼 예수는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무슬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가 신이 아니라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2) 동영상 내용을 Jay Lee 형제님이 번역함.

그 이후에 저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 꾸란 전체를 일독했습니다.

꾸란에는 114장, 6,666절³⁾이 있습니다. 꾸란을 읽어 보니 대언자(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4군데에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은 25군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꾸란이 예수를 이렇게 많이 언급했지?”

두 번째로 저는 꾸란에서 어떤 여자의 이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모친의 이름, 부인의 이름, 딸의 이름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꾸란에서 저는 딱 한 여자의 이름만 찾았는데 그것은 마리아 즉 예수님의 모친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의 이름도 없었어요.

꾸란 3장의 제목은 ‘마리아의 가족’이었고 심지어 꾸란 19장은 제목이 아예 ‘마리아’입니다. 한 장의 제목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저는 왜 꾸란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꾸란 3장 3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고 살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고 평생 동정녀였다.

꾸란 50장 23절은 또 그녀가 육신을 입고 승천해서 천국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즉 마리아의 승천이 꾸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3장 45-55절에 그분에 대한 10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켈리마툴라’인데, 이것은 아랍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둘째는 ‘오홀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3) 보통 꾸란에는 6,236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는 견해에 따라 6,225절, 6,342절 혹은 6,666절로 분류된다. 영어 위키백과 ‘Ayah’ 항목 참조

셋째는 ‘이설마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즉 꾸란은 예수님의 이름을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꾸란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틀이 되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꾸란은 예수님이 흠으로 살아 있는 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분께서 흠을 가져다가 새를 빚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분이 흠에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말이지요.

여섯째로 꾸란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로 꾸란은 매우 흥미롭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덟째로 꾸란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고, 아홉째로 꾸란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열째로 꾸란은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꾸란에 있는 모든 것을 읽은 뒤 저는 꾸란이 무함마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꾸란에 의하면 대언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도 아닙니다. 또 태어난 지 이틀이 지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흠으로 새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치유한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습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죽었고 이슬람에 의하면 그는 살아 있지도 않고 또한 재림하지도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 무함마드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선지자(대언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보다는 더 위대한 선지자(대언자)였지요.

그래서 하루는 10년간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신은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신이 말씀을 통해 우주를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니라.”

그래서 저는 곧바로 “말씀은 창조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인지 혹은 창조물인지에 대해 저는 질문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꾸란은 예수님이 신(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 스승님이 신의 말씀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슬림들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말씀’이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모순이 됩니다. 웬지 아세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창조물이라면 신(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창조했을까요?

그러므로 제 스승님은 말씀이 창조물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가 나서 저를 방에서 쫓아내면서 “말씀은 창조주도, 창조물도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 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 :

만약 당신이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왜 다른 무슬림들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나요?

마리오 조셉 :

그들은 말씀이 창조물이라고 말하며 또한 말씀은 창조주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며 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창조주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스승

남게 말씀이 창조주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기에 크리스천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부인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없이는 아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꾸란을 펼쳐서 신은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혀가 없어도 말할 수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한 구절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부인이 없이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날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 가슴에 꾸란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예수님은 살아 있지만 무함마드는 살아 있지 않다고 하네요. 저에게 직접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기도 후에 저는 꾸란을 펼쳤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알라에게 물었습니다. 꾸란을 펼쳤더니 10장 94절이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네게 알려준 것에 대해 네가 의문점이 있다면 가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꾸준히 읽어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진리는 네 주님으로부터 이미 분명하게 네게 다다랐다. 그러므로 결코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일반적 번역문).

그러므로 누군가가 제게 “누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룩한 꾸란이 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인터뷰 끝)

이 인터뷰의 문제점

1. 누가 조셉에게 깨달음을 주었나?

이 동영상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우선 이 내용만으로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을 뿐, 이후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함마드가 대언자도 무엇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나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전혀 아님을 인정하는 과정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 관한 해답을 이슬람의 신 알라에게 묻고 있다.

알라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예수님은 살아 있지만 무함마드는 살아 있지 않다고 하네요. 저에게 직접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러나 알라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한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전능한 신, 알라]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알라]의 벌을 막지 못하리니 그분의 뜻이라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노라 천지의 권능이 하나님[알라]에게 있으며 그 사이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알라]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꾸란5:17).

오히려 이 콘텐츠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모호하게 혼동하게 만든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조셉이 인용한 꾸란 내용을 인터넷에 떠다니는 일반적 번역문이

아닌 <한국어 꾸란>으로 보자.

하나님[알라]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서[꾸란]을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주님[알라]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꾸란10:94).

여기에 보면 하나님, 주님, 성서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경(bible)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은 알라, 성서는 꾸란을 일컫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조셉이 알라에게 혹은 알라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어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가 진실로 기독교의 예수님을 알고자 했다면 기독교의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하며,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부터 구분했어야 한다.

이처럼 그가 꾸란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꾸란의 계시와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조셉에게 기독교에 관한 영감을 준 것은 꾸란이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Holy Quran Converted Me to Christianity’이다. ‘거룩한 꾸란이 나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Christianity는 참된 기독교인가, 개신교인가, 아니면 천주교와 정교회를 포함하는 의미의 ‘그리스도교’인가?

조금 더 검색을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정체는 카톨릭교도였다.⁴⁾ 물론 카톨릭교회에서도 변개되긴 했지만 복음이 담긴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카톨릭 시스템 자체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조셉은 ‘convert’, 즉 ‘개종’이 아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말했어

4) 카톨릭 신앙 옹호자(Defenders of the Catholic Faith) 웹사이트에는 ‘무슬림 이맘이 카톨릭교회로 개종하다’는 제목과 함께 그의 동영상이 소개되고 있다. <http://www.catholicconvert.com/blog/2014/07/05/muslim-imam-converts-to-catholic-church/>

야 한다. 그는 단지 깨달음을 통해 종교를 바꾸었을 뿐이다. 어차피 알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본 상태에서 무함마드를 떠나 예수의 신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것은 이슬람의 알라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질문과 추적을 통해 예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이다.

2. 꾸란에 등장하는 천주교 교리

그러나 이맘이었던 마리오 조셉이 이슬람을 박차고 나온 것만으로도 뉴스가 될 만하다. 꾸란을 통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정도로 예수와 마리아에 관한 많은 내용이 꾸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조셉 같이 회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수십억의 대다수 무슬림의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암담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꾸란에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수십 번이나 삽입된 것일까?

천일야화의 탄생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무슬림들은 엄청난 상상력의 이야기꾼들이라고 한다. 이슬람 메카의 최고 제사장인 왕자의 주치의를 지낸 김승학 집사님에게 들으니 그들은 물담배를 피우며 밤새 이야기를 꾸미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오늘의 주제 격인 단어를 쪽지에 적어서 옆 사람에게 넘기면 그 단어에서 즉흥적으로 무궁무진한 허구가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이어 받은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글을 몰랐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꾸란에는 모세와 노아를 비롯해 예수님까지 알라의 대인자(선지자)로 등장하는데, 그중 최고는 물론 무함마드이다. 과연 무함마드가 얻어 들은 것들 때문에 꾸란에 기독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

일까? 단지 귀동냥으로 알게 된 이야기가 포함된 경전을 통해 그토록 구체적인 기독교 교리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슬람 지도자였던 조셉 같은 사람이 회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상한 것은 아예 제목부터 시작해 꾸란의 한 장을 채우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의 왜곡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틀 뒤부터 말을 했다는 것은 싯다르타의 신화처럼 변형되고 과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같은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정식 교리인데 이 내용은 왜곡도 변형도 되지 않았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리와 원죄 없이 태어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도 그대로 나온다.⁵⁾

이쯤 되면 이슬람과 꾸란을 누가 만들었는지 슬슬 감이 잡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나 증거 중에 '천주교 기획설'이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아귀가 들어맞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꾸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에 대한 큰 증거라고 본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슬람교 기획설

복음적인 좋은 책을 많이 내는 미국의 칙 출판사에서 나온 만화 <알베르토 시리즈>⁶⁾가 있다. 알베르토 리베라(Alberto Rivera) 박사는 천주교 사제로 교황청 수뇌부까지 들어가 일을 했지만 회심하고 나와 세상에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 책은 그의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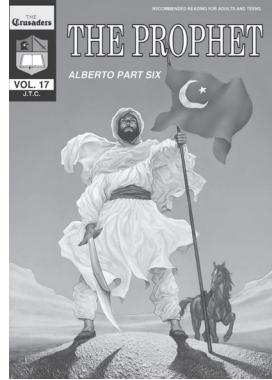
알베르토 리베라

5) 로마 카톨릭 교리는 공회의 결정이나 교황령에 따라 수시로 추가되고 바뀌므로 시대에 따라 다름

6) 원래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칙 출판사에서 23권의 만화 시리즈로 출간했다. <http://www.chick.com/catalog/comiclist.asp#alberto>, 이 중 17번째 시리즈가 'The Prophet'이며 이 책은 천주교에 의한 이슬람 확립 과정을 보여 준다. 현재 국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알베르토 시리즈'라고 치면 찾을 수 있다. 아마존에서도 'chick comic prophet'을 치면 구할 수 있다.

만화로 만든 시리즈인데, 소개하는 내용들이 너무 엄청나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벅차지만, 여러 정황상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많으며 사실로 드러난 일도 많다.

이 시리즈의 6부 <거짓 선지자>⁷⁾에는 천주교가 아랍인들을 속여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오른쪽 표지 참조). 이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었다. 천주교의 오랜 숙원 사업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점령이다. 카톨릭 대성당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들어서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정통성과 정당성이 생겨 온 세상 교회를 마음껏 주무르며 정치력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톨릭교도들이 극심히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몰아 없애 버려야 끈질기게 조상의 땅을 지키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성전과 그 터를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이 실현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아랍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교활한 계략에 이용된 불쌍한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알베르토 리베라는 천주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슬람을 만들었다고 증언하는가?

① 콘스탄틴 대제의 311년 기독교 공인 조치 후인 354년에 어거스틴이 태어난다.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을 쓴 교부이자 주교인 어거스틴은 아랍의 부족들을 카톨릭교도로 만드는 데 열을 올렸던 종교다원주의자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부족들에게는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아랍인들을 하나로

7) 원제목 <The Prophet>. 국내에서는 출판사에 따라 <중동의 음모>로도 번역되어 있음

모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② 약 200년 후인 570년에 무함마드가 탄생한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랍인들의 메시아로 그를 지목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제거할 세력으로 삼는다.

③ 카톨릭교회는 자신의 전 재산을 수도원에 바친 카디자라는 부유한 미망인에게 임무를 주고 그녀를 무함마드에게 보내 결혼을 하게 한다. 역시 카톨릭교도인 카디자의 사촌 와라쿠와는 무함마드의 고문 자리에 앉았다. 무함마드는 어거스틴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준비된 메시아로 부상한다.

④ 무함마드는 환상과 계시 - 사실은 와라쿠와의 해석 - 를 통해 꾸란을 완성한다. 꾸란에 포함되지 않은 무함마드의 저서는 아직도 바티칸에 있으며, 이 두 종교의 핵심부가 보관한 자료들에는, 드러나면 파문을 불러올 서로에 관한 비밀이 많다.

⑤ 무함마드가 사망할 즈음에는 무슬림 세력이 무척 커진다. 바티칸은 무슬림을 이용해 유대인들과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 조직의 재원을 공급한다. 이 결과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정벌에서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바티칸이 제시한 조건대로 카톨릭교도들은 무사했다.

⑥ 와라쿠와의 거짓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알라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려던 것으로 꾸란이 변경되는데, 이 교리 때문에 691년, 예루살렘 유대 성전 자리에 하늘로 올라간 이스마엘을 기념하는 바위 사원이 들어서고, 이곳은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이 거룩한 성전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그냥 바치기에는 너무 큰 종교적 의미를 담게 됐으며, 어느새 이슬람은



파티마의 기적이 보도된 당시 포르투갈 신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수의 독립 세력이 되어버렸다.

⑦ 통제가 불가능해진 집단 이슬람은 전세계를 정복해 알라에게 바치고자 했고, 유럽까지 넘보게 되자 위기를 느낀 교황은 자신의 군대 십자군을 일으켜 카톨릭교회의 무대인 유럽을 지키고자 했다. 수 세기에 걸친 싸움에 예루살렘은 카톨릭교회에게서 멀어져 갔다(훗날 이스라엘마저 독립하게 되어 오늘날 성전 터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제외한 유대교와 이슬람의 대립 장소가 됨).

⑧ 터키가 이슬람에 굴복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이슬람의 공격을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에 무함마드의 딸 중 하나의 이름을 기념한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이 생겨난다. 딸 파티마가 죽었을 때 무함마드는 자기 딸이 낙원에서 마리아 다음으로 거룩한 여인이라고 칭했다. 이 마을이 후에 조작된 기적 '파티마의 레이디'가 탄생하는 공간 파티마이다(1917년 '파티마의 기적'은 포르투갈 공산화를 막았고, 러시아 정교회의 몰락 등에 이용됨).⁸⁾

⑨ 전쟁으로 지친 이슬람 장군들은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비롯한 카톨릭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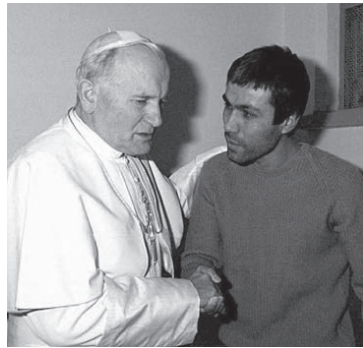
8)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917년 5월 13일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이 전황에 휩싸여 있을 당시 파티마의 코바 다 이리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세 어린이가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 앞에 성모 마리아가 출현했다. 성모 마리아는 세 아이에게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월 13일에 이곳에 와서 평화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6월에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기다리고 있던 세 아이에게 세 가지 예언을 했으며 그중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 어른들은 세 어린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확산되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성모가 나타나겠다는 10월 13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기다렸고 갑자기 구름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발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1930년 레이리아의 주교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바티칸의 명으로 성지로 정하여 대성당을 세웠다(네이버 지식백과) 파티마의 기적, 두산백과).

도자들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슬람은 기독교 지역인 터키를, 카톨릭은 레바논을 서로 점령하게 된다. 또한 무슬림은 카톨릭 국가에서 간섭받지 않고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슬람화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무슬림들이 증오를 쏟아내는 대상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근본주의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이다.

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무슬림 메흐멧 알리에게 다리를 저격당하였는데, 그 총알은 파티마의 성모상에 바쳐졌고, 교황이 그를 용서하는 장면이 매스컴을 탔다. 사실 이 청년은 유럽 최고의 청부 살인업자인데 겨우 3미터 거리에서 방아쇠를 당기고도 교황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알라의 대언자’ 예수의 대리자를 무슬림이 저격한 일로 공식 위로와 사과를 보냈고, 메흐멧의 배후로는 소련의 KGB가 지목돼 공산주의가 교황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천주교회가 많은 것을 얻은 이 사건은 기획된 것이 분명하



총격을 당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만난 저격범 메흐멧(오른쪽)

다.

3. 회심의 간증에 가려진 함정은 없는가?

이슬람은 기독교를 혐오하지만 천주교와는 회동도 하고 극한의 대립을 하

지 않는다. 이슬람이 천주교 신자를 신앙적 적대감 때문에 공개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의 입성에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럽이나 필리핀 등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때문에 약간의 저항과 마찰이 있을 뿐 이슬람교의 팽창이 자연스럽다. 알베르토의 증언이 역사와도 맞아 떨어지며 결과로도 나타나는 증거이다.

마리오 조셉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일단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그가 천주교 외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제게 “누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수녀나 주교나 추기경, 교황은 그리스도인과 거의 연관이 없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로 지목 받기도 하는 것이 천주교회이며, 성경은 그들을 적그리스도 짐승 위에 탄 여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리오 조셉이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된 복음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천주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 마리오(Mario)는 마리아(Maria)의 남성형인데, 조셉(요셉)도 아마 세례명일 것이다.

(너무 음모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나) 이 동영상은 종교다원주의적 기획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 동영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성경을 보든 꾸란을 보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복음을 찾을 수 있다.
- 따라 올라가면 모든 종교는 결국 뿌리가 같다.

• 성경도 꾸란 수준의 신화이며 사람의 개입으로 기록된 책일 수 있다.

이런 동영상에서 우리가 개종 사건에만 주목하면 기독교의 핵심과 초점을 흐리는 빌미를 줄 수 있다.

한 영혼의 회심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증을 무작정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의 복음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다. 이런 사례를 두고 선불리 이슬람 복음화의 희망으로 삼는다든지, 성경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활용한다든지, 너무 은혜에만 집중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동영상에 담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의 출처, 전개되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이 무슬림을 자극할 수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용의주도하고, 실로 무서운 조직이다.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인다. 이들의 계략에 수십억 아랍인들은 오늘도 비진리의 감옥에서 헛된 종살이를 하고 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을 노리는 적이 많지만, 주적이 누구이며, 그런 적을 양산하는 일을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대개는 우악스럽고 말이 통하지 않는 무슬림들만을 지적하지만 이 역시 감정에 휘둘릴 일은 아니라고 보며, 이슬람교 팽창의 위기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이슬람의 관계’는 꼭 한번 짚어 보아야 할 이슈가 아닌가 싶다. 이슬람은 반드시 막아야 할 세력이지만 그들만을 정죄하고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것은 또 다른 맹점을 낳을 것이며 마귀의 전략에 속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험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험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땀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

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 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이사야서 59장 1-2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설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영존하는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십시오!

▶▶ 성경지킴이 www.KeepBible.com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화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로이드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제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재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 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정동수 감수,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서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서디
11.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2.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성경의 역사 :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세상을 바꾼 책(KJB 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21. 재림과 휴거 :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헨리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2.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23. 구원열차 구원방주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4.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그리스도예수안에
25.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6.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잭슨 외 저, 고정인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7.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8.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9.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킹제임스 흠정역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2011
400주년
기념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필전·무디·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에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김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벤티 외

김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김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출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엠알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수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철저히 비교분석한 책. 김제임스 성경의 무오성과 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출정역이 가장 정확한 한글 성경임을 입증.

성경 신자들의 글모음 김재욱 외 9인

김문수, 김용욱, 김재근, 김재욱, 김학준, 노영기, 이은희, 정성권, 진미희, 홍승현 등 성경 신자들이 쓴 풍성한 읽을거리.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책스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안정한 종교를 대비시켜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세상을 바꾼 책 김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김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학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침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구원 교리와 신앙 상식, 성경 교리, 칼럼, 세미나 자료 등을 수록. 지식보다 상식이 통하며,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김재욱

바르게 사고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사색의 글모음. 신앙칼럼과 성경분석, 기독교와 사회 문제, 김제임스 출정역 변화 등 수록.

구원열차 구원방주 김재욱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가 무너지는 세대를 위해 구원열차 노래가사를 따라가면서 구원의 영속성 교리를 설명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증명한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리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실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김제임스 출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은 물론, 기타 김제임스 한글 번역본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출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건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